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879
www.baekyoungju.com
ClearPa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13,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광고문의 전화: 617-903-3010 ISSN 1554-6942



막판 역주 21살의 레미 헤이레 보스톤마라톤 우승

여자부 대회사상 가장 극적인 역전 에트세데 베이사

남자 우승을 차지한 21세의 레미 헤이레가 결승선 통과 바로 직전에 승리를 확신한 듯 환호를 하고 있다. 상금 15만불을 받았다

지난해 우승 데시사 40KM 지점에서 따돌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에티오피아 출신의 21세 레미 헤이레가 18일 열린 제 120회 보스톤마라톤 우승을 거머쥐었다. 헤

이레는 지난해 우승선수인 레리사 데시사(26, 에티오피아)와 막판까지 경쟁하다 경기중반 따돌리고 우승의 감격을 안았다. 몇 년째 엘리트 선수가 출전하지 않은 한국 선수는 상위 100위 안에 들지 못했다.

60도 초반의 기온의 아주 좋은 마라톤 컨디션에서 경기를 치른 레미 헤이레는 지난해 우승 데시사, 지난해 준우승자인 예매니 세계이(에티오피아) 그리고 2012년 보스톤마라톤 우승자 ▶▶7면으로 계속

뮤지컬 '해밀턴' 광풍 올 시즌티켓 매진

뮤지컬 보지 않은 사람들도 해밀턴에 몰입 \$150짜리 티켓이 지금은 \$1200로 둔갑 2014 라이온킹이래 연티켓 판매 1억불 돌파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올 연말까지 전석 매진. 뮤지컬 '해밀턴'의 광풍이 불고 있다. 2015에 초연된 브로드웨이 합창 뮤지컬 해밀턴은 뮤지컬 팬덤현상까지 만들고 있다.

기사 작성을 위해 해밀턴의 티켓 구입 사이트를 뒤져본 결과 판매하고 있는 티켓은 모두 고가의 재판매 티켓이었다. 브로드웨이에서 가장 잘 팔리는 뮤지컬인 해밀턴의 재판매 티켓 가격은 최저가 \$7-800이며 대부분 \$1,000을 호가했다.

브로드웨이인 보스톤 (Broadway in Boston)은 몇주전 2016-17시즌 브로드웨이 공연작들을 발표하면서 예외적으로 ▶▶2면으로 계속



이민법
상법
만행사소송
이혼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ang

617-504-0609
Cambridge Office
929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www.kijusang.com



From \$1550
대한항공
항공권

1.866.619.4223 (Toll Free) / 617.424.8956

IACE TRAVEL



애나 정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뉴스타 부동산 전국 1위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MA, NH Licensed
Million Dollar Guild
CLHMS, CRS, CIPS, SRES, ABR

617.780.1675
annajung@nexstarrealty.com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오누리 변호사
Juno H. Oh, Esq.
부동산 전문 변호사

The Law Offices of Sonja B. Selami
Tel: 508.424.0600
Cell: 508.665.1544
Fax: 508.445.1587
juno@selamifirm.com
7 Muzzey St. Lexington, MA 02421

2018년 보스턴에서 해밀턴 공연예정

▶▶1면에 이어서

2018년 브로드웨이인보스톤 공연작에 뮤지컬 해밀턴이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했다. 해밀턴 티켓 구입에 대한 정보를 미리 받기 원하면 회원가입을 해야한다는 친절한 설명을 들었다. 브로드웨이인보스톤은 이를 통해 충분한 회원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었던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3월 말까지 해밀턴은 총 6천1백70만불의 수입판매고를 올렸다고 헐리우드 리포터는 밝혔다. 뉴욕 포스트는 한 브로드웨이 관계자를 인용해 해밀턴이 첫째 공연을 통해 1억달러에 달하는 티켓판매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매고는 브로드웨이 사상 2014년의 라이온킹이 유일했다.

재판매 티켓이 극히 고가로 변하면서 뮤지컬 공연 티켓을 구입했던 사람들은 뮤지컬을 볼 것인지 아니면 이를 팔아 이득을 챙길 것인지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보스톤글로브에 따르면 브레인트리에 거주하는 에이미 맥휴씨는 지난 겨울 4월 공연 티켓을 친구와 각각 \$150에 구입했다. 이 티켓의 가격은 1장당 \$1,200로 경천뛰었다. 맥휴씨는 모든 주위 사람들이 티켓 판매를 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쯤 되면 벼락부자가 아닌 이상 일반인들의 해밀턴 관람은 별따기에 가까운 셈이다. 한가지 방법은 해밀턴 온라인 로터리에 승부를 거는 것이다. 그러나 항상 로터리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로터리 웹사이트에서 해당일 8시 쇼를 해당일 오후 12시에 추첨을 시작한다. 추첨이 가능해지면 <업커밍>이 아닌 <엔터>로 변하며 <엔터>가 됐을 때 로터리에 도전해야 한다. 이 로터리는 21개의 맨앞좌석을 좌석당 \$10에 구입할 수 있는 행운을 뽑는다.

트위터에서는 해밀턴에 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으며 유명 스타들이 해밀턴을 본 후 주연 매뉴얼 미란다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인증샷처럼 올리고 있다. 일부는 해밀턴에 대한 것을 모르면 대화에 걸 수 없도록 하기도 하며 해밀턴 대사를 따라하는 등의 바람이 한창이라고 보스톤 글로브는 보도했다.

트위터에서는 해밀턴에 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고 있으며 유명 스타들이 해밀턴을 본 후 주연 매뉴얼 미란다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인증샷처럼 올리고 있다. 일부는 해밀턴에 대한 것을 모르면 대화에 걸 수 없도록 하기도 하며 해밀턴 대사를 따라하는 등의 바람이 한창이라고 보스톤 글로브는 보도했다.



린 매뉴얼 미란다가 2012년 자신이 자란 어퍼 맨하튼에서

editor@bostonkorea.com



뮤지컬 <해밀턴>의 한 장면



토마스 카일(사진 좌측) 감독과 주연이자 각본 및 노래작곡자인 린 매뉴얼 미란다가 리허설에서 의논하는 모습

<진료 과목>

- * 일반 치과 * 잇몸 질환 치료
- * 신경 치료 * 보철 전문
- * 보복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MassHealth,
etc.

케임브리지 덴탈

큰 웃음을 드립니다

Cambridge Dental Associates
126 Inman Street
Cambridge, MA 02139
(617) 492-8210
한국어 진료 상담 가능

형사법
상법/회사법
유언장/ 상속
민사법
부동산법

스티븐 김 변호사

보스톤 검사 경력
(Steven S. Kim)

617.879.9979

stevenkimlaw.com

The Law Office of Steven S. Kim

2001 Beacon Street, Suite 101,
Boston, MA 02135

Steven@stevenkimlaw.com

MFA 아시아 예술가 전시전에서 한국인 예술가 화제

BBC, WSJ, 보스턴 글로브의 주목 이끌어 3개월간 퀸시 마켓과 MFA에 전시 예정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김시훈 기자 = 이달 보스턴 미술관(이하 MFA)에서 개최하고 있는 아시아 예술가 전시회에서 화제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한국인 예술가가 있다. 요즘 퀸시 마켓에 가면 볼 수 있는 거대한 과일나무와 MFA 정문에 자리 잡은 웅장한 꽃이 모두 그의 작품이다.

MFA는 이달 3일부터 7월 17일까지 세 달간 서울, 베이징, 뭘바이 등 아시아 11개 도시를 거점으로 활동중인 아시아 예술가들의 초청 전시회인 'Megacities Asia' 를 개최중이다. 한국의 설치 미술을 대표하는 최정화 작가도 이번 아시아 예술가 전시회에 초청되어 벌써부터 BBC와 월스트리트 저널, 보스턴 글로브와 같은 여러 언론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그는 1987년 홍익대 회화과 졸업한 뒤, 90년대부터 세계의 각종 비엔날레와 전시회에 참가해 왔다.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영화, 건축, 무대디자인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전방위 예술가이기도 하다.

퀸시 마켓에 설치된 알록달록한 과일 나무 형상의 풍선 작품 'Fruit Tree' 는 최근 그의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작년 한

국의 국회와 청계천 광장에 선보여 서울 시민들의 성원을 받은 바 있다. 공개식에 참석한 보스턴 시장 마티 월시(Marty Walsh)는 축하에서 "여 자친구가 내일 뭐하냐고 묻길래, 과일나무에 바람을 불러 간다고 말했다. 그게 뭐냐는 질문에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서 나도 모르겠다고 했다." 라고 말해 주변의 관객들을 포복절도하게 만들었다. 이 작품을 사진으로 찍어 제시하면 MFA의 'Megacities Asia' 전시전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그의 작품을 보면 일상속에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한 물건들이 많은데, 대중과 소통하는 그의 작품관을 엿볼 수 있다. MFA에 전시되고 있는 연금술 (Alchemy)이라 이름 붙여진 작품은 이러한 그의 경향을 반영하는 작품중에 하나다. 이 작품은 시장이나 천원샵과 같은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싸구려 플라스틱 용기들을 쌓아올려 신비로운 모습으로 바꾸어 놓으며 '일상의 연금술' 을 보여준다. 작가는 관객들에게 예술이 인간의 삶에서 결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



1.마티 월시(Marty Walsh)는 보스턴 시장은 최정화 작가의 'Fruit Tree' 공개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퀸시마켓에 전시중인 최정화 작가의 대표작 'Fruit Tree' 는 보스턴의 새로운 명물이 되고있다 3.연꽃을 연상시키는 최정화 작가의 숨쉬는 꽃 (breathing flower)은 MFA정문에 설치되어 실제 꽃처럼 봉오리가 열리고 닫힌다

는 작업을 하고 있다. 최정화 작가의 'Fruit Tree' 앞에서 만난 시애틀에 거주하는 스나이터씨는 "어제 전시를 보고 왔는데 이걸 꼭 봐야 한다고 느꼈다. (이런 기회는) 일생에 단 한번뿐 일 것이다." 라고 공연 소감을 밝혔다.

Megacities Asia 전시전
장소: 보스턴 미술관 (Museum of Fine Arts

Boston, 465 Huntington Ave, Boston, MA 02115)

기간 : 2016년 4월 3일부터 7월 17일 까지
관람료 : \$25 (퀸시마켓에 있는 최정화 작가의 작품 Fruit Tree를 사진으로 찍어 제시하면 무료)

itshunne@boston.korea.com

SAT Plus

맞춤식 교육 Mathematics • Verbal • Testing Skill

SAT I 및 SAT II 준비 전문학원

TEL: 781-398-1881

2 Winter Street Suite 104, Waltham, MA 02451

SAT Plus Spring 2016 Schedule

Class	Time
SAT II MATH II C	Start 3/26/16 - 5/28/16 Saturdays 9:00 AM - 11:00 AM
SAT II / AP Chemistry	Start 3/14/16 - 5/28/16 Saturdays 11:30 AM - 1:30 PM
SAT II / AP Biology	Start 3/12/16 - 5/28/16 Saturdays 2:00 PM - 4:00 PM
SAT II MATH I C	Start 3/26/16 - 5/28/16 Saturdays 4:30 PM - 6:30 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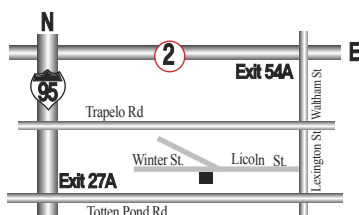


"항상 Tutoring이 가능합니다!!"

English Writing, Biology, History, Chemistry, Math, Physics

10년 이상의 지도경력으로 우수한 학생을 배출하신 한상훈 선생님이 항상 지도하시고 계십니다.

Rocky Hill School 과학 및 수학교사 Disciplinary Committee
MIT 생물학 학사학위
Who's Who Teachers of America-1992년 선출
Tandy Award Finalist(수학 및 과학분야 우수교사 표창)
지난 10년간 SAT I 및 SAT II 개인교습



보스톤 한미문화재단 2016 봄 콘서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보스톤 한미문화재단은 오는 4월 30일 토요일 저녁 7시 브루클라인에 위치한 세인트폴 교회(15 St. Paul's Street, Brookline) 에서 2016년 봄 콘서트를 개최한다.

한미문화재단이 4월을 맞이하여 준비한 콘서트에서 첼리스트 배유미 씨는 바흐가 아내를 잃은 직후 작곡된 무반주 첼로조곡 2번과, 유대인 작곡가 블로흐의 "기도" 그리고 피아졸라, 그라나도스 등의 서정적인 클래식 곡등으로 개인적인 슬픔을 극복하여 생의 활력을 회복해 가는 과정을 그린다.

마림바 연주자인 천소윤(Christina Cheon) 씨는 보다 현대적인 시각에서 아픔과 분노, 그리고 이를 내면적으로 은은하게 다스리며 평정을 찾아가는 과정을 표현한다.

2부 순서에서는 김도연 씨의 가야금과 하버드와 뉴잉글랜드콘서버토리(이하 NEC)에서 컴퓨터공학과 실험음악을 복수전공한 체이스 모린(Chase Morrin) 피아노의 듀오 등 국악과 서양 재즈/즉흥 음악을 융합시킨 그룹의 연주가 이어진다.

NEC 보컬리스트 정원미 씨가 세월호의 희생을 기리며 작곡한 "Lost"와 한국 고유의 "비나리" 를 자유 4중

주(The Jayu Quartet)가 연주한다. 자유 4중주는 정원미씨가 보컬, 김도연 씨가 가야금, 크리스 맥카시(Chris McCarthy) 가 피아노, 일라이 코헨(Eli Cohen)이 퍼커션을 연주한다. 자유 4중주는 NEC에서 올해를 대표하는 그룹의 하나로 선정된 바 있으며 최근 NEC 조단홀에서 "Lost" 등을 초연하며 열렬한 호응을 받은 바 있다.

한미문화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 각지에서 전쟁, 편견, 재난 등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이들의 깊은 슬픔과 이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사회를 지향하는 끈질긴 염원을 과거와 현재, 한국과 서양음악, 그리고 동서양 시의 다양한 줄기를 통해 지성과 감성을 조화한 형태로 조명해 보고자 한다"고 이번 프로그램의 의도를 밝혔다.

이번 음악회의 티켓은 온라인(www.goo.gl/0611YS 또는 www.korean-cultureboston.org)으로 할인 구매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이메일(info@korean-cultureboston.org)을 통하여 할 수 있다.

보스톤 한미문화재단(KACF)은 지난 수년간 한국 출신 젊은 음악가들과 그 동료들의 다국적 협연 통하여 보스톤 지역 관객들에게 한국 문화의 과거와 현재의 열린 모습을 전하고자 노력



보스톤 한미문화재단은 오는 4월 30일 2016년 봄 콘서트를 개최한다

해 왔다.

2013년 뛰어난 국악인 한테라 씨를 초빙, 하버드대학 한국학 석학인 데이비드 맥켄 교수의 시조 강연과 곁들여 한국의 단아한 음악과 가무 전통을 공연했다. 2014년에는 재미 작곡가 장재혁 교수가 국악의 다양한 모티브와 현대 서양음악의 기법의 조합을 통한 창작곡 "Blessed Lament" 를 보스톤의 중견 음악가들의 해석으로 선보였다. 작년에는 미국출신 떠오르는 젊은 작곡가 중 하나인 마이클-토마스 포우메이(Michael-Thomas Foumai)씨가

한국시나위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한 실내악곡 Village Music의 보스톤 초연과 가야금 연주자 김도연 씨의 즉흥 연주 등의 연주로 호응을 받았다.

일시: 2016년 4월 30일(토), 저녁 7시
장소: St. Paul's Episcopal Church (15 St. Paul's St, Brookline)

티켓: \$30 (adult), \$10 (Student/Senior)

티켓문의: 617-561-0837
(행사당일구입가능)
bostonkorean@hotmail.com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Publisher & C.E.O 장영술 Myong Sool Chang

Writer 한새벽 SaeByuk Han 정성일 Sungil Jung 박현아 HyunAh Park 김시훈 Sihun Kim 백은세 Eun Se Baik

Graphic Designer 정한웅 HanWoong Chung

Marketing 최성우 SeongWoo Choi

Web Master 정한웅 HanWoong Chung

Contribution part

신영각 YoungGak Shin 공정원 JungWon Gong 김은한 EunHan Kim 백영주 YoungJoo Paik 성기주 KiJoo Sung 신영 Young Shin 윤희경 HeeKyung Yoon 이명덕 MyoungDuck Lee 앤드류곽 Andrew Koak 앤젤라엄 Angela Um 정준기 JoonKi Jung 이선영 SunYoung Lee 소피아 Sophia 홍하상 HaSang Hong 오승준 Albert Oh 이명원 Myung Won Lee 장동희 Donghee Jan 김화옥 HwaOk Kim 송동호 Dongho Song

& TV 사업국 617-955-9112

재류업체 | 연합뉴스 | 미신협 회원사 | 세한연 회원사

나쁜 치아를 만났다면 좋은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진료과목
일반치과
신경치료
잇몸질환치료
보철전문
보톡스&필러

주요 보험
Delta, BC/BS,
Aetna, Cigna,
Metlife, etc...

한국인
진료 상담 가능
응급치료 가능

617.871.1482

캠브리지 덴탈 어넥스 Cambridge Dental Annex

Tel 617.871.1482
Fax 617.871.1483

정관장 정품은 정관장만 취급하는 "브랜드스토어"에서 구입해야 안전합니다.



용수용지는 활력과 건강,
녹용으로 누리세요.

정관장 뉴질랜드 녹용과
정관장 6년근 홍삼의 만남

치유 보습으로 피부의
기초면역력을 높여 줍니다.

정관장 6년근 홍삼의
비밀스러운 처방

동인비 제품 \$100 이상 구입시
동인비 정관장 오일젤 무료증정

Free Gift






면역력의 힘! 정관장 홍삼정

홍삼정 240g 구입시
홍삼정 30g 증정

보스톤 정관장 브랜드스토어

781-238-0303

8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전화주문 서비스

FedEx 결제후 24시간 내 배송이 가능하며,
\$100 이상 주문시 무료배송

✓다주토도 배송 해드립니다.

한국학교 협의회 글짓기 대회 30일 열려

나의 꿈 말하기 대회도 동시에 개최
글짓기 대회 심사기준 대폭강화



작년에 개최된 한국학교 글짓기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학생들의 특별 시상식 모습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는 4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 반까지 앤도버 소재 북부보스톤 한국학교 (244 Lowell St, Andover, MA 01810)에서 2016년도 글짓기 대회 및 뉴잉글랜드 지역 나의 꿈 말하기 대회를 개최한다.

뉴잉글랜드 지역 한국학교에 재학하는 학생들로 프리킨더(Pre-Kinder) 이상인 학생들이면 참가가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각 학교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단 한국에서 정규교육 4년을 초과하여 받은 학생은 참가할 수 없다. 이번 행사의 참가비는 협의회 회원교 학생의 경우 \$10이며 비회원교 학생은 \$20이다.

글짓기 대회는 각 학년별로 심사해 대상, 금상, 은상, 동상 그리고 입선 상을 수여한다. 9학년 이상 대상을 받은 학생들의 글을 다시 심사해서 보스톤 총영사상이 수여된다. 각 학년별 대상

에게는 보스톤 지역에 있는 각 기관 및 협의회장상이 주어진다.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는 심사기준을 강화해 총점 60점 미만은 수상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총점 80점 미만인 경우 대상 또는 총영사상 수상대상자에서 제외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협의회는 참가자격을 위해 한 학생에게는 수상자격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뉴잉글랜드지역 나의 꿈 말하기 대회의 출전 자격은 현재 정규 학교 5~12학년으로 현 거주지에서 3년이상 거주하고,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 지역 협의회 회원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국에서 초, 중, 고 교육을 1년이상 받지 않은 학생만 가능하다.

나의 꿈 말하기대회 우승자에게는 보스톤 총영사상이 주어지고, 그의 입상자들에게는 협의회장상이 주어진다. 대회 우승자에게는 이번 7월에 있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한국학교 교사 학술대회에서 열리는 나의 꿈 말하기 대회 본선에 진출자격이 주어진다.

본선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부장관상,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상, 주미대사상이 주어지고, 부상으로 한국 방문(1명), 한국 연수(1명)이 예정되어 있다.

이번 행사에 대한 문의는 재미한국학교 뉴잉글랜드지역협의회 홈페이지 www.naks-ne.org 또는 박지애 총무 jiae@live.com 으로 할 수 있다.

bostonkorean@hotmail.com

매사추세츠 태권도협회 태권도 대회 15일 개최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주 태권도협회가 주관하는 태권도 대회가 5월 15일 일요일 우스터 인근 그래프턴 소재 Grafton High school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주 보스톤 총영사관이 후원한다.

15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이번 태권도 대회에는 약 4-500여명의 선수들이 참여하게 될 예정이다. 매사추세츠 지역 선수들은 나이와 체급, 띠별로 나누어 품새, 겨루기, 격파의 개인전을 치르게 된다. 또한 각 도장에서 참가하는 시범단의 단체전도 진행될 예정이다.

대회에 앞서 4월 13일 매사추세츠주 태권도협회 정제형 회장과 임원들은 보스톤 총영사관을 방문해 후원협조를 구하고 대회 진행상황 및 스케줄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임성준 총영사는 “이번 대회를 통해 우리의 문화와 태권도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매사추세츠주 관장 사범 학생들이 화합하여 잘 이뤄질수 있도록 격려했다.

이번 태권도 대회는 일반인도 관람이 가능하다.

bostonkorean@hotmail.com



(좌로부터) 이광섭 영사, 임성준 총영사, 정제형 매사추세츠 태권도협회장, 전명호 사무총장, 김휘용 홍보간사



Frank Y. Shin, DMD
현 **Tofts** 치과대학 부교수



신영목치과

- 치아 이식 수술 [Implants]
- 금속 없는 크라운
- 미용 치료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 드립니다)
- 응급 환자 당일 치료
- 토요일도 진료함
- 각종 보험 지정 병원

www.drfrankshin.com

617.265.5606

1428 Dorchester Ave. Boston, MA 02122



가주 순두부

한식&일식

2013, 2014년 보스톤 매거진 선정 한식 1위 "가주 순두부"
업스톤점과 캠브리지점 두곳에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은
오전10시~ 밤10시까지 입니다.



업스톤 지점
56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617) 208- 8540

캠브리지 지점
57 JFK st. Cambridge, MA 02138,
(617) 864- 6868

단체 예약과 문의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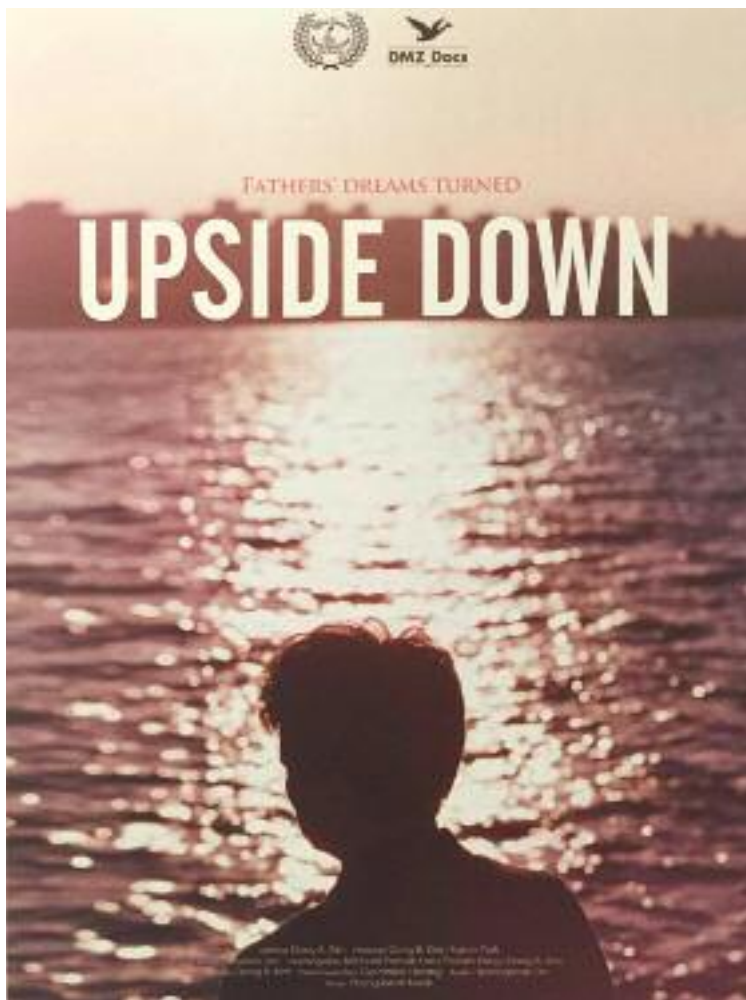
세월호 영화 업사이드 다운 하버드 상영회 가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백은세 기자 = 한국에서 4월 14일 개봉해 총 24개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는 영화 '업사이드 다운'이 4월 15일 금요일 하버드대학 로스쿨 파운드홀에서 상영되었다. 이번 상영회는 하버드대학교 한인회 학생들이 세월호 참사 2주기를 맞아 '업사이드 다운' (Upside Down)의 김동빈 감독을 초청하여 주최한 것으로, 1층의 원형강의실에는 스무 명 남짓의 관객이 함께 했다. 주로 학생들이었고, 두명의 외국인 관객이 눈에 띄었다.

매사추세츠 액튼 (Acton, MA) 출신의 재미한인인 김동빈 감독은 자기 소개를 통해 2014년 당시 세월호 참사 소식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기로 결심한 김 감독은 그 해 7월 한국으로 건너가 시민들의 크라우드펀딩을 받아 이 영화를 제작하게 되었다. 김 감독은 '업사이드 다운'이 인터뷰로 구성된 영화라는 것을 강조했고, 특히, 희생된 아이들의 아버지들과의 인터뷰에서 관객들이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느낌을 받았으면 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영화를 통해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냉철하게 한국 사회의 문제를 짚어 보고 싶었다고 전했다.

영화 상영후 김 감독은 관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왜 아버지들만의 이야기를 영화에 담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감독은 한 달 반 가량 서울에서 세월호 집회에 참여해 유족들과 함께 지내면서 희생자 아버지들의 목소리가 더욱 궁금해졌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업사이드 다운'을 제작하게 된 동기가 무엇이라는 질문에는 사건 초반 일관성이 없는 언론의 정보 전달과 부당함을 문제 삼아 참사를 제대로 알리려는



정적인 보도에 심각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에서의 영화 배급과 상영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독립영화 극장이나 작은 기관들과 학교들에서 '업사이드 다운'을 상영하고 있지만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대형 극장들에서는 상영이 어려운 상황이라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김동빈 감독은 같은 날 오후, '제 14회 보스턴국제영화제 (Boston International Film Festival)'에 초청받아 바쁜 하루를 보냈다. 보스턴국제영화제는 매년 전 세계 90여 편의 독립영화를 상영하는 국제영화제로, 올해에는 총 75편의 작품이 선정되었는데,

한국 영화로는 유일하게 '업사이드 다운'이 초청되었다.

영화 '업사이드 다운'은 2014년의 '다이빙벨' (The Truth Shall Not Sink with Sewol), 2015년의 '나쁜 나라' (Cruel State)에 이어 세월호 참사를 다룬 세번째 영화이다. 이 영화는 세월호 참사로 아이들을 잃은 네 명의 아버지들과 해양공학 교수, 변호사, 언론인, 잠수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6인의 인터뷰를 통해 세월호 침몰이 보여주는 한국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병폐를 조명한다.

esbaik@bostonkorea.com

한미 청소년 여름 캠프 다양한 프로그램 선보여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한미청소년프로그램 (Korean American Youth Program; 이하 KAYP)이 주관하는 청소년 여름 캠프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인 청소년들의 등록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7년간 청소년을 위한 여름 캠프를 운영해왔던 한미청소년프로그램은 올해부터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진행해오던 전통 여름캠프를 오는 7월 3일부터 9일까지 개최한다.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높은 이 프로그램은 5학년 이상 남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큰 배를 빌려 고등어 낚시, 하이킹, 그리고 강과 호수에서의 카약킹 등의 다양한 체험을 하게 된다.

또한 KAYP는 올해부터 여름야구캠프를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한다. 중고등학교 남녀학생들이 대상이며 야구에 관심

있는 청소년들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이 캠프에서는 야구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과 동시에 실전도 즐길 수 있게한다. 또한 카약, 양궁, 하이킹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짜여 있다.

오는 7월 19일부터 8월 11일까지 한국의 남녀 스카우트 대원 33명이 한미청소년여름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이 지역 보이 스카우트대원들과도 교류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외에도 구정회 태권도장에서 주말 태권도 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캠프에 대한 자세한 문의 또는 신청은 진태원 캠프장(603-205-6679, taewonjin@phoenix-bc.com)에게 하면된다. 캠프 인원은 선착순으로 23명만 등록이 가능하다.

bostonkorean@hotmail.com



여름캠프 참가자에게 국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진태원 씨

617-739-2888

- 한국, 아시아, 미국내, 유럽, 남미 등
- KE, UA, DL, AA 등 모든 항공사 취급
- 항공권 특별 할인 제공
- 통역, 번역 서비스

유니버스 여행사
대표 최한길

Universe travel services
Tel 617.739.2888 / www.utsboston.net

정진수
CPA / MBA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 IRS문제 상담 및 해결
-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 회계처리 및 감사
-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 용자 상담 및 재무재표 작성
- ▶ 급여(Payroll)서비스

TEL 781-849-0800, 508-580-3946 (한인전용)
FAX 781-849-0848
220 Forbes Rd., suite 206, Braintree, MA. 02184

- 개인 및 사업체 세무보고
- 사업체 법인 설립과 해체
- 경영진단 및 절세 상담
- 회계정리

미 연방정부로부터 공인된 세무전문가
Licensed to Practice Before the IRS

TEL: (781)935-4620 FAX: (781)935-4187
165-M New Boston St, Suite 278, Woburn, MA 01801

보스톤 마라톤 2016

한국 남자선수 중 53세 김환목 씨 가장 먼저 골인

▶▶1면에 이어서

인 웨슬리 코리어(케냐)와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초반 치고 나간 선수는 일본의 엘리트 선수인 신고 이가라시(30, 일본)였다. 2시간13분46초의 최고기록을 보유한 그는 자신의 기록을 초과하는 페이스로 4마일 지점까지 선두를 유지했지만 5마일 지점부터는 뒤쳐지며 선두그룹에서 멀어졌다. 그는 2시간26분24초(19위)로 경기를 마감했다.

헤이레는 “데시사만 두려웠고 오히려 그가 달리는 것만을 보았다. 오히려 이기는 것이 목표였고 기록은 중요치 않았다” 고 밝혔다.

중간지점까지 17명의 리더그룹은 계속 지남해 우승자 데시사의 페이스만을 지켜보며 견제했다. 데시사는 15마일이 넘는 지점부터 치고나가며

본격적인 레이스를 시작했다. 헤이레는 즉각 따라잡았다. 세계어도 바로 붙었다.

데시사는 보스톤마라톤의 4개의 언덕의 하나로 꼽히는 뉴튼소방서의 오르막길에서도 페이스를 늦추지 않고 계속 밀어부쳤다. 헤이레는 결국 데시사에게서 떨어지지 않고 그를 따라 붙었고 클리블랜드 서클까지 계속 경쟁했다. 이들은 한 때 서로간에 물을 건네는 등 친근함까지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23에서 24마일 중간인 40킬로미터 지점에서 데시사가 물을 잡기 위해 페이스를 약간 늦추는 순간 헤이레는 전력질주를 하며 거리를 벌였고 이는 약 20미터까지 벌어졌다. 25마일 지점에서는 8초 정도를 앞서며 완전히 승기를 잡았다.

그는 막판에 아주 여유있는 모습으로 결승타이프를 끊으며 2시간12분45초를 기록했다. 데시사는 2시간13분33초로 2위, 세계이는 2시간14분2초로 3위를 차지했다. 세계이는 2012년 우승자인 웨슬리 코리어와 보일스턴 스트리트 레이스에서 경합을 벌인 끝에 3위를 차지했다.

한국 남자 선수 중에서는 김환목 씨(53)가 2시간56분2초의 기록으로 전체 907 등을 차지하며 가장 먼저 들어왔다. 한국선수 중에 가장 기록이 좋았던 정석근(42) 씨는 2011년에 세웠던 자신의 최고기록 2시간29분42초에 훨씬 못 미치는 3시간54분44초에 결승점을 통과했다. 올해 마라톤에는 총 116명의 한국 국적의 선수들이 마라톤에 참여했다.

editor@bostonkorea.com



18일 열린 보스톤 마라톤 여자부 우승을 차지한 에트세데 베이사 역대 최대 역전극을 일궈내며 우승과 상금 15만불을 거머쥐었다

보스톤 마라톤 2016 여자 우승 에트세데 베이사

대역전극 펼쳐진 여자부 마라톤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2016년 보스톤 여자마라톤에서 에트세데 베이사(29, 에티오피아)는 보스톤 여자마라톤 사상 최대의 역전극을 펼치며 2시간29분19초로 우승했다.

에트세데 베이사는 35킬로 지점까지도 선두에게 무려 37초나 뒤져 있었다. 그녀는 39킬로 지점에서 그때까지 선두를 고수했던 같은 에티오피아 출신 터피 세계에를 제치는 기염을 토했다. 터피 세계에는 2시간30분03초로 바로 뒤를 이어 골인

했다. 베이사는 이번 우승으로 네번째 우승자가 되었으며 우승상금으로 남자 우승자와 같은 15만불을 수상했다. 한국인 여성으로서 가장 빨리 결승선을 통과한 선수는 일본 카나가와 현에 거주하는 이미영 씨로 3시간20분26초를 기록했다. 한국 거주자 중에는 이애경씨가 4시간6분14초만에 결승지점을 통과했다.

editor@bostonkorea.com



18일 열린 보스톤 마라톤 여자부 우승을 차지한 에트세데 베이사 역대 최대 역전극을 일궈내며 우승과 상금 15만불을 거머쥐었다

Kim Law Offices, L.L.C.

성심을 다해 변호하겠습니다

Yeon J. Kim, Esq.

주요 경력
 ■ 前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지사 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지부 연방 범죄 관련 직접 수사
 ■ 前 미국 육군 심문관

업무분야
 이민법 / 상법
 형사법 / 가정법

Tel:(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Attorney at Law

장우석 변호사

사건 상해
 파산 보호
 비즈니스/리스

IRS/DOR/UI
 신용카드 채무조정
 이민법

전화: (781)712-1700 CHANG & ASSOCIATES, P.C.
 67 South Bedford Street, Suite 400 West, Burlington, MA 01803

한미선 공인회계사
 Master of Science in Taxation

IRS, MA DOR 와의 세금 문제 해결
사업체 세무보고 및 회계/경영 자문

- 회사의 설립 및 해체/ 회계처리/회계 감시
- QuickBooks Set-up - 비즈니스의 성격 및 구조에 맞는 기본설치 및 운영상담
- Payroll 서비스 및 고용주의 세금납세 내빙

개인 세무 보고

- 해외 소득, 임대소득, 주식 등 투자, Self-employed 사업자, 자산 처분, Clergy, Military, FI, JI Visa holders - 한국과의 Tax Treaty 하에 있는 분 등

각종 세금 공제 및 절세를 위한 세무 상담

Tel: 617-792-2355 Fax: 617-849-5852
 E-mail: monelahan.cpa@gmail.com
 www.mhancpa.com
 Cambridge Office (Alewife Station)
 125 Cambridge Park Dr, Suite 301
 Cambridge MA 02140

보스톤 마라톤 2016

프로포즈의 장으로 변한 보스톤마라톤 결승지점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한인 3세이자 보스톤 시장 수석보좌관 다니엘 애릭 고 씨는 보스톤마라톤 결승선을 사랑의 장소로 바꾸어 놓았다. 보스톤글로벌의 보도에 따르면 18일 열렸던 제 120회 보스톤마라톤 대회 결승점에서 3명의 남성이 프로포즈를 시도해 성공했다. 보스톤마라톤 결승지점이 프로포즈를 실행하는 장소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18일 오후 6시 쯤 보스톤마라톤을 처음으로 완주한 데이비드 맥과이어(39)씨는 그를 결승점에서 맞이한 여자친구 오렌지오 씨에게 반지를 건네며 프로포즈했다. 오렌지오 씨는 갑작스런 그의 프로포즈에 놀랐지만 예라고 답해 주위의 관중들로부터 환호를 받았다.

해리 몰튼 씨도 같은 날 결승점에서 여자친구인 켈리 마샬 씨에게 결승점을 지나자마자 반지를 건넸다. 켈리 마샬 씨는 2013년 보스톤마라톤 폭파테러 당시 가벼운 상처를 입었던 경험이 있는데 추억의 장소에서 반지를 건네받게 된 것이다. 해리 몰튼 씨는 5시간이 넘는 첫 마라톤 완

주후 그녀에게 프로포즈하고 바로 쓰러져 누웠다. 비록 아픈 몸이었지만 그래도 훌륭한 프로포즈를 완수했다.

로드 아일랜드에 거주하는 브론슨 배너블 씨도 결승지점에서 자신의 여자친구가 있는 거리 쪽으로 다가가 반지를 건넨 후 주위의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다.

이처럼 보스톤 마라톤 결승지점이 최고의 프로포즈 장소로 변한 것은 지난해 한인 3세 다니엘 고 씨가 13년 동안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같이 끝난 후 반지를 건네며 프로포즈해 화제가 됐었기 때문이다.

다니엘 고 씨는 올해도 여자친구 에이미 세넷 씨와 함께 달린 3시간35분27초에 결승선을 통과했다. 다니엘 고 씨는 이날 결승선을 통과할 때 제대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했으나 여자친구와 함께 무난히 완주했다.

hsb@bostonkorea.com



다니엘 고는 올해도 여자친구 에이미 세넷과 함께 완주했다



(좌)한국선수 중 두 번째 순위의 기록을 보유했으나 이번 보스톤마라톤에서는 한국선수 중 첫번째로 들어온 김환목 씨 (우)한국국적 선수중 두 번째로 들어온 유정우 씨, 뉴저지에 거주하며 남자 전체 1238위를 기록했다

한국선수들 경기는 어땠나?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장명술 기자 = 재미 산악인 김명준(73, LA거주) 씨는 자신의 예상 기록보다 좋은 4시간4분36초에 완주했다. 지난해 보스톤코리아에 최고령 에베레스트 등반으로 기네스북에 올랐던 사실이 소개됐던 김명준 씨는 지금껏 한번도 중간에서 포기한 적이 없었다. 그 비결로 항상 "자신의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하며 달린다" 고 말했다.

김명준 씨는 남북극 마라톤을 비롯해 세계 7대륙 마라톤을 모두 완주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1년에 평균 5회 정도 마라톤에 참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LA 마라톤 동호회 7명과 함께 보스톤을 방문했다. 2004년을 마지막으로 한동안 보스톤을 찾지 못했던 김명준 씨는 내년에도 보스톤마라톤을 달릴 것이라고 밝혔다.

신혼여행 대신 보스톤을 택했던 게임회

사 넥센의 김나현 차장은 자신의 기록보다 약간 늦은 4시간21분20초에 완주했다. 그래도 처음 출전인 보스톤마라톤에서 차분하게 페이스를 지켜가며 완주했다. 한국 여자 마라톤 출전선수 중에서 3위를 기록했다.

한국 마라톤선수 중에서 가장 어린 이화영(28)씨는 한달전 서울 국제마라톤에서 3시간27분20초를 기록했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이보다 조금 늦은 4시간11분43초의 기록으로 한국여자선수 중에 2위를 차지했다. 1위는 이애경(56)씨로 4시간6분14초를 기록했다.

최고령 장세민씨(77)는 완주에 실패했다. 같은 최고령 출전자였던 김무조씨(77)는 5시간35분58초를 기록하며 완주에 성공했다. 한국 국적 선수 총 105명이 이번 보스톤마라톤을 완주했다.

editor@bostonkorea.com

**오빠스시
광어회
우럭회
TO GO
617 202
3808**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Newton, Brookline, Boston, Cambridge, Belmont, Lexington, Waltham, Yonkers

보스톤에 처음 오시거나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보스톤 일대의 아파트/콘도/주택 매매 렌트를 성심 성의껏 세심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상담을 통해 고객님의 희망사항에 맞춰 찾아드립니다.

김성애(Seong Ae Kim) Realtor
COLDWELL BANKER Coldwell Banker Residential Brokerage

1261 Centre St. Newton, MA 02459
Office: 617.969.2447 Cell: 857.919.3055
Email: SeongAe.Kim@NEMoves.com

惠民 Park Acupuncture and herbal medicine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최상의 선택
혜민한의원

617-787-0789 www.acupark.com
60 Leo M. Birmingham Parkway, Suite 101, Brighton, MA 02135

보스톤 마라톤 2016

사진으로 보는 보스톤 마라톤 2016



올해 보스톤 마라톤에서는 쓰러진 선수를 일으켜서 함께 결승점을 향하는 선수가 눈에 띄었다



동료의 부축을 받아 결승점을 향해 달리는 캐나다 출신의 덕비 안드레아 씨



일본 전체 1위로 들어온 노리오 가미조 선수, 자신의 최고기록 2시간17분47초에는 뒤졌으나 2시간25분31초의 기록으로 일본선수중 1위를 차지했다



특이한 복장에 관중들이 보면서 폭소를 터트렸다



테러 후 3년 만에 의족에 의지해 보스톤 마라톤에 출전한 테러 생존자 애드리언 헤이스렛(가운데)

Grace Acupuncture and Oriental Medicine
은혜한의원에서
회복을 도와드립니다.

- 요통, 어깨, 목, 허리 통증
- 두통, 편두통, 어지럼증, 메스꺼움, 집중력 장애
- 비염, 알레르기, 천식, 아토피, 습진
- 만성 관절염, 류마티스 관절염
- 소화장애, 변비, 과민성 대장증후군
-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 임신, 출산 전후의 건강관리
- 노인 질환, 노인성 질환
- 기타 재활치료, 치료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방법

781.862.1842
www.graceom.com
442 Marett Rd, Suite 6
Lexington, MA 02401

"당신의 환한 미소가
마음입니다."

거의 모든 보험 받습니다
매스헬스도 받습니다

978.689.9363
(한국어문의)

김동원치과
465 South Broadway Lawrence MA 01849

가족 물리치료 병원
GB Family Physical Therapy

비시츄세츠 최초
REDCORD식 치료법 도입

진료분야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어깨, 팔, 무릎, 다리 및 각종 운동 후 통증
척추 측만증 및 자세교정

고통사고/직장상해 보험, 유학생/여행자 보험,
메디케어 외 정부보험 및 미국보험

대표: 781-365-1876 한국어 781-365-1867
83 Cambridge St, Suite 2B Burlington, MA 01803
www.gbfamilypt.com



조기유학 및 학업지도 대표 기관

BOSEC 보스톤 유학원

www.bosec.com

보스톤유학원은 가장 오래 전통을 가진 유학원으로 많은 학생들을 명문 중/고등 사립 학교와 명문 대학에 입학 시켜온 교육 컨설팅 대표기관입니다. 보스톤 유학원은 학생들이 미국에서의 학업에서 성공하도록 최상의 컨설팅과 수준높은 학업지도를 제공합니다

중 고 대학 입학 컨설팅 (강남 사무소 운영)

1. 조기유학, 초/중/고 /대학 입학, 전학, 인터뷰 가이드 전문
2. 한국에서 갓 전학 온 학생 교육컨설팅
3. 대학 입학 상담, 지원서 작성 (College Consulting) : 하버드 입학담당관 출신이 전문위원으로 활약
4. 가디언, 홈 스테이, 여름/겨울 캠프
5. 주말 봉사활동, 특활 지원
6.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www.bosec.com

■ 컨설팅 서비스의 특징: 다년 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을 철저하게 분석하여 성공적 상급 학교 진학을 보장하는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 사무소: 부모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도곡동 타워팰리스 단지 내에 서울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주소 참조)

■ 합격한 중, 고등 학교: Fay, Choate Rosemary, St. Paul, Milton, Groton, Kent, NMH, Loomis Chaffee, Hotchkiss, Lawrenceville, St. George, Middlesex, Concord, Governor Dummer, Eaglebrook, Cardigan Mountain, Fessenden, Cushing, Brooks, Westover, Dana Hall, Holderness, Kent, Worcester Academy, Eaglebrook, Philips Academy, Pomfret 등. 상세 사항 웹사이트 참조.

■ 합격한 대학: Harvard, Yale, Stanford, Cornell, Columbia, NYU, Bowdoin, Dartmouth, Trinity, Emory, U. Mich., U. Penn. Brandeis, Boston College, Bowdoin 등 다수

튜터의 자질과 경력을 보고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학업 지도 튜터링

ACT SAT SSAT TOEFL AP 전문

강사진: 전원 Harvard, MIT 등 명문 대 교수진, 박사과정,

대학원생 및 미국인 현직 교사.

튜터링 경험이 풍부한 보스톤 지역 최고의 강사진.

- 대상 학생: Native Speaker, 유학생, 보딩스쿨/데이스쿨 학생
- 한국식 엄격한 지도, 숙제 관리.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게 지도 함.
- 시험 요령 습득이 아닌 실력 향상 위주.
- SAT, TOEFL, SSAT수강생 전원에게 정선된 필수 단어 목록 제공

Private Tutoring

English, Essay Writing
 Math, History, Science
 Latin, French, Spanish, Chinese
 SAT II, AP, 수학 / 과학 경시

여름 방학 특강 (보스톤)

SAT ACT SSAR ISEE TOEFL 집중반 6월 - 8월
 개인 지도 전 과목 집중지도

추수감사절, 겨울방학, 봄방학 (보딩스쿨)

2001년부터 제공되어온 전통있는 프로그램

2015년 추수감사절 프로그램: 11/21-11/30

ACT, SAT, SAT II, AP, 학교 수업 과목 개인지도

프로그램 특징:

- 학생별 필요에 따른 개인지도 및 그룹지도
- 최고의 강사진 (하버드 대학 캠퍼스 옆 위치)
- 원하는 경우 호텔에서 재우지 않습니다

보스톤 유학원

미국: 545 Concord Avenue, Suite 214,
Cambridge, MA 02138

한국: 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 아크로텔 2914호
(삼성 타워팰리스 단지 내 02-579-9731)

대표: 원장 공학박사 송영두

Tel 617-491-0041
617-491-0043

* 교사 수시 모집: info@bosec.com 으로 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 홈스테이 가정 수시 모집: 뉴잉글랜드 전역. info@bosec.com 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사절.

* 사무 직원 모집: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분. humanresource@bosec.com 로resume를 보내 주십시오.

"주차는 보스톤유학원 옆의 Fresh Pond Mall 의 Whole Foods Market에 하시면됩니다."

129년된 교회, 카지노 때문에 이전

사적지 보호의 일환으로 교회 건물 통째 이전
\$950M 규모 MGM 카지노는 2018 오픈 예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매사추세츠 주의 유서 깊은 교회가 카지노에 자리를 양보하게 되었다. 지난 19일, 129년된 퍼스트 스피리트추얼리스트 처치 (Spiritualist Church)가 원래 있던 자리를 떠나 천천히 길을 따라 이동하기 시작했다.

풋볼 운동장 2개를 합친 길이의 퍼스트 스피리트추얼리스트 처치는 이동을 위해 몇 주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했다. 이 교회 건물은 바퀴가 달린 커다란 철판 위에 단단히 고정되어 새 장소로 이전되었다.

총 무게 475톤, 가로 68피트, 세로 43피트 크기의 교회 건물을 통째로 이동 시키는 건 MGM이 카지노 건설을 위해서 사전에 약속한 일이었다. MGM은 역사 보존의 일환으로 카지노 부지에 있는 건물 중 보존 가치가 있는 건물을 이전 시키고 있다. 한때 교회가 있던 자리에는 카지노 건물이 들어서고 도박 게임이 열리게 된다.

9억 5천만 달러 규모의 MGM 카지노 리조트는 2018년 가을 오픈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브라이언 패커 MGM 스프링필드 공사 부소장은

“오늘 교회를 이전하는 것은 이 (카지노 리조트) 공사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빅토리아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퍼스트 스피리트추얼리스트 처치의 원래 이름은 프렌치 콩그리게이션얼 처치 (French Congregational Church)였다. 1887년에 프랑스와 캐나다 출신의 칼뱅파 교인들을 위해 지어졌다.

한때 부흥했던 교회는 교인들의 숫

자가 줄어들면서 1919년 매각되었다. 이후에는 퍼스트 스피리트추얼리스트 처치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 이어졌지만 교회 건물로서의 역할을 한 건 2013년까지다. 퍼스트 스피리트추얼리스트 처치 교인들은 2013년에 치코피에 위치한 다른 교회 건물로 이사를 했다.

퍼스트 스피리트추얼리스트 처치 건물은 1983년부터 국립 사적지로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다. 장소 이전 뒤에 교회 건물이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jsi@bostonkorea.com



카지노 건설을 위해 오래된 교회 건물이 통째로 이전된다



MA주 미국서 3번째로 친환경적인 주로 선정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자연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일은 쉽지 않지만 매사추세츠 주는 비교적 이런 일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의하면 매사추세츠 주는 미국에서 3번째로 친환경적인 주로 선정되었다.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월렛허브(WalletHub.com)에서는 납세자들이 납부한 세금이 자연 보호를 위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했다. 19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주는 버

몬트와 워싱턴에 이어 미국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주로 선정되었다. 랭킹에서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한 주는 와이오밍 주다.

월렛허브에서는 현재의 자연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17개 주요 항목을 주별로 조사하여 순위를 매겼다. 토양과 수자원의 오염 수준, 단위 인구당 쓰레기 배출량, 에너지 효율성 점수, 단위 인구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등이 월렛 허브에서 조사한 항목들이다.

jsi@bostonkorea.com

JEI 재능교육

SUMMER 2016

PREP COURSE

이전 여름, 다음 학년을 미리 준비하세요

JEI **Math**

JEI **English**

2달간의 긴 여름방학, 재능교육에서 다음 학년을 미리 준비하세요. 다음 학년과 관련된 내용을 다룹니다

Java의 신!

Sang Shin 강사와 함께하는 여름 Java 강좌 일정

weekdays, 9am-noon "코딩의 신" 김성민

weekends, 10am-12pm "코딩의 신" 김성민

월요일 10am-12pm "코딩의 신" 김성민

등록 마감일: 5월 27일(금)

JEI

Learning Centers

jellearning.com

JEI of Burlington

11 Adams St. Burlington, MA 01808

TEL: 781.348.0878

EMAIL: burlington@jellearning.com

“고객의 이익을 늘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스티븐 손

SINCE 2001

수석부사장, 브로커

부동산전문, 리얼터

NEWSTAR BOSTON

주택.펀도.사업체.건물.투자

617.290.0623

Stevenson@newstarrealty.com

Son2223@gmail.com

Bostonnewstarrealty.com

커트 실링, 페이스북 글로 한방에 흑났다

성소수자 조롱하는 글 올려 논란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레드삭스 우승의 주역이었으며 현재는 ESPN의 해설자로 활동하고 있는 커트 실링이 소셜 미디어에 논란을 일으키는 글을 올려 해고됐다.

커트 실링은 지난 2010년부터 ESPN의 해설자로 일해왔으며 가장 최근에는 <먼데이 나잇 베이스볼>에서 해설을 했었다. 그는 이번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트랜스젠더들이 자신의 타고난 성과 다른 화장실 또는 락커룸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과 관련된 내용의 글을 공유하면서 회사로부터 해고됐다.

커트 실링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다체중의 남성이 가발을 쓰고 여성의 옷을 입고 자신의 셔츠 일부분을 찢어 가슴을 노출시키는 그림과 "그를 당신의 딸과 함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당신은 속이 좁거나, 죽어야 하는 외고집 인종차별 주의자가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공유했다.

이와 함께 실링은 "남자는 어떻게 자신을 부르든지 남자다.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 누구랑 잠을 자던 상관 없다. 남자 화장실은 남성을 위한 것이다. 여자 화장실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다르게 말하는 법이 필요하단 말인가? 정말 불쌍하다"라고 적었다.

"ESPN은 다양한 면을 수용하는 회사다. 커트 실링은 자신의 (보수적) 행동이 결코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수차례 경고받았으며 결국 그의 고용 계약은 종료됐다"고 ESPN은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커트 실링은 그동안 철저한 강경 보수적 입장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

켜 왔다. 그는 지난 8월 무슬림과 나찌를 비교하는 트윗을 자신의 트윗에 실어 정직을 당했다.

20일 아침 실링은 WEEI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의 발언이 인종주의적이고 비관용적이라 비난에 대해 변호했다. "내가 인종주의자며 성전환혐오자라고 믿는 사람들은 심각하게 고통 받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라고 소셜미디어의 성난 반응에 놀라며 밝혔다. "그 내용에 답변을 한 것이지 내가 그 내용을 올린 것은 아니다"라고 그는 변명했다. 그러나 아웃스포츠닷컴(Outsports.com)에 올라온 스크린캡 처에 따르면 실링은 이를 공유하고 자신의 의견까지 보탠 것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는 19일 자신의 블로그에 비록 트랜스젠더 옹호주의자들이 자신의 해고를 요구했음에도 결코 자신의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리 내입장을 분명히 하겠다. 이 페이스북 내용이 당신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오로지 당신의 문제이다"라고 적었다.

지난 시즌 실링이 직무정지를 받았을 때 제시카 멘도자가 그를 대신해 해설을 맡았으며 이어서 <먼데이 나잇 베이스볼> 중계에 배정받았다.

지난 달 실링은 캔자스시티 라디오 방송국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만약 이메일에 있는 비밀정보를 주었다면 페트루우스 장군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언젠가는 감옥에 수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지난해 CIA 국장이자 이라크 전 최고 수장이었던 데이비드 패트루우스는 자신의 내연관계에 있는 여인에게 비밀 정보를 제공해 연방 법원으로부터 2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실링의 거들된 행보에 ESPN은 어쩔 수 없이 해고 결정을 내렸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hsb@bostonkorea.com



레드삭스 우승의 주역이었으며 ESPN 해설자로 활동했던 커트 실링

교통위반 티켓 실제적으로 보험료 얼마나 인상시킬까?

(보스턴 = 보스턴코리아) 한새벽 기자 = 운전중 교통위반으로 받은 티켓은 보험료를 최대 두배 이상 폭증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슈어런스퀴츠닷컴(InsuranceQuotes.com)의 보고에 따르면 음주운전, 과속 등의 중한 교통위반은 평균 보험료를 94%나 폭증시킨다는 것이다.

워드런트 인포메이션 서비스가 주관한 이번 연구는 음주운전, 과속, 양보 위반 등의 운전자 교통위반 한 건이 평균보험료인상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인슈어런스퀴츠닷컴의 수석 보험분석가인 로라 아담스는 보험사들이 교통위반을 위험한 행위의 지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에 걸린 운전자는 가까운 미래에 사고날 가능성 높다는 신호"라고 본다는 것이다. "교통위반은 미래 사고 또는 위험의 강력한 지표이며, 이에 따라 이 같은 위반은 많은 보험료 인상을 유발한다"는게 아담스의 말이다. 더구나 이 운전위반으로 받은 벌점은 수년간 운전기록에 남아 있어 보험료 인상은 다년간 지속된다.

가장 비싼 보험료인상을 유발하는 위반은 음주 또는 약물중독 운전, 난폭한 운전, 규정속도 31마일 초과 과속, 16-30마일 초과 과속 등의 순이었다. 매사추세츠의 경우 특정 운전위반은 미국 전국 평균보다 높은 보험료 인상을 유발했다. 난폭운전으로 걸린 경우 매사추세츠 운전자들은 미국내에

서 5번째로 높은 보험료 인상을 기록했고 음주운전의 경우 8번째 높은 보험료 인상을 기록했다.

그러나 과속 및 부주의한 운전은 다른 미국 주 평균에 비해 매사추세츠의 보험료 인상이 비교적 낮았다.

음주운전: 전국평균 94% 보험료 인상, 매사추세츠 103.49% 보험료 인상

난폭운전: 전국평균 85% 보험료 인상, 매사추세츠 101.88% 보험료 인상

31마일 초과 과속: 전국 평균 29% 보험료 인상, 매사추세츠 23.32% 인상

16-30마일 초과 과속: 미 평균 28% 보험료 인상, 매사추세츠 23.32% 인상

운전 부주의: 전국평균 27% 인상, 매사추세츠 24.3% 인상

무면허 운전의 경우 매사추세츠는 훨씬 엄격한 보험료 인상을 초래했다. 전국평균은 17% 인상에 머문 반면 매사추세츠는 95% 보험료 인상을 초래했다. 안전벨트 착용의 경우 전국평균 5.76% 보험료 인상을 초래했지만 매사추세츠 주는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특히 매사추세츠 보험회사들은 보험료 결정에 크레딧 점수를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벌점의 경우 훨씬 더 가혹하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가 밝혔다.

hsb@bostonkorea.com



NEWSTAR Realty of Boston **NEWSTAR BOSTON** **글로벌주거**

Gina Choi
Realtor, MBA
978-866-3248
ginachoi@newstarrealty.com
http://blog.naver.com/newstargina

미네아폴리스 New Star Realty의 캐나다 대표 가.
10년간 보스턴 지역 최고의 실적을 올린 부동산 전문가(MBA)
를 대표로 이끌던 BOSTON-CAMBRIDGE 지역 1위 이상
실업률 3% 이하로 유지. 10년 이상의 고급 서비스로 인정받
고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가격에 집과 사업에 대해 도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exington Office
43 Walther St., Lexington, MA 02420
Tel: (731) 259-4996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59
Tel: (617) 550-4996

가혹의 정책, 내집 마련, 투자 이민 및 사업 매매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978.866.3248
카카오톡 ID: jusearengon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2014년 뉴스타 부동산 대우 권제 3등
2016년 뉴스타 부동산 대우 권제 2등

집을 사고 팔면 언제든지 승진(GINA)과 승원(PETER)을 찾아 주세요.

TEL) 978.866.3248(최승진), 617.780.7839(주승원)
ginachoi@newstarrealty.com, peterju@newstarrealty.com

'뉴욕 압승' 트럼프 이대로 가면... 시름 깊어진 공화당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내가 클리블랜드로 간다"

19일 뉴욕 프라이머리에서 압승을 거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경선 후보는 승리를 확인한 후 자신이 최종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뉴욕 프라이머리 전까지 847명의 대의원을 확보한 트럼프는 이번 경선에서 최소 89명을 추가로 얻으며 대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매직넘버 1237명 대의원 수에 성큼 다가섰다.

트럼프 캠프는 승리를 확인한 뒤 현재 2위 주자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은 이날부로 대선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캠프 관계자는 뉴욕 프라이머리에서 득표율 14%에 그친 크루즈가 트럼프보다 먼저 매직넘버 1237명을 확보하려면 앞으로 남은 경선에서 대의원 90% 이상을 모두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는 최소한 얼마동안은 1237명의 과반 대의원을 못 채울 것이란 의심에서 자유롭게 됐다"고 이번 결과를 평했다.

심지어 남은 경선이 치러지는 북동부 5개주에서도 트럼프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 워싱턴타임스에 따르면 몬머스대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메릴랜드, 펜실베이니아주 프라이머리에서 트럼프는 득표율 1위로 두개 주 대의원 55명을 추가로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트럼프의 확보 대의원수가 급증하고 그에 대한 전국적 열기가 뜨거워질수록 공화당 주류의 시름은 깊어진다.

앞서 라인스 프리버스 공화당 전국 위원회(RNC) 회장은 콜로라도와 와이오밍주의 경선 시스템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동한다고 비판하는 트럼프 후보에게 '물을 따르라'고 반박했다. 설령 과반을 확보 못하더라도 가장 많은 수의 대의원을 차지한 후보가 대선 후보가 돼야 한다는 트럼프의 주장에 "과반 확보는 후보의 필수"라고 못 박은 것이다.

물론 이번 뉴욕의 승리로 트럼프가 과반 대의원 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단언하기 힘들다. 하지만 트럼프가 최종적으로 확보한 대의원이 매직넘버에 조금 못미치더라도 공화당이 독자적으로 중재 전당대회를 강행하기는 난해한 상황이 됐다.

트럼프에 대한 전국적 지지가 뉴욕주를 포함해 계속 확인되고 있는데다 과반 달성에 못미쳐도 대의원을 많이 확보한 후보가 대선 후보로 지명돼야 한다는 트럼프 의견에 동의하는 공화당 유권자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

턴과의 가상 대결에서 시종 일관 질 것으로 예측되는데다 당의 정체성에도 반하는 '아웃사이드' 대선 후보를 내야할 공화당으로서도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워싱턴포스트는 향후 트럼프가 과반 대의원을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공화당이 트럼프를 밀어내는 중대를 추진시킬 동력을 모으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면서 현 공화당의 상황을 가리켜 "그들(공화당 주류)의 당은 없어지고 트럼프의 당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이날 치러진 공화당 뉴욕 프라이머리에서 트럼프는 60.5% 득표율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과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의 도전을 압도적인 격차로 누르며 승리를 거뒀다. 케이식은 25.1%, 크루즈는 14.5% 득표율을 얻는데 그쳤다. 특히 트럼프는 과반 득표율을 얻으면서 뉴욕에서 89명의 대의원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yjw@news1.kr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경선 주자



테드 크루즈 미국 상원의원(텍사스)

크루즈, 뉴욕 패배에도 "아직 불 지피지도 않았다" 결의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다'(Yes we can)가 아닌 '우리는 그럴 것이다'(Yes we will)를 내걸고 행동에 나설 때"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미국 공화당 경선주자인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은 19일 치러진 뉴욕 프라이머리 패배에도 불구하고 "우린 아직 불을 지피지도 않았다"며 결의를 다졌다.

CNN에 따르면 크루즈는 이날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 연설에서 "지난 몇개월 간 미국이 배운 바에 대해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이는 자신의 고향에서 승리를 거둔 정치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뉴욕 경선에서 압승을 거둔 것으로 전망되는 경쟁자 도널드 트럼프를 겨냥한 말이다.

크루즈는 자신과 버니 샌더스가 모두 경선레이스의 아웃사이드였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올해

는 아웃사이드의 해다. 로널드 레이건도 존 케네디도 모두 새로운 비전과 반항, 새로운 세대의 아이디어를 대변한 아웃사이드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존 F 케네디가 60년대에 그랬던 것처럼, 레이건이 80년대에 했던 것처럼, 미국이 새로운 여행에 나설 수 있도록 하자"고 포부를 밝혔다.

크루즈는 "우리는 아직 불을 지피지 않았다. 이제 우리 차례다. 우리는 공화당을 통합함으로써 모든 미국을 통합해야 한다"면서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다'(Yes we can)가 아닌 '우리는 그럴 것이다'(Yes we will)를 내걸고 행동에 나설 때"라고 소리 높였다.

yeoulim@news1.kr

태양자동차
Body & Repair / States Inspection

모든 차량 정비 서비스
유럽, 미국
일본, 한국

STATES INSPECTION

사고가 났습니까?
사고가 난 차를 원상 복구해 드립니다.
인슈어런스 바디워크 합니다.

617.868.2500
617.868.2600

48 NEW ST. CAMBRIDGE, MA 02138
Harvard St. 5 min / Lexington 10 min / Newton 20 min
E-mail: sunautobody@yaohoo.com

RE/MAX

Eileen Park (마일린 박)
REALTOR®
RE/MAX Unlimited

주택 | 콘도 | 커머셜
점심점 도와드리겠습니다

Tel: 617.935.3241 | 카카오톡: Eileen0311
Email: EileenBostonRE@gmail.com
420 Harvard Street, Brookline MA

YOUNG DENTISTRY 손영권 치과

In Lowell

**좋은 치과
좋은 치아**

WE MAKE SMILE

youngdentistrypc.com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트럼프 · 클린턴, 뉴욕 압승... "우리가 대세 입증"

(서울=뉴스1) 손미혜 기자 = 미국 민주당 · 공화 유력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도널드 트럼프가 '2인자들의 반란'을 잠재우고 흡그라운드에서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 19일 뉴욕 프라이머리 승리를 통해 경선 레이스의 주도권을 되찾은 것이다.

이날 공화 뉴욕 프라이머리에서 트럼프는 60.5% 득표율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텍사스)과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의 도전을 압도적인 격차로 누르며 승리를 거뒀다. 케이식은 25.1%, 크루즈는 14.5% 득표율을 얻는데 그쳤다. 특히 트럼프는 과반 득표율을 얻으면서 뉴욕에서 89명의 대의원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케이식에게 돌아가는 대의원은 3명에 불과할 전망이다.

민주당에서는 클린턴이 57.9% 득표율로 42.1%를 확보한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를 두자릿수 차이로 낙퇴하게 제쳤다. 당초 CNN 출구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내 접전이 예상됐지만 각 방송사들은 이내 클린턴의 승리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뉴욕에 배정된 대의원 247명(슈퍼대의원 포함)은 클린턴이 최소 135명, 샌더스가 104명 가져가게 됐다.

◇트럼프 "크루즈 완전히 탈락"... 반격 가능할까

트럼프가 자신의 고향 뉴욕에서 승리를 거두리란 전망은 거의 투표소가 닫힌 직후 바로 발표됐다. 유타, 위스콘신, 콜로라도 승리를 바탕으로 7월 전당대회까지 트럼프의 질주를 막고자 했던 경쟁자들의 절박한 희망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었다.

부동산 재벌 트럼프는 맨해튼 트럼프타워에서 가족과 지지자들에 둘러싸인 채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에게, 뉴욕 시민들에게서 이같은 승리

를 부여받게 되다니 믿을 수 없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러면서 "크루즈 의원은 수학적으로 완전히 탈락했다"고 선언했다.

트럼프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공화당 적자로 선선했던 크루즈는 뉴욕에서 반격의 모멘텀을 완전히 빼기게 됐다. 그의 '뉴욕의 비(非)보수적 가치' 발언을 둘러싼 발언으로 돌아선 뉴욕 유권자들의 마음을 되찾기엔 부족했다.

트럼프가 7월 전당대회 전까지 과반 대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남은 경선에 배정된 대의원 674명 중 58% 이상을 석권해야 한다. 크루즈로서는 모든 경선에서 100%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더라도 최종승리에 다다르기 힘들게 됐다. 현재 트럼프는 최소 845명, 크루즈는 559명, 케이식은 147명의 대의원을 확보했다. 반(反)트럼프 진영에는 트럼프의 과반 승리를 막음으로써 중재 전당대회로 이끌어가는 시나리오밖에 남지 않은 실정이다.

◇클린턴, 샌더스 모멘텀 탈환... "고지가 눈앞"

민주당 유권자들은 뉴욕에서 8년간 상원의원 생활을 보낸 클린턴의 손을 들어줬다. 아이다호, 유타에서 와이오밍에 이르기까지 최근 경선에서 7연패를 맞본 클린턴에게는 귀중한 1승이 아닐 수 없었다. 이로써 클

린턴은 최종승리에 좀 더 확실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가까스로 클린턴과의 격차를 좁혔던 샌더스는 다시금 결승선에서 멀어졌다.

클린턴은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 레이스가 최종단계(home stretch)에 접어들었다. 승리가 눈앞에 보인다"고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이에는 분열보다 통합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믿는다"며 샌더스 지지자들에게도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클린턴과 샌더스의 대의원 격차는 1442명 대 1198명으로, 슈퍼대의원까지 포함할 경우 1911명 대 1229명이다. 클린턴은 '매직넘버' 2383명까지 불과 400명 남짓 남겨둔 상태. 반면 샌더스는 갈 길이 멀다. 샌더스가 역전을 거두기 위해서는 남은 경선에서 대의원 약 70%를 가져가야만 하는데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뉴욕에서의 패거리는 트럼프와 클린턴 모두에게 승리를 향한 도약대가 될 전망이다. 오는 26일 코네티컷, 메릴랜드,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델라웨어 등 북동부 5개 주 경선에서도 두 사람은 우세가 예상돼 7월 전당대회 전에 경선을 마무리지으려는 이들의 바람에 날개가 돋칠 것으로 보인다.

yeoulim@news1.kr



지난 19일 뉴욕결선을 승리로 장식한 민주당 후보 힐러리 클린턴(좌)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유가 '매직넘버'는 50달러... "증시와 악연 끊는 지점"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유가의 '매직넘버'가 배럴당 50달러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 규정했다. 브렌트유가 50달러선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주식을 비롯한 다른 자산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WSJ는 설명했다.

브렌트유는 지난 17일 산유국들의 생산동결 합의 실패 소식이 전해진 직후 6% 급락했다가 18일 정규장에서는 낙폭을 대거 줄여 1.7% 하락세로 마감했다. 19일에는 되레 2.6% 올라 배럴당 44.03달러를 기록해 50달러를 향해 다가섰다.

WSJ는 이를 놓고 "다른 자산에 대한 유가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했다. 그러면, 이제 경건은 유가가 계속 오르면 상승세가 얼마나 지속될지, 유가상승이 주가에 계속 호재로 작용할지 여부가.

이를 놓고 WSJ는 지난해 여름 브렌트유가 배럴당 50달러 밑돌면서 주가와 강력한 상관관계를 보였다는 점을 언급했다. 유가가 에너지업종의 주가 뿐 아니라 실물 경제 전반에까지 이른바 부정적인 '파급효과(spillover effect)'를 냈다는 것이다.

유가하락으로 에너지 기업이 자본지출을 급격하게 줄이면서 인력감축이 확산됐고 실물경제에도 연쇄반응을 일으켰다. 게다가 디플트(채무상환 불이행)율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셰일 생산업체들의 위기가 금융시장 전체에 전염될 것이라는 공포를 조장했다.

셰일 업체들은 정크본드의 유동성으로 파이낸싱을 하며 '좀비 기업화'했다. 또, 원자재 수출에 의존하는 신흥국의 기업들은 과도한 대출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으로 여겨졌다.

이제, 유가가 상승세를 타면서 이러한 공포는 물러갔다고 WSJ는 판단했다. 보험업체 스탠다드라이프의 앤드류 밀리건 글로벌 전략대표는 "유가가 40달러에서 머문다면 다른 자산들과 상관관계가 계속 깨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번달 초 열흘 동안 브렌트유와 스탠다드앤푸어스(S&P)500 지수 사이 상관관계는 브렌트유가 56달러였던 지난해 7월 이후 최저로 떨어졌다.

물론, 최근 유가의 상승세는 공급감소 혹은 수요증가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기는 힘들다. 경제에 대한 극단적 공포가 줄어든 영향이라는 측면이 크다고 WSJ는 지적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와 미국의 리세션(경기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하면서 금융 스트레스가 완화됐고 저유가가 수요를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

하지만, 브렌트유가 50달러에 근접하면서 전통적인 해석이 가능해졌다고 WSJ는 설명했다. 산유국들이 생산을 동결하는 등의 대응 없이도 오로지 수요 증가에 따른 유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

kirimi99@news1.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학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미 20불 지폐에 '흑인 여성' 인권운동가 해리엇 터브먼

"노예제 옹호" 잭슨 대통령 밀어내고 2020년부터

(서울=뉴스1) 온다에 기자 = 미국 20달러 지폐 모델로 앤드류 잭슨 전 대통령 대신 흑인 여성 인권운동가인 해리엇 터브먼을 선정했다고 미국 재무부가 20일 발표했다.

여성이 지폐 모델로 선정된 것이나 흑인이 지폐도 안 인물이 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터브먼(1820~1913)은 여성 참정권과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앞장섰던 인물이다.

일부 지폐 모델을 여성으로 교체해

야 한다는 논의는 미국에서 10개월전부터 계속됐다. 지폐에 그려진 초상화의 성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자는 것이었다.

당초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던 인물은 10달러짜리 지폐의 해밀턴 전 재무부 장관이었다. 그러나 해밀턴 장관의 이야기를 담은 브로드웨이 뮤지컬 '해밀턴'이 대중의 큰 인기를 끌면서 그의 초상화를 퇴출시킬 수 없다는 여론이 강해졌다.

벤 버냉키 전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 역시 "해밀턴은 미국 역사상 가장 통찰력있는 훌륭한 경제 정책가"라고 언급하며 해밀턴을 지지한 바 있다.

터브먼에 의해 밀려난 앤드류 잭슨 전 대통령은 노예제를 옹호하고 원주민인 인디언을 학살한 전력이 있다.

터브먼의 얼굴이 새겨진 새로운 지폐는 2020년에 공개될 예정이다. 여성 참정권을 담고 있는 헌법 수정 제19조의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hahaha8288@news1.kr



인권운동가 해리엇 터브먼을 합성한 20달러 지폐 이미지



구글, 뉴스 속도 높인 'AMP' 모바일 기기 전체로 확대

(서울=뉴스1) 김정환 기자 = 구글이 모바일 뉴스 콘텐츠 제공 서비스의 속도를 크게 높인 '가속된 모바일 페이지(AMP) 프로그램'의 제공 범위를 확대했다고 20일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구글은 올 초 처음 선보인 AMP를 구글의 모든 관련 플랫폼에 확대 적용했다고 밝혔다.

여기엔 애플과 안드로이드 기기용 구글 뉴스 앱 등이 포함된다.

구글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맞서 자사를 뉴스 제공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올해 초 AMP 프로그램 서비스를 시작했다.

구글 뉴스의 마리시아 스콧 기술 이사는 블로그에서 "AMP를

시작한지 수개월 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포맷을 도입했다"며 "이들은 정기적으로 AMP 버전을 적용한 콘텐츠를 올리고 있다"고 전했다.

구글의 AMP 프로그램은 페이스북의 '인스턴트 아티클스'에 해당한다.

웹사이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모바일 기기에 뉴스를 제공하는 게 그 목적이다.

스콧 이사는 "사전 시험 결과 AMP의 뉴스 업로드 속도는 AMP를 적용하지 않은 뉴스보다 약 4배 빠르다"며 "반면 데이터 용량은 10배 작다"고 설명했다.

acenes@news1.kr



지나 정(Gina Chung) 사원이 한인 및 유학생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료 체크계좌 < No minimum balance
No maintenance fee

무료 비즈니스 계좌

모바일 뱅킹

은퇴자금 관리 서비스, 모기지

상업용 부동산 대출, 사업 및 투자 대출

물스톤 지점을 방문하셔서
지나 정 사원을 찾아주세요



181 Brighton Ave. Allston, MA 02134
800.857.3272 | 857.524.1673
email: cchung@ebsb.com
Kekao talk: haimhaelle



총선 끝나자 선거무효 등 소송 줄줄이...검찰수사도 속도

문병호·이재만 등 낙선인 선거무효 소송...'옥새파동' 김무성 상대 손해소도
 검찰 '선거사범' 수사도 속도...'공천한금' 박준영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4·13 총선이 끝나자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선거무효 소송,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등 선거 관련 각종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선거무효 소송은 3건이다.

20대 총선 인천 부평갑에 출마했다 정유섭 새누리당 당선자에게 26표차로 밀려 낙선한 문병호 국민의당 의원은 20일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을 냈다.

문 의원은 "야권단일후보' 표현 관련 선거관리위원회의 혼선과 잘못된 대응이 선거결과를 결정적으로 뒤바꿨다"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입장을 바꾸기 전까지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공보물과 벽보 등에 야권단일후보 표현을 사용해 자신을 뽑으려던 야권 지지층이 후보에게 투표해 26표차로 정 당선자가 당선됐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애초 야권 단일후보 표현을 허용했지만 국민의당이 법원

에 가처분 신청을 내자 입장을 번복했다.

'옥새 파동'으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공천 의결이 무산되며 총선 출마가 좌절된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은 지난 18일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그는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을 침탈당한 지역 유권자들의 분노를 외면할 수 없다"며 "2500여명과 공동으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전 청장은 "당헌, 당규를 위배한 선거과정상의 위법행위를 선관위가 시정조치 없이 묵인·방치하면서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봉쇄당했다"며 "주민들의 선거권과 참정권도 침탈당했다"고 주장했다.

경남 밀양의 한 시민은 "전자개표기 사용은 불법"이라며 선거무효 소송을 내기도 했다.

이 전 청장과 같은 이유로 서울 은평구에 출마하지 못한 유재길 전 은평미래연대 대표는 20일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를 상대로 2억4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그는 "지난해 12월15일 예비후보 등록 이후 출마를 위해 들인 비용과 출마 좌절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의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선거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정당이나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판은 1·2심 없이 단심으로 진행된다.

검찰은 선거 관련 수사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검찰은 당선자 104명이 선거사범으로 입건돼 98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식)는 박준영 국민의당 당선인이 전신당당 사무총장 김모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공천 현금 수여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검찰은 총선 이틀 뒤인 지난 15일 전남 무안군의 박 당선인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7일 김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박 당선인이 "재정적으로도 와주면 공천에 힘써 보겠다"며 김씨에게 금품을 요구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울산의 당선인 전원은 모두 고소·고발돼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랐다.

무소속 윤종오 당선인(북구), 무소속 김중훈 당선인(동구), 이체의 새누리당 당선인(남구갑), 박맹우 새누리당 당선인(남구을), 정갑윤 새누리당 당선인(중구), 무소속 강길부 당선인(울주군) 등 6명이다.

박찬우 새누리당 당선인(충남 천안

갑)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당선인(경기 수원부), 무소속 이철규 당선인(강원 동해삼척)의 선거사무소도 선거 직후 압수수색을 당했다.

대검은 선거 다음날인 14일 "전국청 선거 담당 검사와 수사관은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오는 10월13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할 것"이라며 "향후 입건되는 선거사범도 엄정하게 수사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ukoo@news1.kr




4·13 총선에서 인천 부평갑에 도전했다가 새누리당 정유섭 당선인에 26표차로 석패한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민주 이성만 후보의 '야권단일후보' 명칭이 들어간 선거벽보와 공보물을 들여보이고 있다

Hammond Residential

Real Estate


40 Grove Street, Wellesley 781.235.5115 • 506 Boston Post Road, Weston 781.893.4466

Kalin Bae (배 칼린)




617-981-1542


Umi Cho (추 우미)



508-641-8924



LEXINGTON ... \$ 2,985,000



WAYLAND ... \$ 1,825,000

보스톤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H MART

CUSTOMER SERVICE

TOLL FRE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WEEKLY SALE APR. 22 - APR. 28, 2016

Cakes get reinvented 4ways. Pick a color, now make it a rice cake dish. White rice cake get colorful before your eyes.

H마트가 알리는 떡볶이의 새로운 변신! 평범한 고추장 떡볶이에 질리셨다면 H마트에서 소개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조리하시고 떡볶이의 신세계를 경험해보세요~

Share it [facebook.com/hmartofficial](https://www.facebook.com/hmartofficial) Learn to cook it [pinterest.com/hmartusa](https://www.pinterest.com/hmartusa)

“다양한 모종이 입하되었습니다. 나만의 텃밭을 가꾸어보세요.”



<p>FRI/SAT/SUN ONLY 22/23/24 ONLY</p> <p>Purple Yam 보라색 고구마</p> <p>\$1.99 lb.</p>	<p>Oriental Sweet Potato 고구마 Medium Size</p> <p>\$1.49 lb.</p>	<p>Ginger 생강</p> <p>\$1.29 lb.</p>	<p>Winter Melon 윈터 멜론</p> <p>\$0.99 lb.</p>	<p>Israeli Mandarin (Jaffa) 이스라엘 만다린 (자파)</p> <p>\$1.69 lb.</p>
<p>Kabocha 단호박</p> <p>\$0.99 lb.</p>	<p>Nagaimo 마</p> <p>\$3.99 lb.</p>	<p>Shanghai Bok Choy 청경채</p> <p>\$0.88 lb.</p>	<p>Lotus Root 연근</p> <p>\$1.99 lb.</p>	<p>JINGA Tofu 진가네 두부 All Varieties/16oz.</p> <p>\$0.99</p>

MEAT | at unbeatable low prices

<p>Bone-in Beef Hindshank Steak 뼈있는 아롱사태</p> <p>\$4.99 lb.</p>	<p>Sliced Pork CT Butt Steak for BBQ 소금구이용 돼지 생육살</p> <p>\$4.99 lb.</p>
<p>Sliced Pork Single Belly for BBQ 바베큐용 생삼겹살</p> <p>\$7.99 lb.</p>	<p>FRI/SAT/SUN ONLY 22/23/24 ONLY</p> <p>Beef Rib Eye Steak 꽃등심 스테이크</p> <p>\$15.99 lb.</p>
<p>Pork Baby Back Rib (Whole Piece) 돼지 등갈비</p> <p>\$4.99 lb.</p>	<p>Marinated Boneless Chicken Thigh 양념 뼈없는 닭사태</p> <p>\$2.99 lb.</p>

SEAFOOD | at shockingly low prices

<p>Norwegian Salmon Steak 노르웨이 연어 스테이크</p> <p>\$5.99 lb.</p>	<p>Headless White Shrimp 머리없는 흰새우</p> <p>\$6.99 lb.</p>
<p>FRI/SAT/SUN ONLY 22/23/24 ONLY</p> <p>TONGTONGBAY Half Cut Swimming Crab 통통배 절단꽃게</p> <p>\$5.99 pkg./for</p>	<p>TONGTONGBAY Dried Jiri Anchovy 통통배 지리멸지</p> <p>\$8.99 8oz./Small - pkg.</p>
<p>TONGTONGBAY Small Yellow Croaker 통통배 참조기</p> <p>\$4.99 80-100's/2 lbs. - pkg.</p>	<p>TONGTONGBAY Swai Fillet 통통배 스와이 필렛</p> <p>\$5.99 2 lbs./pkg.</p>

SMART CARD

Get smart and save more & big.

<p>NISHIMOTO Sekka Premium Medium Grain Rice 니시imoto 세가 쌀</p> <p>\$9.99 15 lbs.</p>	<p>CJ Cooked White Rice CJ 햇반 박스 7.4oz. x 12ea./box</p> <p>\$14.99</p>
<p>ORGANIC VALLEY Organic Milk 올가닉 밸리 유기농 우유</p> <p>\$3.99</p>	<p>HAIORUEM Premium Roasted Seaweed 해오름 밥도둑 전장김</p> <p>\$3.99</p>

I Heart Children Art Contest

어린이들의 눈을 통해 맑고 재미있는 상상력을 펼쳐보는 그림대회에 초대합니다!

★ Grand Prize ★ \$1,000 Scholarship & Trophy/Award Certificate (1 person)

Event Date Saturday, May 7, 2016 (11am-4pm)
(Further notice will be given if rainy day)

Theme Announced on the contest day

Where Amphitheater, Overpeck County Park
(40 Fort Lee Road, Leonia, NJ 07604)

Who Kindergarten, Elementary, and Middle Schoolers

How to apply Fill out an application at any NY, NJ, PA, BLT Hmart location. Must apply at Hmart before participating.

Application Period April 1, 2016 - April 30, 2016

Fee \$20 (exchanged to Hmart \$20 Gift Certificate at the store)

<p>Kyoung Gi Medium Grain Rice 경기미</p> <p>\$29.99 40 lbs.</p>	<p>농심 짜왕/맛짱볶 NONGSHIM Zha Wang Champong Noodle Soup</p> <p>\$6.99 4.7oz. x 4ea./pkg.</p>	<p>삼양 작은 사발면 박스 SAMYANG Cup Noodle Soup</p> <p>\$4.99 2.29oz. x 6ea./box</p>	<p>CJ Berkshire Pork Coarse Sausage 백설 흑돼지 통통 소시지</p> <p>\$3.99 8oz.</p>	<p>HAIORUEM Canned Boiled Mackerel Pike 해오름 꽂치 통조림</p> <p>2\$3 14.1oz. cans/for</p>
<p>HOUSE Vermont Curry 하우스 버몬트 카레</p> <p>2\$5 Hot/Mild/Medium Hot/3.8oz.</p>	<p>DONGWON Canned Light Standard Tuna 동원 라이트 스탠다드 참치 통조림</p> <p>\$7.99 5.25oz. x 4cans/pkg.</p>	<p>크라온 조리용 CROWN Jollypong</p> <p>\$2.99 5.85oz.</p>	<p>KTOWN Sesame&Coconut/Sweet Melon Cream Crocker 케이타운 메로니/고소애</p> <p>2\$3 5.64oz. ea./for</p>	<p>본 마만 잼 BONNE MAMAN Fruit Preserves</p> <p>\$2.99 All Varieties/13oz.</p>
<p>해오름 알로에 베라 드링크 HAIORUEM Aloe Vera Drink</p> <p>2\$1 All Flavors/500mL. btl/for</p>	<p>스캇 화장지 SCOTT Bathroom Tissue</p> <p>\$13.99 20rolls/pkg.</p>	<p>YOGO HOME 3 Tier Steamer 여보홈 3단 찜솥</p> <p>\$26.99 28cm/ea. \$36.99</p>	<p>HELLO HOME Electric Kettle 헬로홈 전기 무선 주전자</p> <p>\$16.99 Black/1.8L/ea. \$24.99</p>	<p>황토 누름독 Red Clay Press Container</p> <p>\$19.99 20L/ea. \$29.99</p>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HMAART BURLINGTON STORE: 43 Middlesex Turnpike, Burlington, MA 01803 / TEL: 781-221-4570 / STORE HOURS: Sun - Thu: 8am - 9pm / Fri - Sat: 8am - 10pm

김종인, 구조조정 카드로 중도공락...당내 기구설치 결정

당 중도화 전략으로 외연확대
당내 반대기류 및 전통적 지지층 이반 우려도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서미선 기자 =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경제 관련 이슈들을 내세우면서 중도층 공략에 시동을 거는 분위기다.

김 대표는 21일 기업구조조정 관련 당내 논의기구 설치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조정 논의를 당 차원으로 끌어올리며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 관련 이슈 선점으로 정국 주도권을 잡는데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4·13 총선에서 제1당 승리를 이뤄낸만큼 여세를 몰아 김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인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부각해 다가오는 대선에서 경제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계획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당대표 선출 등 당권을 둘러싼 계파 갈등 조짐에 정면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 대표는 취임 이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주도한 김현중 전 통상교섭본부장을 영입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표정책인 '햇볕정책'에 관해서도 보완·발전론을 언급하는 등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고 외연을 확장하는 중도화 전략을 구사해왔다.

총선이 끝나 당을 재정비해야 하는 시점엔 '기업구조조정' 카드를 들고 나와 경제 정책의 우클릭을 시사했다.

김 대표는 전날(20일) "근본적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전망이 밝지 않다"며 기업구조조정과 산업구조 개편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야당에서 '구조조정'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이례적이다. 통상 구조조정은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 근로자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는 만큼 '근로자들의 권리'를 중시하는 야당 입장에서 어려운 주제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기업구조조정 논의를 위한 당내 기구 설치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구는 오는 22일 비대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의결과

정을 밝을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는 22일 회의 안건으로 관련 기구 설치에 상정돼 의결절차를 밟으면 설치될 것"이라며 "기업 구조조정 논의를 넘어 대기업 재벌 위주 경제정책으로는 국민이 행복할 수 없으니 경제의 큰 틀을 바꾸는데 방향을 짚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구의 형태가 태스크포스(TF)가 될지 당내 위원회가 될지 여부와 구체적 명칭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당내에서도 김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윤의 출발 새아침'에서 "지금 김종인 대표가 우리 당으로서 하기 어려운 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화두를 꺼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경쟁력이 저는 만만치 않다고 본다"며 "새로운 언어와 새로운 이슈"라고 치켜세웠다.

김 대표가 영입해 함께 당 정책을 수립하는 최윤열 당선자(비례대표)의 전날 '친기업적' 발언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 고용불안, 사회안전

망 약화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 변화로 기존당의 기조가 바뀌는 것이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한수진의 라디오 전망대'에 출연해 "우리는 그때(구조조정) 일어난 수만명의 실업에 대한 사회적 전망을 약속받고, 또 노동조합이 걱정하는 것들을 풀어나갈 힘을 갖고 있다

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당 관계자도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김 대표의 말씀은 본인의 신념이며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의 방법"이라며 '근로자 보호'를 중시했던 당의 전통적 기조가 바뀌는 것이냐는 우려에 대해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smith@news1.kr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친박계, 2선 후퇴하나...나설 수도 없고 가만 있자니 앞날이 걱정

원내대표 ·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집중 견제받은 최경환 '자중 모드' 이정현 "나는 좀 달라" 당권도전 거듭 천명

(서울=뉴스1) 차운주 기자 = 4·13 총선 뒤 내용을 거둬들이는 새누리당에서 참패 책임론의 중심에 선 친박(親박근혜)계 핵심들이 이제 물러나야 한다는 2선 후퇴론이 힘을 얻고 있다.

새누리당 최대 주주들의 2선 후퇴는 다음달 초로 다가 온 원내대표 선거, 이르면 내달말 있을 전당대회에 물론 총선 후 재편될 당정관계, 내년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새누리 혁신 모임'(새혁신)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20일 CBS·PBC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정말 친박이니 비박(非박근혜)이니 하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원내대표 선출 과정이나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렇게 가지 않으면 더이상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못 받을 것이고 재집권은 물건너간다"고 경고했다.

황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공천, 경선이나 선거과정에서 이견 아니다 싶을 정도로 '진박'(眞朴진실한 친박)이니 친박 프레임, 진영 논리를 펼친 사람들이 있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이번 지도부 선거에 나오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다가오는 전당대회에서 자천타천 당대표를 노렸던 최경환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 '진박 감별사'로 활동했던 최

의원은 선거 뒤 새로 꾸려질 지도부에서 친박 친정체제를 만들어 박근혜 정부 후반기를 뒷받침하고 친박계 대선주자를 세우는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예상밖 참패로 입지가 궁색해졌다. 특히 최 의원이 권역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대구·경북에서 야당, 무소속 후보 4명에게 의석을 내줘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최 의원은 전날 지역에서 열린 대구·경북 국회의원 당선자 행사에도 나흘로 참석하지 않는 등 '자중 모드'를 이어가고 있다.

친박계 좌장격인 서청원 의원 역시 총선 전엔 당권경쟁에 나설 것이라 관측이 있었으나 자세를 낮추고 있다.

총선 직후 친박계에선 중진급들이 잇달아 원내대표, 전당대회 출마를 흘리면서 책임론에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정부와 호흡을 맞추는 원내대표는 물론, 차기 주자 선출과정을 관리할 당지도부 역시 내줄 수 없다는 인식이 많았다.

하지만 책임론이 가라앉지 않는데다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거스를 경우 당이 돌아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시 당권을 맡기로 했

던 '신박'(新박근혜) 원유철 원내대표도 당내 거센 반발에 못이겨 물러난 상황이다. 원 원내대표는 새혁신 등 소장파의 요구에 비대위원장 추인이 결국 무산됐다.

원내사령탑 도전을 기정사실화했던 친박 4선급 중진의원들도 한발 물러나 분위기를 살피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腹心) 이정현 의원은 당권 도전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저는 같은 새누리당에 있으면서도 좀 다르다"면서 "

당 지지율 2~3%에 불과한 호남에서 23년 동안 일관되게 새누리당으로 출마해왔고 계속 떨어지면서도 마침내 호남에서 2번 연달아 당선됐다"고 전례없는 '호남 친박'의 독특한 입지를 내세웠다.

그는 "새누리당 안에서 대통령을 배제하면서 대통령과 한 길을 가지 않으면 집권여당에 존재할 이유가 뭐냐. 우리가 만들어놓은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그 기조에 대해 당에서 협조하는 것은 당원의 도리"라며 친박 주자로 당권 도전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chacha@news1.kr



19일 이정현 의원이 전남 순천시 조례동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스톤코리아
+
facebook.

=

Like 

www.facebook.com/bostonkorea1
혹은 페이스북 검색창에서 bostonkorea를
검색하세요

매일 업데이트되는
보스톤 소식을
보스톤코리아
페이스북에서
만나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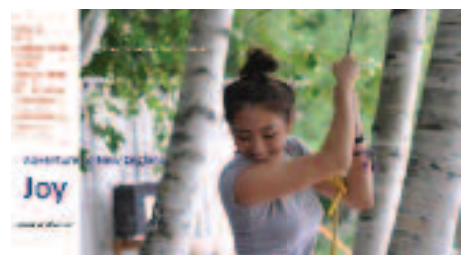
SUMMER CAMP

KAYP
여름캠프
선착순 24명

Korean American Youth Program(KAYP)

청소년들을 위한 여름 캠프를 안내 합니다.

Korean American Youth Program (KAYP)는 지난 7년 동안 해마다 청소년을 위한 여름 캠프를 개최해 왔으며, 올해는 좀더 다양한 주제로 여러 가지 캠프를 소개합니다.



1. 전통적인 썸머 캠프 : 일반에게 오픈 (7/3-7/9)

- a.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여름 캠프 입니다. 주제는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호수로 이며, 도시 생활에서 맛볼 수 없는 여러가지 야외활동을 경험하게 됩니다.
- b. 큰 배를 빌려 고등어 낚시도 하고, Mt. Major 로 하이킹도 가며, 강과 호수에서 카약킹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가 자격은 5학년을 끝마친 남녀 학생입니다.

2. 야구 썸머 캠프 : 일반에게 오픈 (7/10-7/16)

- a. 중, 고등학교 남녀 학생들 을 대상으로 하며, 야구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이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야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직접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야구 연습이외에는 카약, 하이킹, 양궁등을 즐기게 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되는 기회가 됩니다.
- b. 보스톤 지역의 야구 동호회 분들의 협조로 진행됩니다.

3. 웨일즈 국제 학교 여름 캠프 (6/16-6/25)

- a. 해마다 경기도 광주에 있는 웨일즈 국제 학교 학생들이 여름 캠프에 참여 하고 있으며, 올해로 3년 째가 됩니다.

4. 한국 스카우트 여름 캠프 (7/19 - 8/11)

- a. 고국의 스카우트 남녀 대원 33명이 3주간 "Adventure to New England" 라는 주제로, KAYP Summer Program 에 참여하며, 우리 지역의 미국 보이스카우트대원들과도 교류 할 것입니다.

5. 태권도 주말 캠프 (8/12-8/14)

- a. 구관장님이 이끄시는 태권도 도장에서 해마다 블랙 벨트 주말 훈련을 실시 합니다.

신청: 진태원, 603-205-6679, taewonjin@phoenixbc.com, www.kayp.org
KAYP Main Office: 10 Brace Ave, Hooksett NH 03106
KAYP Auburn Camp: 596 Hooksett Rd, Auburn NH 03032

"어버이연합 자금지원은 업무상배임"...경실련, 검찰수사 의뢰

"어버이연합은 차명계좌로 탈세·금융실명법 위반 행위 저질러" 주장

(서울=뉴스1) 김수환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자금 지원 의혹과 관련해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를 의뢰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30대 재벌집단을 회원사로 하는 전경련의 행위는 정경유착 의혹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초래했다"며 "사회적 과장이 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명백한 사실관계 규명, 엄정한 수사·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경실련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내용은 △전경련의 자금지원 시기, 횡수, 금액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 △소득세 납부 의무와 탈세 여부 △전경련의 업무상배임 의혹 △전경련이 이 돈을 공무로 처리했는지 여부 등이다.

경실련은 "어버이연합은 수년 전 문을 닫은 기독교선교복지재단의 계좌를 이용해 건물 임대료를 지불하는 등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면서 "전경련은 이 계좌에 2014년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2000만원을 송금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자금을 실질적으로 지원한 것은 금융실명법 위반"이라면서 "차명계좌를 통해 세금 부과를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서 탈세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경련이 이사회 의결 등 합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행했다면 회원사에 부당하게 손해를 끼친 행위로 회원사에 업무상배임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JTBC는 기독교 선교복지재단의 2014년 재단체계좌 입출금 내역을 공개하면서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가

집회나 시위를 할 때 필요한 금액을 제시한 출처가 전경련"이라고 보도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사회공헌 항목

으로 복지재단 등에 기부하는 것일 뿐 정치적인 목적으로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abilitykl@news1.kr



김삼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사법팀장이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로 자금 지원을 했는지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세월호 반대집회에 탈북자 돈 주고 동원 집회 순수성 해쳐"

어버이연합 "형편 어려운 탈북자 돕는 것...문제 안 돼" 과격한 행동에서 '정쟁화' 의혹까지...논란의 중심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보수 시민단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어버이연합)이 세월호 반대집회에 탈북자들을 사실상 동원하고 돈을 준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이같은 행동이 집회의 순수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어버이연합 사태'로 인해 시민단체를 바라보는 시민들이 집회에 '다른 목적'이 있다는 의구심을 들게 만든다는 것이다.

주간지 시사저널은 11일 "'어버이연합의 회계장부'를 입수했다"며 "어버이연합이 2014년 4월부터 11월까지 39회의 세월호 반대집회를 하면서 일당 2만원을 주고 탈북자 1259명을 고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장부에는 집회에 동원된 탈북자 수와 이름, 계좌번호, 일당까지 날짜별로 정리돼 있으며 지급된 돈은 총 8114만원이었다.

이에 대해 어버이연합 측은 해당 장부가 어버이연합의 것이 아니라면서도 집회 참가자들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같이 집회에 참석했던 탈북어버이연합의 부회장이인 이모씨가 빌려준 돈"이라며 "일부에서는 국가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고 보통의 경우 돈을 빌렸다"고 반박했다.

◇과격한 행동... '정쟁화' 의혹까지 2006년 5월 8일 창립한 어버이연합은 현재 17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2014년 세월호참사 이후 다른 보수단체와 연합해 세월호 유가족집

회에 맞대응 집회를 열었고 농성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일부 회원은 욕설을 하고 폭행 혐의로 입건되는 등 과격한 행동을 서슴지 않았다.

어버이연합의 가장 큰 특징은 '환경' '노동' '교육' 등 어느 한 분야에 특화된 단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집회를 비롯해 통합진보당 사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최근의 한일위안부 합의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기조에 반(反)하는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있으면 어디든지 나타나 '보수의 목소리'를 냈다.

대표적인 예로 어버이연합은 지난해 12월28일 한일 양국의 위안부 합의 이후 비판 여론이 고조된 가운데 그다음주인 1월6일 열린 수요시위가 끝난 후 '한일협상 환영집회'라는 맞대응 집회를 열었다.

당시 어버이연합은 집회 진행자가 "일제전범 적극 지지"라는 구호를 선창하거나 정신대문제협의회 측은 '북한 찬양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등 원래 취지와 맞지 않는 집회 내용을 보이기도 했다.

일각에서 '어버이연합이 사안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정쟁화'를 부추킨다' '국가에서 돈을 받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는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다.

세월호 유가족 모임인 416연대는 보도 이후 성명서를 통해 "어버이연합 등 보수세력은 초기부터 세월호 반대 집회를 하며 정치화를 조장해왔다"며 "세월호 문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자체를 정치적 요구로 몰아간 것에 대해 사죄하고 반성하라"고 밝혔다.

◇"돈을 주는 행위...집회 순수성 해칠 수 있어"

이러한 움직임은 세월호참사 이후 어버이연합이 맞대응 집회 횡수를 늘리고 더 많은 인원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더욱 본격화됐다.

이는 추선희 사무총장이 탈북자단체 간부 이씨로부터 돈을 빌려 탈북자들에게 개인적으로 '교통비'를 지급하고 집회 참석자를 늘렸다는 시점과도 맞물린다.

어버이연합 측은 "세월호참사 이후 맞대응 집회를 자주 열면서 어버이연합 회원만으로는 모자라다고 판단하던 중 탈북자단체에서 연합하자는 제안을 했다"며 "이들이 처음에는 봉사로 시작했으나 형편이 어려운 참석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식에게 용돈도 못 받는 등 형편이 어려운 탈북자들을 돕는 것이 문제될 것은 없다"며 "내가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교통비를 지급했고 빌린 돈은 다 갚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돈을 준다는 행위 자체가 시민단체가 목소리를 내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집회나 캠페인은 경제적인 이득과 상관없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뤄지는 것이 기본"이라며 "어버이연합이 금전적인 이득을 제공해 사람을 동원해 목소리를 내면 집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오해를 사고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금의 출처는 국가나 특수기관 단체가 아니라면 차용할 수도 있다"면서 "다만 탈북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정치행사에 동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금 사용방식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ysh@news1.kr

어버이연합 돈줄은 전경련?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보수단체인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로부터 돈을 받고 각종 집회와 시위에 참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종합편성채널 JTBC는 19일 자체 입수한 한 기독교 선교복지재단의 2014년 재단체계좌 입출금 내역을 공개하면서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가 집회나 시위를 할 때 필요한 금액을 제시한 출처는 전경련"이라고 보도했다.

JTBC에 따르면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계좌에 지난 2014년 9월부터 약 4개월 간 3차례에 걸쳐 '전국경제인연합회'란 명의로 총 1억2000만원이 입금됐다.

보도에 따르면 재단 관계자는 "추 사무총장이 계좌와 현금카드를 관리했다"고 증언했다. 해당 재단은 이미 수년 전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계좌로 입금된 자금 가운데 2900만원은 어버이연합 주도 집회에 탈북자를 동원해 온 탈북단체 쪽으로 입금됐다고 JTBC는 보도했다.

또한 실제 해당 계좌로 4000만원이 입금된 다음 날인 2014년 9월 6일 어버이연합은 전경련이 통과를 주장해 온 민생법안 처리촉구 시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어버이연합은 그동안 각종 집회에 돈을 주고 탈북자들을 동원한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전경련 관계자는 "통상 사회공헌 차원에서 각종복지재단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면서 "문제가 된 선교복지재단에 대한 지원이 실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해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ddakbom@news1.kr

청와대 "어버이연합 위안부합의 지지집회 지시설 사실 아니다"

(서울=뉴스1) 윤태형 기자 = 청와대가 올해 초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에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대한 '지지집회'를 열 것을 지시했다는 일부 매체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이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 지켜보자"고 답했다.

시사저널은 20일 어버이연합 핵심인사를 인용, 청와대가 올해 초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지지집회' 개최를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 H행정관을 통해 어버이연합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어버이연합 핵심인사는 보도에서 "청와대가 어버이연합을 못마땅하게 여겨 공격을 하는 것 같다. 집회를 열어달라는 요구를 안 받아줘서 그러는 것"이라며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재향영우회 등이 어버이연합과 탈북자단체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배후에 청와대가 있음을 시사했다.

birakoca@news1.kr



PROSPECT

DENTAL GROUP, LLC
Advanced Restorative Dental Clinic

프로스펙트 덴탈의 진료는 미래의 당신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 한국어 가능
- 응급환자 당일진료
- 주말 진료
- Walk-ins Welcome
- 각종 보험



Eugene Khang DMD(강유진)

원장: Eugene Khang DMD (강유진)
진료시간: 월-금: 9AM ~ 6:30PM
토: 9AM ~ 5PM

TEL: 617.576.5300
30 Prospect St. Cambridge, MA 02139 (Redline Central Sq.역)
www.prospectdental.com



Dedicated to
Your Health

Icon Dental

아이콘덴탈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백성편과 톱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마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성형 및 소아 치열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여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57 Bedford S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d. Suite A8, Concord MA 033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lexington.com
www.icondental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James Kim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ov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및 잇몸 수술 전문의
Dr. 모용현
교정 전문의

BELLA NAILS

GRAND OPENING

이제 캠브리지에서
한인 네일샵을 경험하십시오
(프리스트웨이 소라 화장품 내 위치)

탈라, 코팅지 펠, 네일 아트, 각질 제거, 푸피 마사지 등 다양한 로러로인료

SORA

소라 화장품
SHISEIDO

20년 전통 보스톤 시세이도 1호점



SHISEIDO ULTIMUNE

노화방지, 수분공급, 푸른빛, 피로회복, 탄력, 밝은 오묘 기능을 갖고 있는 제품. 피부에 탄력을 지켜주는 효제로 인기가 높은 제품

A GIFT FOR YOU



최대용 시세이도 강남점
컨설팅/마케팅/모텔
홍은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집단 손해배상소송 추진

"개인 보상과 별도로 피해기금 조성...피해자모임 법인 등록 추진"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피해자들이 집단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오는 24일 대학로 서울대 연건캠퍼스에서 열리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총회에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논의하고 소송인단을 꾸릴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주체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피해자들이며 대상은 이들이 사용한 제품의 모든 제조사와 판매사들이다.

센터 측은 정부 조사 결과 '관련성 낮음(3등급)'이나 '관련성 없음(4등급)' 판정을 받은 피해자들도 소송에 참여해 전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소송을 통해 개인보상과 별도의 피해기금을 조성하고 피해자모임을 법인으로 등록해 민간에서 주도하는

연구센터 건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흥규 센터 팀장은 "이번 소송의 1차 목적은 3~4등급 피해자들의 구제"라며 "장기적으로는 연구센터 건립 등으로 정부에서 입증하지 못했지만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 요구에 맞는 추가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2016년 4월4일까지 신고된 피해자는 1528명이며 이 중 사망자의 수는 239명이다.

ysh@news1.kr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동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임흥규 팀장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및 피해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조선업계 감원태풍 현실화...현대중 · 대우조선 3천명씩 감축

현대중공업 부서 100여개 축소..사무직 중심 3000명 안팎 감원계획

대우조선해양도 이미 인력조정 추진중..본사 인력 3000여명 축소 계획

(서울=뉴스1) 최명용 기자 = 조선업계 감원 태풍이 현실화됐다.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각각 3000명의 인력 감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중공업은 상시적인 구조조정으로 수백명 수준의 인력을 매년 줄이고 있다.

조선업계는 실적 부진에 수주 절벽까지 맞닥뜨려 최악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조선업계는 구조조정과 함께 정부 지원도 절실하다. 이에 앞서 구조조정을 통한 자체 비용 절감 노력이 불가피하다.

◇ 현대중공업 인력 10%선, 최대 3000명 감원 계획

21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최근 사업본부 대표회의를 통해 인력을 최대 3000명 가량을 줄이고 부서를 100여개 통폐합하는 구조조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임직원수는 지난해 말 기준은 2만7400명 수준이다. 현대중공업은 희망퇴직부터 접수하되 신청 인원이 부족하면 사업본부별로 정해진 인원내에 따라 권고사직 형식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인력 구조조정 규모는 최대 3000명이다.

현대중공업은 앞서 지난해에도 사무직 인력을 중심으로 인력 1400여명의 인력을 줄인 바 있다.

올해 감축 대상에는 생산직도 포함된다. 노동조합의 반발을 고려해 비조합원들인 기감(일반사무직 차장급에 해당)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조직도 개편한다. 현대중공업은 7개 본부에 걸쳐 500여개 부서가 산

재해있다. 현대중공업은 부서 간 업무중복 조정, 통·폐합 등으로 이중 100개 이상의 부서를 정리한다. 서울 상암동 DMC에 있는 해양·발전 플랜트 설계 인력도 울산 본사 등으로 철수한다.

◇ 대우조선해양도 인력 구조조정 본격화 전망

대우조선해양은 이미 지난달 10일 정성립 사장 기자회견을 통해 인력 구조조정 청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협력사 포함 인력 규모를 4만2000명에서 2019년까지 3만명 수준으로 줄일 방침이다. 본사 인력만 따지면 지난해말 1만3199명에서 25%가량, 약 3000명을 축소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의 구조조정과 관련, 이번주말 서별관회의를 갖고 대우조선해양의 자구노력과 구조조정에 대해 종합점검을 할 예정이다. 서별관회의 결과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인력 구조조정의 속도를 앞당길 가능성이 높다. 2019년 감축 목표를 올해말로 앞당길 가능성도 있다.

삼성중공업은 당장 인력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은 없다. 하지만 상시적으로 해마다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1만3974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직전연도 1만3788명과 비교하면 200명 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지난해 채용 인력 800여명을 감안하면 연간 약600명의 인력을 줄인 셈이다. 올해 구조조정 계획을 명확히 공개하진 않았으나 수주 감소에 따

라 인력 구조조정이 추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 "수주절벽에 남은 것은 줄이고 합치는 일 뿐"

조선업계에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것은 실적 부진에 수주 절벽 탓이다.

조선 빅3의 지난해 연간 영업손실은 8조5400억원에 달했다. 대우조선해양이 5조500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현대중공업은 1조5400억원, 삼성중공업은 1조5000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대우조선해양은 회계 감사 과정에서 손실 일부를 2013~2014년으로 분산했으나 사실상 지난해 손실이 5조원 이상 발생했다.

올 들어 상황도 개선되지 않았다. 올 들어 조선업체들은 수주 절벽에 시달리고 있다. 올 1분기 국내 조선업체들은 17만1000CGT(9척)를 수주하는 데 그쳤다. 현대중공업 계열이 6척, 중소조선사인 연수중공업이 3척을 수주한 것이 전부다. 대우조선해양은 수주물량이 줄어들자 해외 자회사인 망갈리아조선소의 수주를 한국으로 이전하는 극약처방까지 내렸다.

한국의 분기 수주실적이 20만 CGT를 밑돈 것은 2001년 4분기 16만5000CGT(9척) 이후 처음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실적 부진에다 1~2년 뒤 매출로 이어지는 물량 확보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수주 부진까지 이어지면 어떤 형태로든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xpert@news1.kr



'인터넷 악성댓글' 국정원직원 1심서 징유

(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좌익 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에 악성 댓글 등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 유모씨(42)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21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모욕 혐의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유씨와 변호인은 고소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지만 모욕죄의 고소 기간은 범인이 누군지 알고 나서 진행된다"며 "닉네임은 개시글의 작성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단서에 불과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씨는 국가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신념이 다른 국민을 상대로 온갖 욕설과 저속한 표현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썼다"며 "특히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에 대해서까지 입에 담기 어려운 모욕을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유씨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이 판사는 "2011년 4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이 존재한다"면서도 "선거와 관련한 댓글이 6개에 불과하고 단 3일간 게시했으며 선거일까지 20여일 남았는데도 댓글을 더 이상 게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씨가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특별한 후보를 낙선시키거나 당선시키기 위해 계획적 능동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2012년 대선과 관련해서도 의심스러운 사정은 존재하지만 게시글이 4건에 불과하고 그중 2건은 국정원 댓글

글사건에 관한 댓글"이라며 "자신이 소속된 기관을 보호하려 한 가능성이 적지 않고 특정후보자 낙선을 도모했다고 볼 수 없어 국정원법 위반의 범죄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유씨가 국정원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한 부분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선거운동의 의미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고 판례가 존재하므로 명확성원칙이나 최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국정원 조직과 직원에게는 업무 특성으로 인해 다른 조직과 구별되는 차별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유씨는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이용해 인터넷 게시판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하고 '홍어', '절라디언' 등 광주시민과 호남출신 인사를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인터넷방송 진행자 '망치부인' 이경선씨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올리는 등 이 기간 16개의 글과 3451개의 댓글을 올린 혐의로도 같은 달 고발당했다.

유씨가 작성한 댓글 중에는 문재인 당시 대선후보에 대한 악성댓글 등의 국정원 직원에게 금지되는 정치·선거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댓글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검찰은 유씨에 대한 고발이 있는지 2년 4개월만인 지난해 11월 유씨를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다만 광주시민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dandy@news1.kr

설운도는 되고, 남진은 안된 '고무줄' 선거법

(광주·순천=뉴스1) 지정운, 전원 기자 = 유명 가수가 특정 후보의 선거 유세차에 올라 노래한 것과 관련, 선관위가 서로 다른 선거법을 적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연 여부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21일 광주시·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제한)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련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4·13총선 선거운동 막바지에 유명 가수가 유세차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과 관련해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면서 법을 '고무줄 적용'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전남 순천시 조례호수공원에서 유세 중이던 이정현 새누리당 후보를 가수 설운도씨가 찾았다.

설운도는 이 후보의 유세차량에 올라 "선거법이 워낙 세서 이 무대에서 노래하면 저도 힘들지만 후보도 힘들어진다"고 선거법을 의식한 말을 했다.

이어 "노래를 하면 안되는데 이정현 후보 '뺨'을 믿고 한 번 하겠다"며

자신의 노래인 '누이'의 첫 두 소절을 불렀다.

이어 설운도는 "여기까지는 괜찮다. 더 이상 하면 선거법에 저촉된다"며 "4월13일날 우리 이정현 후보 선택만 해 주시고 당선만 시켜 주신다면 그때 와 나머지 노래를 꼭 부르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같은 행위에 대해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했지만 설운도의 행동을 기부행위로 볼 수 없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반면 가수 남진씨는 지난 7일 광주 동구 남광주시장을 찾아 당시 박주선 국민의당 동남갑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왔지만 선거법 논란을 의식해 노래를 하지 않고 박수만 쳤다.

당시 박 후보 측은 선관위에 노래를 부르는 행위에 대해 문의를 했었고, 선관위는 노래를 부를 경우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답을 받았다.

이로 인해 남진씨는 노래를 부르지 못하고 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대신 노래를 불렀다.

이처럼 두 가수가 다른 행동을 보인 것은 가수가 공연을 통한 기부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정확히 어떤 경우를 공연으로 봐야하

는지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당시 상황을 고려해서 공연으로 봐야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남진씨와 설운도씨의 경우는 상황이 일단 다르다"며 "남진씨의 경우 먼저 노래가 틀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노래를 부르면 공연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설운도의 경우 본인이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고, 노래도 무반주로 2소절만 불렀기 때문에 선거법 상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공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거 같다"고 덧붙였다.

junwon@news1.kr



이정현 새누리당 후보의 유세차에 올라 노래하고 있는 설운도 씨(위)와 박주선 국민의당 후보 유세현장에서 손을 맞잡고 있는 가수 남진 씨

선관위, '새누리 몰표' 진주갑 직원의 실수

선관위 문제제기 연달아 무시, 전국적 비난일자 재검표 "서로 다른 지역 투표지가 섞인 절차상 잘못...총 득표수에 변화 없어"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 경남 진주시 수곡면(진주갑) 사전투표함의 100% 새누리당 몰표 논란과 관련, 선관위 사무원의 실수였으며 재검표 결과 정당별 총 득표수에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진주시 수곡면의 사전투표 중 정당투표 177표 모두 새누리당이 득표한 것으로 나온 개표 결과에 대해 주민 일부가 새누리당을 찍지 않았다고 밝히며 개표 부정 논란이 일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2차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가 됐던, 진주시 수곡면과 섞였다고 판단된 명석면의 비례대표 투표용지를 각 지역 사전투표소별로 분류한 후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정당별 총 득표수는 당초 개표결과와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진주시 수곡면 사전투표함 개표시 투표지 분류 과정에서 담당사무원의 실수로 명석면의 비례대표 투표지가 함께 분류됐다"며 "수곡면과 명석면이 섞

여 있던 새누리당 지지 177표를 모두 수곡면의 사전투표 결과로 처리한 절차상 실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표 과정에서 수곡면과 명석면의 비례대표 사전투표 투표지가 섞여서 개표를 진행한 절차상 실수가 있었던 것"이라며 "사전투표 개표 결과와 이날 재검표를 통해 확인한 해당 지역의 정당별 득표수에 변동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즉, 이날 재검표 결과 당초 수곡면 지역의 개표 결과 새누리당 지지 177표는 △새누리 110표(67표 감소) △더민주 25표 △국민의당 23표 △정의당 7표 △기타정당 8표로 변동됐지만, 명석면에서 새누리당 표가 206표(당초 139표)로 67표 늘면서 총 득표숫자는 같게 됐다.

선관위는 "향후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표 관계자 교육을 철저히 하겠다"며 "정확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hsb@bostonkorea.com



서울설렁탕

한식 세계화의 종갓집이 되겠습니다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 617.505.6771



다가오는 봄, 서울설렁탕의 비빔국수를 보셨나요? 특별 보양, 육육과 함께 각종 주류를 즐기세요!





서울설렁탕 in Allston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617.505.6771
SeoulBeefSoup.com



서울 Seoul in Lexington
158 Cambridge St., Boston
617.877.8888
SeoulFoodInLexing.com

Salons by JC 헤어스타일리스트 영

영미와 가까운 손길엔 지극히 전문적이고 드립니다



전자 모탁 트리트먼트



2017년 1월 8일부터 H-Mart 앞 Middlesex Commons Mall에 위치한 Salons by JC로 이전

남자컷 25불/여자컷 35불/파마 35불 부터
다지깎 130불 부터/개국된 헤어 220불 부터 시작합니다.

경희 양구경 김영남 미윤실, 쫄레오빌 머리 미용실, 송내 부천 박준 오븐 스팀 뉴욕 Fox헤어 스튜디오, SALON LOFTS sunny 운영

617.947.6840

675 Lowell St. Rm #1 Lexington MA 02420



전 미주 지역의 Network과 Teamwork 그리고
다년간의 경험과 New Star 부동산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의 성공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주 40대 한인 부동산 그룹 / 20여년 역사 / 1500명 이상의 에이전트 /
연30%의 매출실적 / 20여 개의 대외지사 / 한국 및 캐나다 지부



백영주
617-921-6979



주승원
617-780-7839



스티븐 손
617-290-0623



Sue Rong Tsai
617-792-8842



Yukai Sun
860-830-8599



이제봉
781-654-5281



애나 정
617-780-1675



마희경
339-222-1709



Ritika Chopra
617-697-1191



Michael Yun
617-459-5985

단독주택 Single Family



\$549,900
Sharon, MA
3Beds, 2.5Bath, 1960sf.
좋은 학군, 많이 update된 집
넓은대지, open된 실내구조
이현주 401-935-3397



\$679,900
Sharon, MA
4 Beds, 2.5 Baths, 2376sf.
잘 꾸며진 정원, cul de sac,
넓은 master suite, 새 부엌
이현주 401-935-3397



\$650,000
Lexington, MA
3 Beds, 1Bath, 1188sf.
좋은 학군, 편리한 주거환경
넓은 정원과 대지
OT Kim 617-620-8242



\$739,000
Wellesley, MA
3 Beds, 2 Baths, 1656 sf.
Great Location!
조용한 주거환경, 좋은 학군
제니스 리 978-806-6023

New Construc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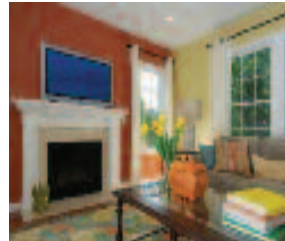


\$359,000
Weymouth, MA
3Beds, 1Bath, 1380 sf.
Central A/C, Sky light
이현주 401-935-3397



콘도/타운하우스/싱글 하우스 S.Weymouth, MA

역까지 도보 3분, JFK/Umass까지 3stop, 1-3 Br, \$299,000~
바다 옆에 있는 아름다운 타운에 신축중인 콘도에 처음 입주하세요!
한인담당; 스티븐 손 617-290-0623 이현주 401-935-3397



콘도 Condominium Rental



\$273,900
Maynard, MA
2 Beds, 1.5 Baths, 1930 sf.
four level 타운홈
Anna Jung 617-780-1675



\$210,000
Acton, MA
2 Beds, 1.5 Baths, 1303 sf.
New Roof, siding, HVAC system
신보경 508-361-6064



\$318,000
Hopkinton, MA
2 Beds, 2.5 Baths, 1651 sf.
좋은 가격의 깨끗한 콘도
Michael Yun 617-459-5985



\$1,500
Arlington, MA
Fully Furnished Studio,
좋은 교통, 안전한 동네
Hazel Seung 617-895-7676

Pre-Sale

Millennium Tower Boston

하이라이즈 콘도
2016 완공예정, 럭셔리콘도
90% Pre-Sold
Boston, MA
다운타운 새 콘도
오피스 781-259-4989

Single Family

\$399,000
Malden, MA
5 Beds, 1.5baths, 1740sf.,
Shell Yu 781-526-2416

Single Family

\$599,000
Bedford, MA
3 Beds, 2 Baths, 2238 sf.
Gina Choi 978-866-3248

Single Family

\$319,900
Maynard, MA
4 Beds, 2baths, 1579sf.,
Anna Jung 617-780-1675

Condo Rental

\$2,900
Lexington, MA
3 Beds, 2 baths, 1400sf.,
Janice Lee 978-806-6023

Condo Rental

Apt, Condo Rental
전문 상담
David Kim 781-956-0409
Hazel Seung 617-895-7676

Condo Rental

\$1,600
Acton, MA
2 Bed, 1 bath, 820sf.,
Gina Choi 978-866-3248

Lexington Office

40 Walt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Tel. 781.259.4989 Fax. 781.259.4959
www.BostonNewStarRealty.com

Newton Office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Tel. 617.969.4989 Fax. 617.969.4959
www.NewStarRealty.com

Agent 모집합니다. 781.259.사구팔구 617.969.사구팔구



1111 Washington St, Newton, MA 02465
40 Wallham Street, Lexington, MA 02421

www.BostonNewStarRealty.com
www.NewStarRealty.com

Each offic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미국 최대의 부동산 그룹 / 2006년 100대 / 2007년 100대 / 2008년 100대 / 2009년 100대 / 2010년 100대 / 2011년 100대 / 2012년 100대 / 2013년 100대 / 2014년 100대 / 2015년 100대



김형진
781-956-0409



박성종
617-304-7001



Sara You
617-899-3566



Shell Yu
781-526-2416



제니스 리
978-806-6023



신보경
508-361-6064



Claudia Lee
617-817-사구팔구



이현주
401-935-3397



Gina Choi
978-866-3248



OT Kim
617-620-8242

Nail Salon	Nail Salon	Full Plant Drycleaner	Full Plant Drycleaner

<p>\$70,000 Dedham, MA 1200sf. 넓은 주차 공간 6 manicure & 4 pedicure stations Anna Jung 617-780-1675</p>	<p>\$110,000 Cambridge, MA 400sf. Porter sq. 넓은 주차공간 Anna Jung 617-780-1675</p>	<p>\$350,000 Reading, MA 최적의 위치, 높은 매상 정년세일 스티븐 손 617-290-0623</p>	<p>\$475,000 Quincy, MA 10개월된 새 장비 매상 높음, 편리한 교통 이현주(Julie Lee)401-935-3397</p>
---	---	--	---

Restaurant	Restaurant	Restaurant	Restaurant

<p>\$499,900 Brookline, MA Restaurant w/ Liquor 5000 sf. 180 인석 Anna Jung 617-780-1675</p>	<p>\$500,000 Cambridge, MA Center of Harvard Sq. Including Liquor license 3400 sf. Capacity of 120 people Anna Jung 617-780-1675</p>	<p>\$97,000 Boston, MA 보스톤 유니버시티 근처 Anna Jung 617-780-1675</p>	<p>\$309,000 Allston, MA 한인타운 최적의 위치 Full Size Kitchen 스티븐 손 617-290-0623</p>
--	--	--	---

Coin Laundry	프렌차이즈	Business Consulting	Commercial

<p>\$55,000 Brookline, MA Drop-off and coin laundry Good location for business Anna Jung 617-780-1675</p>	<p>한국 식당, 카페, 프렌차이즈 S.J Park 617-304-7001</p>	<p>센트랄 sq., 하버드 sq. 올스톤, 뉴튼 센터 S.J Park 617-304-7001</p>
---	---	--

<p>Investment E-2 & EB-5 투자 문의 781-259-4989</p>	<p>Restaurant \$995,000 Westford, MA Newly set up, Asian food SJ Park 617-304-7001</p>	<p>Restaurant \$850,000 REDUCED Westborough, MA Asian Restaurant/Bar SJ Park 617-304-7001</p>	<p>Restaurant \$199,900 Newton, MA Korean-Japanese Restaurant Anna Jung 617-780-1675</p>
<p>Restaurant \$495,000 Boston, MA Alot walk and car traffics SJ Park 617-304-7001</p>	<p>Full Plant Cleaner \$260,000 Chelmsford, MA Chelmsford downtown Anna Jung 617-780-1675</p>	<p>Restaurant \$130,000 Cambridge, MA High traffic main road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음 Sue Rong Tsai 617-792-8842</p>	<p>APT Rental 보스톤 아파트 전문가! 가격, 지역, 방 갯수 등 원하시는 조건에 맞추어 찾아 드립니다. David Kim 781-956-0409</p>



최고의 실력과 탄탄한 경력을 갖춘 에이전트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곧 전화하세요 !!!

OTAS를 시작하는 패트리어츠의 3가지 질문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성일 기자 = 패트리어츠의 2016 시즌이 시작되었다. 지난 18일, 패트리어츠의 OTAS(Organized Team Activities)가 시작하면서 30여명의 선수들이 오랜만에 질레트 스타디움에 모였다. 6월에는 미니캠프가 열리고 7월에는 트레이닝 캠프가 시작한다. 시즌 개막일은 9월 11일에 예정되어 있는 카디널스와의 경기지만 OTAS가 시작하면서 2016 시즌이 시작되었다고 봐야 한다. OTAS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시즌을 미리 준비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팀을 꾸려나갈지는 OTAS에서부터 결정된다. 시즌 개막일까지 5개월 가까이 남은 상황에서 패트리어츠가 던질 수 있는 3가지 주요 질문을 살펴보자.

탐 브래디의 출장 정지 처벌은?

지난해 NFL 전체를 떠들썩하게 했던 디플릿게이트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패트리어츠의 쿼터백 탐 브래디의 출장 정지 처분 역시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없다. 브래디는 2014 시즌 AFC 챔피언십 경기에서 의도적으로 풋볼의 바람을 뿜었다는 디플릿게이트 관련 혐의로 NFL로부터 4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법정 소송까지 가면서

4경기 출장 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법원 판결로 브래디는 지난해 시즌 개막일부터 전 경기에 출전했지만 법정 소송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NFL이 항소를 했기 때문에 상급 법원의 판결에 따라 올해 다시 브래디에게 4경기 출장 정지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결국 패트리어츠는 지난해와 비슷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시즌 초반 4경기를 브래디 없이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대니 아멘돌라에 대한 계획은?

패트리어츠는 아직 와이드 리시버 대니 아멘돌라에 대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연봉 조정이 없이 2016 시즌을 시작한다면 아멘돌라는 기본 연봉 500만 달러를 받게 되고, 인센티브를 포함한 샐러리캡 금액은 680만 달러다.

이미 아멘돌라는 지난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연봉 재협상을 통해 연봉이 삭감되었다. 그러나 올해는 아직 연봉 삭감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각 팀들은 4월 초에 프리 에이전트 시장에서 원하는 선수들을 영입하고 이미 계약을 맺었다. 아멘돌라가 받는 수준의 연봉을 지급할 수 있는 팀은 많지 않다.

아멘돌라는 브래디가 믿을 수 있는



패트리어츠에는 에들먼을 대신할 확실한 백업 리시버가 없다

와이드 리시버이며 스페셜 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선수다. 그러나 부상 이력도 있고 연봉 수준에 비해 성적이 아쉬운 것이 것이 사실이다. 올해로 패트리어츠와 4번째 시즌을 맞는 아멘돌라를 어떻게 할지 패트리어츠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

스카 코치의 복귀 영향은?

2014 시즌을 끝으로 은퇴했던 패트리어츠의 오피니언 라인 코치 단테 스

카네치아가 복귀했다. 지난 시즌 패트리어츠의 최대 약점이 오피니언 라인이었기 때문에 풋볼계를 은퇴했던 베테랑 코치가 돌아온 것이다.

지난 시즌 AFC 챔피언십 경기 패트리어츠는 경기 바로 다음날 오피니언 라인 코치를 해임했다. AFC 챔피언십 경기에서 패트리어츠의 오피니언 라인이 너무나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며, 동시에 시즌 내내 오피니언 라

인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패트리어츠 오피니언 라인에는 재능 있는 젊은 선수들도 있고, 새로 적응해야 하는 베테랑 선수들도 있다. 스카 코치가 이들을 조합하여 올해는 얼마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지가 이번 시즌 패트리어츠 성공의 열쇠가 될 수도 있다.

jsi@bostonkorea.com

오승환, 8경기만에 첫 실점...컵스전 10이닝 2실점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오승환(34·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8경기만에 빅리그 데뷔 첫 실점을 기록했다.

오승환은 20일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부시스타디움에서 열린 2016 메이저 리그 시카고 컵스전에서 팀이 4-1로 앞선 8회초 선발 카를로스 마르티네스에 이어 두 번째 투수로 등판해 1이닝동안 2피안타 1볼넷 2실점(2자책점)을 기록했다.

앞서 7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 행진을 벌이던 오승환은 데뷔 이후 처음으로 실점을 기록했다. '0'이었던 평균자책점도 2.08로 올랐다. 이날 오승환은 30개의 공을 던졌고, 이중 18개가 스트라이크였다.

다만 오승환은 동점을 허용하지 않아 시즌 첫 홀드를 기록했다. 홀드는 세이브 상황에서 등판해 리드를 유지한 채 다음 투수에게 마운드를 넘겼을 때 작성되는 기록이다.

전날 등판해 1이닝 무실점을 기록했던 오승환은 빅리그 입성 후 처음으로 이를 연속 마운드에 올렸다.

게다가 이날 7회말이 끝난 뒤 내린 비로 인해 경기도 3시간21분이 지연됐다. 오승환에게는 이래저래 힘든 상황이었다. 때문인

지 빠른 공의 제구가 잘 되지 않는 모습이 었다.

첫 타자 텍스터 파울러와의 대결에서부터 불안한 기운이 감지됐다. 오승환의 4구째 공을 받아친 파울러의 타구는 1루 쪽으로 향했고, 1루수 맷 아담스가 몸을 던졌지만 공이 글러브에 들어갔다 튀어나왔다. 불운한 내야안타였다.

오승환은 후속타자 제이슨 헤이워드에게 7구 풀카운트 접전을 벌인 끝에 볼넷을 내줘 무사 1,2루로 몰렸다.

오승환은 벤 조브리스트에게도 초구에 잘 맞은 타구를 내줬지만 우익수 정면으로 향해 한숨을 돌렸다. 이 과정에서 2루주자는 3루로 뛰었다.

불안불안하던 오승환은 결국 상대 4번타자 앤서니 리조에게 적시타를 내줬다. 오승환은 이번에도 풀카운트 접전을 벌였지만 7구째 공이 물리면서 우전안타를 허용했다. 빅리그 데뷔 첫 실점을 내줬고, 다시 1,3루가 됐다.

오승환은 크리스 브라이언트를 내야 땅볼로 유도했지만 타구가 느려 1루 선행주자인을 아웃시킬 수밖에 없었다. 이때 한 점이 더 들어와 4-3까지 추격당했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오승환

오승환은 이후 토미 라 스텔라에게도 잘 맞은 타구를 내줬지만 중견수의 좋은 수비로 위기를 모면했다.

오승환이 다소 부진했지만, 세인트루이스는 끝까지 리드를 지켜냈다. 8회말 야디어 몰리나의 적시타로 한 점을 추가한 세인트루이스는 9회 마무리 트레버 로젠탈을 투

입해 1이닝을 막고 5-3으로 승리했다. 로젠탈은 개인통산 100세이브째를 올렸다.

2연패를 끊은 세인트루이스는 시즌전적 8승7패가 됐고, 2연승이 끊긴 컵스는 11승4패를 마크했다.

starburyny@news1.kr

ACN 사업과 집을 지켜 드립니다



“전기비까지 절약하실수 있습니다”

POSPay



작전타임 한번
불러보시죠?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선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타이밍이 지금입니다.



<고객 절약 사례>
 본촌: 20% 절약
 대저장: 16% 절약
 Mr. Sushi: 19% 절약
 VIP Nails: 22% 절약
 Queenie Nails: 24% 절약
 Great Nails: 37% 절약
 My Cleaners: 41% 절약
 Classic Cleaners: 13% 절약
 Professional Cleaners: 23% 절약

www.pospay24.com



Agent / 상담원 모집

TEL **617-466-2212**

TOLL FREE **888-604-2190**

150 Eastern Ave #2FL Chelsea, MA 02150

성양푸안 다블뤼 보스턴 한인성당
St. Andrew Daveluy Parish of Boston Church

주일미사(한국말)
오전 11시30분 (교중미사)
오후 4시30분 (청년주관)

영어미사
오전 10시

명일미사
(화) 오전 10시30분
(목) 오후 7시30분

고백성사
미사 시작 30분전

서둘서비스(요청시)
(http://stdaveluychurch.org/오시는길)
11:15 am, 리버사이드역 → 성당
미사 30분 후, 성당 → 리버사이드역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617-244-9665
office.lccb@gmail.com
www.stdaveluychurch.org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삶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턴 북쪽
I-95 Exit 38B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경 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의
보스턴은혜장로교회
BOSTON GRACE PRESBYTERIAN CHURCH

이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길이고 권리와 거룩의 길이다 (행 1:31)

주일예배 / 오후 2시 | 금요기도회 / 저녁 7시
영양/영양/초경/초경부대회/영양부대회
Grace Bible Study / 수요일 7:30

담임 목사 / 우사양

7 Clarendon Road, Lexington, MA 02421
(In the Trinity Covenant Church)
Tel: (781) 715-0571 / Fax: (781) 645-0407
bostongracechurch.org

보스턴 밀알 한인 장로교회

가르치고 전파하라
(약 4:25)

예배시간:
주일 1부 9:30, 2부 11:00
금요일 9:00

밀알한국학교 운영(주일 오후)

담임목사: 박일종

주소: 15 Alpha Rd.,
Chelmsford MA 01824
전화: 978.578.9887
www.milal-church.org
Lexington에서 25분,
H-I49에서 15분 거리

유재부 담임목사
유선부 담임목사
유선부 담임목사
유선부 담임목사

성경대로 열으며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교회

사랑제일교회
BOSTON UNITED METHODIST CHURCH

담임목사: 권종성
Faith Theological Seminary, Ph.D.
New York Univ. M.F.S.
한양대학교 대학원
원기종 대한예수교장로회 미주노회 소속

교회 예배 안내

주일 예배	오전 10시
주일 학교	오전 10시
전도인 공부	오전 4시
목요 공부	오전 7시
수요 예배	오전 7시
구별 예배	각 구역별

* 모든 예배는 영어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All services are translated in English simultaneously

461 King St. Lynn, MA 01904 Tel: (978) 985-0295, (978) 944-2404
www.boston1stchurch.com

보스턴 서부 장로교회
Boston-West Korean Presbyterian Church

어머님 마음 같은 교회

주일예배: 오후 2시 | 주일학교: 오후 2시
종교동부: 오후 2시 | 대학부모임: 주일 12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 구역모임: 구역별로

담임목사: 김학수
www.bostonwestchurch.org

657 Boston Post Road, Weston, MA 02493
교회 : 781.894.3958 목사관 : 817.969.5809

**미 육군 지원으로
미 시민권을 취득**

자율 전화하세요!
781.330.6043

U.S. ARMY

코리아 여행사

617.267.7777
1.800.473.1922

보스턴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508-740-9188

CHOISIGNS & DESIGN

LED Signs,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 Car Sign, Lighted Box, All Types of Signs.

ART

간판 및 사인

617.470.1083
e-mail choisigns@yahoo.com

보스턴코리아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전화: 617.792.6876 이메일: bostonkorean@hotmail.com

‘성령 안에서 하나되는 교회’

하나님의 나사렛에 따라 함께 하신 말씀에 영혼이 부흥되실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주께, 서로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의 교회를 이루실 것입니다.
같은, 같은, 같은, 사랑, 사랑, 사랑, 부흥하는 영혼의 삶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예배를 준비합니다.

금요일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학교, 영성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예배: 금 오후 8:00
새벽예배: 월-금 오전 6:30, 토 오전 7:30
영성예배 주일오후 12:30
속죄예배 수-주일 속죄일
영성예배 화,목 오후 8:00, 주일 오전 9: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2:30, 수 오전 6:50, 목 오후 9:30

비전교회
The pastor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80 Mt. Auburn St., Westtown, MA 02472 Tel: 617.744.8587
www.growwithus.org

UMS
신용카드결제 전문 기업 SINCE 1994

**15년동안 한인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솔루션을 책임져 왔습니다.**

전문성과 기술력으로
탁월한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UMS**

flex 2it UP SOLUTION

내외는 뉴저지주 법세 관련 카드결제 관련회사에서 미 영미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Flex2it는 신용카드 결제, 가맹점 UP Solution을 통한 POS 시스템, 모바일 결제 시스템 등
필요한 모든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 최적의 영미대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내외 비즈니스가 성공하려면 **이선호**
781.266.7245



HAPPY

해피돌상

고품격 전통상 대여 (백일상, 돌상)

한국보다 더 한국적인 풍성한 전통사자직,
소중한 내 아기에겐 한국의 미를 보여주세요!
저렴하고 무심하게!





- 품격을 더하는 화첩도 현수막
- 다양한 수공예 소품들

- 열매의 마음으로 만든 기차귀 케이크
- 국나산 용기접시와 찬기, 공기

- 화려하고 우아한 나비꽃더
- 풍성한 상차림 세트

문의 Happydolsang@gmail.com



크라우저 앤 서 로펌

MIAMI - BOSTON - D.C.

이민법 / 국제법 전문 로펌 Specializing in Immigration / International Law



Henry Crouser
변호사

스티브 서
변호사

전문 분야

- 전문인력 취업비자 (H-1B)
- 단기연수원 비자 (H-3)
- 주재원 비자 (L-1)
- 특가자 비자(O-1, P-1)
- 취업이민 (EB-2, EB-3, EB-4)
- 종교비자 (R-1)
- 투자이민 (EB-5)
- 투자비자 (E-2)
- 교수 및 연구직 (EB-1, NIW)
- 가족초청이민
- 시민권 신청
- 추방제안

VISIT US AT :
www.stevesuh.com / www.suhlawyer.com

Crouser & Suh PLLC

251 Harvard Street Suite 6, Brookline, MA 02446

Tel: 617.566.7979 Fax: 617.566.7982

Email: info@stevesuh.com

Elegy for the Fallen, Light beyond the Abyss

망자를 위한 애가 - 심연 너머에 빛

music and poetry of
 solace and resilience

BACH BLOCH GRANADOS IRINO JUNG KIM MORRIN PIAZZOLLA RACHMANINOFF WHITACRE

Christina Cheon *marimba*
Yumi Bae *cello*
Do Yeon Kim *gayageum*
Chase Morrin *piano*
The Jayu Quartet *ensemble*
Clera Ryu *piano*



4.30. Sat. 7 PM

St. Paul's Church, 15 Saint Paul St. Brookline

TICKETS & INQUIRIES www.koreancultureboston.org



한인 업소록

Korean Business Directory

한인들과 함께 하는 좋은 신문



보스톤코리아
BOSTONKOREA.com

현재 한인업소록의 각종 전화번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혹 누락된 번호가 있으면 617-254-4654나 bostonkorean@hotmail.com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즉각 반영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접 주요 전화

가정폭력상담소(Ex. 33)	617-338-2352
견인	800-632-8075
고등교육위원회	617-727-7785
고등교육정보센터	800-442-1171
공중위생국	617-624-6000
구세군	617-536-7469
국제청	800-829-1040
날씨정보	617-976-6200
로간국제공항	800-235-6426
미아찾기	888-477-6721
백배지역	617-345-7958
보스턴공립학교	617-635-9000
보스턴수도	617-989-7000
보스턴시청	617-635-4500
보스턴청영사관	617-641-2830
사우스역	617-345-7958
사회보장국	800-772-1213
성폭행	781-237-9110
성폭행	617-492-8300
시간문의	617-637-123
아동보호	617-748-2000
아동학대	800-792-5200
알고리즘/마약	617-445-1500
여성학대	617-248-0922
온전연허	617-351-4500
텔레어	617-348-8500
자원봉사	800-522-8086
적십자	800-564-1234
전화신청 (Verizon)	800-941-9900
전화교정신청(Verizon)	617-555-1515
택시	617-343-4475
AAA	800-222-4357
FBI	617-741-5533
MBTA	800-392-6100
NSTAR가스	800-572-9300
NSTAR 전기	800-592-2000
RCN케이블TV/전화	800-746-4726

한인회

뉴잉글랜드 한인회	781-933-8822
뉴햄프셔 한인회	603-767-1356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401-368-0467
메인 한인회	207-756-0092
버몬트 한인회	802-734-2521

주요 단체

국제대한여성선교연합회	978-407-7554
국제대한여성선교연합회(미)	603-899-8201
뉴잉글랜드공공협회	617-438-9763
뉴잉글랜드공공연구회	978-902-8305
NE교육자협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문인협회	978-688-3137
뉴잉글랜드신약회	774-270-1948
뉴잉글랜드시인협회	508-962-2689
뉴잉글랜드교회협의회	978-394-3060
뉴잉글랜드해변대전우회	617-833-1360
대사추진위원회	603-894-5425
민주평등보통협회의	413-535-0916
보스톤 대한체육회	781-326-9009
보스톤산악회	978-569-3256
보스톤한미노인회	978-994-5490
재미교과기술회	857-998-7043
재향군인회	339-298-7187
세안인협회	508-826-5270
이북도도민연합회	978-514-3399
한인학교동맹회	781-424-5269
FH한인경제인협회	401-481-4900
한국언어이동학(메인)	207-878-5652
625창조유공자회	978-725-9597
보스톤 한미예술협회	781-367-5993

동창향우동호회

건국대학교동창회	401-738-8735
경기고등학교동창회	508-995-7242
경기여고동창회	781-861-0437
경북고동창회	617-921-8799
고려대학교 교우회	617-795-1779
뉴잉글랜드 신약회	774-270-1948
배재중고등학교동창회	978-474-4780
보스톤 신약회	978-569-3256
보스톤한인사회관	617-789-4964
산사랑	774-270-1948
서경대동문회	617-599-9869
서울고 동문회	617-792-2635
서울대학교동창회	978-821-9434
서울신학대학교동창회	
성곡관대동창회	802-734-2521
양정중고등학교동창회	508-541-6969
이화여고동창회	617-277-0730
이화여대동창회	978-390-1552
중앙대학교동창회	603-622-8883
강원도민회	617-875-1801
충청향우회	678-717-8800
한양대동문회	781-708-3160

언론

보스톤코리아	617-254-4654
한인일보	781-933-8822
한국일보(뉴욕)	718-482-1111
Grapevine Times	781-548-9945

종교

기독교	
구세군 물든교회	617-792-8780
그린랜드 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글로벌 미션 보스톤교회	617-913-3074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갈보리교회	413-789-9888
구세군물든교회	617-792-8780
그레이스연합감리교회	203-459-8517
그리니치한인교회	203-861-1134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	603-430-2929
나사렛사립교회	781-439-1840
내슈아한미음교회	603-888-8040
뉴잉글랜드감리교회	617-969-0507
뉴잉글랜드한미교회	413-567-9142
뉴튼 아름다운 교회	617-869-8159
뉴햄프셔감리교회	617-990-7619
뉴햄프셔장로교회	603-437-5134
뉴햄프셔한인교회	603-264-6799
라이코스교회	978-387-1115
라이스한인침례교회	508-926-8236
로드아일랜드성당교회	401-353-0983
로드아일랜드제일교회	401-944-0020
RH생명의길장로교회	401-821-2311
메리맥 교회	978-806-1363
목양교회	617-223-1690
무지개교회	207-774-1617
말일한인교회	978-244-0691
렉싱턴 풍성한교회	617-953-0856
버클랜드 침례교회	617-864-5948
보스톤 국제교회	617-459-6479
보스톤 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사랑의교회	617-285-8870
보스톤 사랑제일교회	978-844-2404
보스톤 은혜장로교회	781-715-0571
보스톤 새로남교회	617-947-6765
보스톤 새생명교회	978-777-1800
보스톤 생명의 교회	978-578-6987
보스톤서부장로교회	781-894-3958
보스톤 성결교회	781-275-8233
보스톤 한울교회	781-396-1004
보스톤 소망교회	781-686-5526
보스톤시온성교회	978-758-4541
보스톤신실교회	781-279-3270
보스톤 온누리교회	781-933-7044
보스톤웨슬레감리교회	781-393-0004
보스톤 장로교회	508-435-4579
보스톤 제일교회	617-458-2733
보스톤 주님의교회	617-966-9608
보스톤 중앙교회	617-230-5004
보스톤필그림교회	857-636-9985
보스톤 한인교회	617-739-2663
보스톤 한우리교회	978-454-0454
보스톤한인연합교회	617-923-9581
북부보스톤감리교회	978-470-0621
비전교회	617-308-2391
새빛교회	781-652-0001
새세우살렘교회	774-249-0022
선한목자장로교회	904-400-9386
성요한 교회	781-861-7799
순복음 보스톤교회	617-413-5372
스프링필드한인장로교회	413-789-4522
스프링필드제일교회	413-781-2477
시온감리교회	601-739-8439
안디옥 교회	978-534-3394
열방교회	617-620-3362
에이치 밴앨교회	978-274-2759
엘리스트 한인장로교회	413-549-6495
엘리스트 시온교회	413-549-9200
올스톤한인교회	617-642-7403
우스터 교회	508-799-4488
워싱턴시온교회	918-876-2815
임마누엘 연합교회	617-818-3060
자연교회	603-437-6151
좋은영교회	978-390-6613
지구총방주교회	617-838-6434
케임브리지한인교회	617-491-1474
케임브리지연합장로교회	781-861-3877
켄싱턴성교회	617-770-2755
하바드 한인교회	617-441-5211

불교

문수사	781-224-0670
서운사	508-755-0212
심광사	617-787-1506
원불교	
원불교보스톤성당	617-666-1121
천주교	
보스톤 한인천주교회	617-558-2711
로드아일랜드한인천주교	401-499-8258

간판

조이스간판	617-470-1083
-------	--------------

건강식품

보스톤정관장 브랜드스터어	781-238-0303
---------------	--------------

건축

글로벌건축	617-645-6146
김원태 건축사	617-620-8242
미남건축	508-650-8844
선아건축	508-230-5878
솔로몬 DRYWALL	978-761-0623
신중축 루핑사이드 침분	617-999-9616
이블드 건축	617-833-1360
파인항건축	617-688-6833
한샘(주)	781-487-0101
ECO Construction	781-608-2971
E/Y 건축	617-590-3472
J.C건축	781-738-7871
J&D 인테리어	617-645-6661
LEE'S건축	617-538-0558

골프개인

골프레슨	617-458-2733
골프스쿨	617-775-5527
남궁연골프교실	978-474-4780

ABC골프	603-401-7990
최현주 골프 레슨	339-223-4700

공인 회계사

김양일 회계사	617-901-0707
김창근 세무사	781-935-4620
노성일공인회계사	781-863-2232
이현주 회계사	781-944-2442
이명원 회계사	617-455-8073
정진수회계사	508-584-5860
한미선회계사	617-792-2355
한성애회계사	617-283-7151

꽃

미스티화원	617-666-3116
데코플라워	617-875-0648
앤더슨꽃집	781-894-1843

금융/모기지

인디펜던트(류영욱)	617-777-2929
이중지리	781-591-2722
이종수파이낸스	617-799-6158

냉동/에어콘/히팅

JK 플러밍	978-303-7000
Nirvana Air	508-473-3429

노래방

도레미노래방	617-783-8900
진 노래방	617-782-9282

도서관

뉴햄프셔한인도서관	603-644-1991
보스톤공립도서관	617-539-5400

당구장

올스톤당구장	617-782-0969
--------	--------------

동물병원

김분수 동물병원	978-851-3626
윤상태 동물병원	978-343-3049
제임스킴 동물병원	978-658-5282
형태택집	978-975-3303
장음식주문	617-648-0584
한아름	617-547-8723

미용실

가위소리	617-782-8111
그레이스스킨케어	978-468-0039
그레이스커팅클럽	617-331-1011
단오 헤어살롱	617-413-4560
뷰티풀 헤어살롱	857-284-3879
세리 미용실	781-676-7374
안구정중얼굴방	617-438-0378
웨스트메인헤어	508-734-0446
티케이헤어디자인	508-768-7675
프로페셔널헤어디자인	978-772-7886
헤어 스크린	617-787-1735
헤어 센스	617-773-1220
헤어 Collage	617-354-4660
미용실 코리아LEE	617-913-3559
AYER BEAUTY SALON	978-772-6555
최희희헤어(Biss Image)	617-818-5596
헤어앤드그레이스살롱	508-879-7777

돌상 대여

해피돌상	617-583-2339
------	--------------

방송국

엔티비보스톤사업국	617-955-9112
-----------	--------------

변호사

김성식특허변호사/변리사	617-239-0839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김성근 변호사	781-438-6170
김성희 변호사	617-884-0002
김연진변호사	617-742-7707
박현중특허변호사	978-474-8880
성기주변호사	617-504-0609
스티브시 변호사(미인법)	203-852-9800
윌리엄드/엑커먼변호사	203-324-6155
장우석 변호사	781-712-1706
정선진변호사	617-230-0005
피터전변호사	203-386-0503
JOHN DOWNEY 법률사무소	647-964-5809
STEVEN S. KIM 변호사	617-879-9979
Joy Lee 변호사	617-624-0292
Young Lee Danesh	617-367-4949

병원

가정의	
그레이스 김 가정의	978-475-5656
내과	
송민근	617-696-7600
허버트뱅크(이재용)	617-421-2282
한서동내과	401-722-0305
산부인과	
최의웅산부인과	401-726-0600
이윤노산부인과	508-427-3000
소아과	
장경이 소아과	978-687-2119
심리상담	
배주은심리상담사	617-566-1055
심리상담	
사무라이	617-236-7672

김자향심리치료사	781-769-8670 x6080
양미아헤일리케어셀링	508-728-0832
임나경심리상담사	617-738-9622
재활의학	
가족물리치료병원	781-365-1876
닥터스통증병원	617-731-1004
성진우정추신경전문	978-688-6999
추 남남 D.C.	617-230-4250

치과

김동원치과	978-689-9363
김경주 치과	860-623-2601
브라이언윤치과	978-655-1583
신영목 치과	617-265-5606
안 치과	781-647-8000
엑셀패밀리덴탈	617-471-6970
이영원치과	508-987-8228
이오셉치과	781-431-7295
케임브리지덴탈	617-492-8210
케임브리지덴탈/뷰티	617-871-1482
퀸지스아치과	617-471-2184
아이코덴탈	978-459-0594
프록스팩트덴탈그룹	617-576-5300
한은애교정치과	781-894-1127
아미코덴탈	781-861-8978
ASHLAND FAMILY DENTAL	508-881-7272
장승혁보철임플란트	617-489-1470
전문치과	401-729-2711
기타	
메모리얼병원(병리)	203-330-8080

보석

▶광고 마감: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신문)▶수표 보내주소: Payable to: The Boston Korea 161 Harvard Ave, Suite 13 Allston, MA 02134

**사업의 시작은
이경혜 부동산**

Tel 800.867.9000
Cell 508.962.2689
email: kayleebrokers@aol.com
www.leebrokers.biz

알뜰 나눔터 안내

보스톤코리아는 2013년 5월 1일부터 새로운 알림광고 요금정책을 적용합니다. 보스톤 코리아 네이션 와이드 광고를 선택하시면 LA, 애틀란타, 뉴욕, 시카고, 애틀란타, 달라스, 시애틀 및 보스톤까지 총 미주 8개 지역의 오프라인 신문을 통해 광고를 동시에 내보내도록 합니다. 네이션 와이드의 광고는 총 5줄까지 가능하며 한 달 광고료는 \$50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N은 보스톤 지역 외 네이션 와이드 광고임을 알려 드립니다. 만약 보스톤 지역 광고만을 원하실 경우 한 달에 \$30입니다. 결제는 그레딧카드로 하실 수 있으며 개인수표 또는 머니 오더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신문 광고 마감은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보스톤코리아닷컴 광고는 신청 당일 업데이트 가능합니다.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사고 팔고

광고 문의 617-254-4654

**룸렌트 및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웨스트보로한국식당에서 일하실
웨이터 및 웨이추레스 구함.
T. 508-366-8898

중고 공업용 미싱 샵니다.
T. 781-595-9241

Nail Salon for Sale

8 Tables, 8 Chairs, 1 Bar
Price: \$300K
Location: Plymouth
T. 774-269-4361 (Kieth)

N[매매]
그린빌 SC에 위치한 식당 매매 합니다
아주 잘 되는 가게 입니다.
T. 864-380-5551

세탁소에서 운전 / 프레스 하실 분
각각 1명 구함.
T. 978-806-1881

N[구인]
플로리다지역 직슨빌
교포환영,숙소제공함
T. 770-712-3973

헤어 & 그레이스 살롱에서
미용사 및 네일텍 구함.
(플레밍햄 지역) T. 508-879-7777

장 음식 주문

- 김밥 및 떡 전문
- 생일잔치, 교회모임
- 돌, 회갑, 계모임 음식
- 대학교 파티, 결혼식
- 저렴한 가격
- 맛있고 풍부한 음식

Tel:781-648-0584

NAIL SALON for SALE

I'm looking to sell my nail salon and wedding salon. I'm looking for an owner that has the drive and the experience when they are taking over my salon. This is an excellent price location and busy in Newton Center.

PLEASE CONTACT:
Khim
978.327.8491

JEWELRY MANUFACTURING

Looking for experienced jewelers, wax injectors, mold makers and mold cutters.

Professional Environment
Great Pay

PLEASE CONTACT:
Roger 774.312.1277
Hrabc118@gmail.com

4989 부동산매매는
뉴스스타부동산
617-969-사구팔구
www.newstarrealty.com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엔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엔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bostonhanjin.com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한진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T: 617.782.2424 F: 617.782.2421

귀국이사 / 로컬이사 / 포워딩 / 택배 서비스

여권사진 / 이벤트 사진 / 영상 촬영 및 편집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 디지털 포토 & 포토샵 튜터링

Nabis Studio



'위대한 소원' B급 유머와 발칙한 성(性) 사이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영화 '위대한 소원'(감독 남대중)은 결론적으로 온전히 코미디 장르에 충실한 작품이다. 배우 류덕환, 김동영, 안재홍 세 사람의 호흡은 상상 그 이상이고 이들이 연기하는 세 캐릭터 모두가 각자의 개성을 갖고 있다. 예측할 수 없는 호흡에서 터지는 웃음과 완급 조절이 돋보이는 리듬감 있는 연출 역시 인상 깊은 지점이다. 신과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감상에 빠지지 않고 코미디 장르에 걸맞는 연출로 일관성 있게 밀어붙인 지점도 주목할 만하다

'위대한 소원'은 이 시점부터 쉴새없이 웃음 폭탄을 투척한다. 남준과 갑덕은 별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같은 학교 여학생들에게 "한 번만"이라고 부탁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욕과 폭력 뿐. 시작은 남준이 했으나 누구보다 의욕을 보이는 행동과 갑덕은 이 과정에서 뺄 수 없이 맞고 아버지(이한위 분)에게 오해를 받아 골프채로 두드려 맞기에 이른다. 이를 연기한 김동영과 안재홍의 진지한 열연이 웃음 포인트를 적립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이 영화는 투게릭 병을 앓는 고환(류덕환 분)의 사연으로 시작된다.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그에게 아버지(전노민 분)와 어머니(전미선 분)는 "하고 싶은 것 있어?"라고 물어보곤 한다. 하지만 혈기왕성한 고등학생인 고환에게는 여자와 관계를 갖는 것이 유일한 소원일 뿐이었다. 그런 그는 어릴 적부터 절친한 친구인 남준(김동영 분)과 갑덕(안재홍 분)에게 이 같은 소원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고, 남준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고환의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한다.

'위대한 소원'의 미덕은 작정하고 웃기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관객들의 허를 찌르며 기싸움에서 승기를 잡았다. 특히 영화를 보면 남대중 감독의 연출력과 류덕환, 김동영의 활약도 인상 깊지만 안재홍이라는 배우의 진가가 실감나게 다가온다. 인상 깊은 장면을 만들어내는 데는 안재홍의 역할이 컸다. 전작인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정봉이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자신의 개인성을 기반으로 캐릭터를 변주해 가는 변화가 흥미롭게 다가온다.

aluem_chang@news1.kr



'계춘할망' 김고은 "출연 계기? 시나리오 보고 평평 울었다"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배우 김고은이 '계춘할망' 출연 계기를 밝혔다. 김고은은 19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압구정에서 열린 영화 '계춘할망'(감독 장감독) 제작보고회에서 "처음에 초반에 제의를 받았을 때는 제목 때문에 할머니의 이야기라는 생각에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 그래서 망설였다"고 말했다.

김고은은 '계춘할망'에서 불량 손녀 헤지역을 맡았다. 헤지는 7세에 할머니와 헤어진 뒤 12년 만에 기적처럼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 19세 인물이다.

그는 이어 "시간이 지나서 다시 시나리오를 보게 됐는데 본 자리에서 평평 울고 하겠다고 연락을 드렸던 것 같다. 시나리오를 읽으면서 헤지의 감성과 감정이 직접 경험했던 감정선이어서 가장 공감이 됐다"고 털어

냈다. 한편 '계춘할망'은 12년의 과거를 숨긴 채 집으로 돌아온 수상한 손녀 헤지(김고은 분)와 오매불망 손녀마보 계춘할망(윤여정 분)의 이야기를 그린 가족 감동 드라마다. 배우 윤여정, 김고은, 김희원, 신은정, 양익준, 최민호, 류준열 등이 출연한다. 오는 5월19일 개봉.

aluem_chang@news1.kr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 재미 강화 포인트 3

(서울=뉴스1스타) 유수경 기자 = 형제는 대단했다. 조 루소, 안소니 루소 감독의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이하 '캡틴 아메리카3')가 강력한 웃음 폭격기가 되어 돌아왔다. 비수기 극장가에 갈증을 느낀 관객들에게 단비로 작용, 천만 영화도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아찔한 재미를 주는 '캡틴 아메리카3'의 3가지 요소를 짚어봤다.

▲수트부터 다른 업그레이드된 히어로

슈퍼히어로 영화에서 놓칠 수 없는 즐거움은 바로 수트다. '캡틴 아메리카3'에서는 업그레이드된 수트를 입은 히어로들을 만날 수 있다. 아이언맨은 손목에서부터 덧입혀지는 새 수트를 입고 윈터 솔저에 맞선다. 블랙 팬서의 새로운 수트도 이번엔 처음 등장한다. 날렵한 디자인에 아프리카 장식식이 더해진 수트가 흑표를 연상시킨다. 캡틴 아메리카 방패의 소재로 알려진 가상의 금속 비브라늄으로 만들어져 강철보다 가볍고 견고하다.

엔트맨, 호크아이, 팔콘, 스칼렛 위치 등 캐릭터들의 수트에도 변화가 생겼다. 엔트맨은 헬멧 케이블과 조절장치 버튼이 사라진 새로운 디자인의 수트가 생겼고 호크아이는 더 가볍고 사용하기 용이해진 활과 더불어 근거리 싸움에도 새로운 무기를 선보인다. 팔콘은 슬림해진 최첨단 스텔스 수트로 업그레이드됐으며 스칼렛 위치는 가족의상과 움직임이 쉬게 디자인된 코트를 착용했다.

▲더욱 풍성하고 섬세해진 액션

루소 감독은 전작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서 선상 격투나 엘리베이터 신 등 한정된 공간 안에서 펼쳐지는 격투로 동양미 넘치는 액션을 부각시켰다. 이번엔 좀 더 위험하고 기하학적인 슈퍼히어로 스타일의 대규모 액션을 보여준다. 스티븐 감독 샘 하그레이브와 액션 안무가 제임스 영은 각 캐릭터의 개성과 특징을 살린 것은 물론 영화 흐름까지 고려해 최고 액션을 고안해냈다. 배우들 역시 최상의 액션을 구현하기 위해 갖가지 무술을 익히며 신체를 단련했다.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를 위해 복싱, 파쿠르, 주짓수, 가라테는 물론 체조 트레이닝까지 받았던 크리스 에반스는 이번 영화를 위해 태권도와

유도를 추가로 익혔고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는 가까운 거리 공격에 유리한 중국 남파 무술 영춘권을, 블랙 팬서는 아프리카 기반의 브라질 무예 카포에라와 함께 쿵푸를 익혔다.

'캡틴 아메리카3' 전체를 압도하는 건 후반부 전투신이다. 이 장면만 4주 동안 준비했다. 마블 히어로 역사상 가장 중요한 장면으로 꼽히는 이 신에서 히어로들은 두 편으로 나뉘어 싸움을 벌인다. 한때 친구였고 동료였던 이들이 대의를 위해 대결하는 장면이 관객들에게 눈 뿜 수 없는 긴장감을 선사한다. 캐릭터들은 각자의 상황과 감정에 충실하며 완벽한 전투로 쾌감을 준다.

▲의외의 웃음 폭격 캐릭터-엔트맨 / 스파이더맨

'캡틴 아메리카3'는 멤버들 간의 전쟁을 담아낸 만큼 많은 히어로들이 등장해 스펙터클한 스토리와 액션을 선사한다. 캡틴 아메리카, 아이언맨, 블랙 위도우, 호크아이 등 기존 어벤저스들을 비롯해 비전, 스칼렛 위치, 워머신, 팔콘, 윈터 솔저, 여기에 새로 합류한 엔트맨, 블랙 팬서, 스파이더맨까지 총동원돼 팬들의 기대감을 높였다.

루소 형제는 "영화 속 등장인물들의 모든 조합을 생각해보고 잘 어울리는지 판단해 결정했다. 각 인물들이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안에서 어떤 일들을 겪어왔는지 추적했다"며 "관객들을 놀라게 하는 흥미로운 조합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의외의 웃음 폭격 캐릭터는 엔트맨과 스파이더맨이다. 엔트맨은 신체 크기를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으로 어떤 강한 적도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인물. 팔콘과의 인연으로 팀 캡틴에 합류한다. 갑작스런 영입을 혼란스러워 하면서도 기뻐하는 모습이 웃음을 준다. 이번 영화에선 자이언트 엔트맨의 모습도 볼 수 있다.

스파이더맨은 쉴 새 없는 수다 공세로 큰 웃음을 선사한다. 히어로들은 말 많고 들뜬 거미 소년의 등장에 허를 내두르며 "너 오늘 처음 싸워보냐?"고 묻는다. 다소 경망스러운 스파이더맨의 모습이 큰 재미를 선사한다.

uu84@news1.kr

한주간



시청률 순위

2016년 4월 11일 ~ 2016년 4월 17일

Nielsen Media TV 지상파 주간시청률

1	KBS2	공사창립특별기획(태양의후예)	36.8%
2	KBS1	일일연속극(우리집꿀단지)	26.5%
3	KBS2	주말연속극(아이가다섯)	26.4%
4	MBC	주말특별기획(결혼계약)	20.5%
5	KBS1	KBS9시뉴스	18.5%
6	KBS2	일일드라마(천상의약속)	18.3%
7	MBC	MBC아침드라마(내일도승리)	15.6%
8	MBC	무한도전	15.0%
9	MBC	주말드라마(가화만사성)	13.6%
10	MBC	일밤1부(미스터리음악쇼복면가왕)	13.5%

Tbo Play 주간시청률

1	KBS1	일일연속극(우리집꿀단지)
2	SBS	TV소설(내 마음의 꽃비)
3	SBS	아침일일연속극(내사위의여자)
4	KBS2	주말연속극(아이가다섯)
5	MBC	주말드라마(가화만사성)
6	MBC	주말특별기획(결혼계약)
7	SBS	주말드라마(그래그런거야)
8	MBC	MBC아침드라마(내일도승리)
9	MBC	일일특별기획(아름다운당신)
10	KBS2	일일드라마(천상의약속)

* 한국 TV KBS, MBC, SBS를 월 \$37.99에 볼 수 있는 티보 (617-955-9112) 지금 신청하세요!

한주간 흥행 차트 순위 10

01	봄이 좋냐??	10cm
02	Toy	블락비
03	사랑에 빠졌조 (당신만이)	장범준
04	넌 is 원들	마마무
05	시간을 달려서 (Rough)	여자친구
06	어디에도	엠씨더맥스
07	너도 (Feat. Cha Cha Malone)	로꼬
08	너는 나 너는 너	지코 (ZICO)
09	같은 곳에서	소녀온탑
10	썸타 (Li' Something)	첸 (CHEN)

숫자 퍼즐 (Sudoku)

	3			9		1	2
				3		4	
		1	7			3	9
				1		4	5
			2		3		
4	8		7				
5		6			1	7	
	9			8			
7	1		5				2

4월 24일 - 4월 30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문 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p>쥐띠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가</p> <p>●운수:막연한 걱정으로 망설이는 것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해보세요. 기대 이상의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금전:매매나 계약의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지금의 이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애정:부부가 화목하니 가정에 온기가 돌니다. 사귀고 있는 사람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84, 72, 60, 48, 36년생은 25, 28일 길일. 27, 30일 주의.</p>	<p>소띠 모든 일에는 순서가</p> <p>●운수:급하게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이니 때를 기다리세요. ●금전:최상의 경우만 생각하지 말고 최악의 경우도 생각해두어야 합니다. 미리 대비해두면 도리어 금전적으로 유리하게 풀릴 것입니다. ●애정:조금이라도 배려하고 사소한 것이라도 관심을 보여주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넨 것이 행복하게 해줍니다. 85, 73, 61, 49, 37년생은 24, 29일 길일. 28, 30일 주의.</p>	<p>범띠 여러모로 얻는 것이</p> <p>●운수: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세요. 대인관계로 인해서 여러모로 얻는 것이 클 것입니다. ●금전:큰돈을 벌 수 있는 찬스가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일이 척척 풀리고 금전적인 이익도 따라올 것입니다. ●애정:모든 것이 편안해지니 상대에게도 너그럽게 대하게 됩니다. 서로간의 대화도 잘 통할 것입니다. 86, 74, 62, 50, 38년생은 27, 30일 길일. 26, 28일 주의.</p>
<p>토끼띠 미루던 일을 해보도록</p> <p>●운수: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이나 미루던 일을 해보도록 하세요. 평소보다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기다리던 돈도 무난하게 들어올 것입니다. ●애정:힘들 때에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배우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부 사이가 돈독해질 수 있는 때입니다. 87, 75, 63, 51, 39, 27년생은 26, 27일 길일. 24, 30일 주의.</p>	<p>용띠 객관적이고 냉정한 눈으로</p> <p>●운수:내가 아는 가족의 모습과 다른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객관적이고 냉정한 눈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전:들어오는 수입에 비해서 과한 지출을 하지 않도록 하세요. 분위기에 휩쓸리면 주머니가 비게 됩니다. ●애정:하러면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형식적인 사과는 아예 하지 않는 편이 나올 수 있습니다. 88, 76, 64, 52, 40, 28년생은 24, 27일 길일. 25, 28일 주의.</p>	<p>뱀띠 희비가 교차하는</p> <p>●운수:가까운 사람으로 인해 희비가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누구 때문에는 기쁘고 웃을 일이 생기고 누구 때문에는 마음이 아프거나 슬픔이 있을 것입니다. ●금전:평소보다 소비가 늘어납니다. 특히 순간적인 기분이나 체면유지를 위해 지출하기 쉽습니다. ●애정:이성의 유혹이 따르는 때입니다. 차신을 잘하지 않으면 난처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89, 77, 65, 53, 41, 29년생은 25, 30일 길일. 24, 26일 주의.</p>
<p>말띠 자신의 삶에 약이</p> <p>●운수:당장 듣기 좋은 사탕발림 같은 말에 따라가지 마세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쓴 말에 귀를 기울여야 자신의 삶에 약이 되어줍니다. ●금전:길흉이 반반으로 뒤섞여서 오는 운세입니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비슷합니다. ●애정:사랑보다 정이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아니라는 생각이 되면 더 정이 들기 전에 단호하게 끊어야 합니다. 90, 78, 66, 54, 42, 30년생은 26, 29일 길일. 24, 27일 주의.</p>	<p>양띠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고</p> <p>●운수:막연히 잘 될 것이라는 확신만 가지고는 부족한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뭔가 조치가 필요합니다. ●금전:적당한 선에서 만족하고 넘어가세요. 과한 욕심을 내다가는 그나마 들어올 이득도 기대하기 힘들게 됩니다. ●애정:보고 싶지 않은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만나게 되더라도 가급적이면 길게 말을 섞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91, 79, 67, 55, 43, 31년생은 27, 30일 길일. 24, 25일 주의.</p>	<p>원숭이띠 먼저 깃발을 꽂는 자가</p> <p>●운수:부지런히 움직이세요. 어떤 일든 남보다 빨리 시작해서 먼저 깃발을 꽂는 자가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금전: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나가야 할 돈이 늘어날 것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 쓰게 되니 기분 좋게 지출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애정:사실 여부를 떠나서 우선 믿어주는 마음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고 서로가 편안해집니다. 92, 80, 68, 56, 44, 32년생은 24, 28일 길일. 26, 29일 주의.</p>
<p>닭띠 생각했던 것보다</p> <p>●운수:오래된 인연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 들 것입니다. ●금전:다시 한 번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동안 쌓아온 인맥의 힘으로 금전적인 이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애정:모든 것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세요.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생길 것입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25, 29일 길일. 24, 27일 주의.</p>	<p>개띠 급한 것부터 처리해야</p> <p>●운수:불미스러운 일을 피해하려면 가급적이면 일찍 귀가 하세요. 특히 밤늦은 시간에 외출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철저한 금전관리가 필요할 때입니다. 미리 계획을 세워서 급한 것부터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애정: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자신의 마음과는 다르게 자꾸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습이 들릴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26, 30일 길일. 25, 28일 주의.</p>	<p>돼지띠 시간을 두고 천천히</p> <p>●운수: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서투른 것이 문제가 됩니다. 소외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미리 대인관계에 신경 써야 하겠습니까. ●금전:현재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애정:한 번 굳게 닫아버린 마음의 문을 다시 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설득해야 하겠습니까. 95, 83, 71, 59, 47, 35년생은 24, 27일 길일. 26, 29일 주의.</p>

'신서유기2' 강호동, 옛날 사람과 '쭈빠찌에' 사이

(서울=뉴스1스타) 명희숙 기자 = 방송인 강호동이 '신서유기2'를 통해 유쾌한 웃음을 전하고 있다.

강호동은 지난 19일 첫 공개된 tvN go '신서유기2'에서 옛날사람과 엉뚱발랄 쭈빠찌에를 오가며 한층 업그레이드 된 활약을 펼쳤다.

강호동은 중국으로 떠나기 전 을왕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새 멤버인 안재현에게 초면부터 호구 조사를 시작해 '옛날 사람'의 진면모를 보여 웃음을 자아냈다.

또 '지구의 모든 인류가 강호동과 같은 수준이라면 어디까지 발전했을까'라고 엉뚱한 상상을 털어놓는다면 손오공을 뽑는 자리에서 깨끗하게 본인은 저팔계라고 우기는 등 엉뚱발랄한 '쭈빠찌에'의 귀여운 매력을 발산하기도 했다.

강호동은 '신서유기2'에서 '옛날 사람' 캐릭터부터 엉뚱발랄 '쭈빠찌에'까지 다양한 활약을 펼쳤고, 기존의 멤버들은 물론 새롭게 합류한 멤버와의 신선한 케미를 전하며 앞으로의 에피소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reddgreen35@news1.kr



'무한도전' 젝스키스, 고지용과 만남 성사

(서울=뉴스1스타) 장아름 기자 = '무한도전'에서 젝스키스 멤버들의 일상 생활이 공개된다.

90년대 원조 아이돌 젝스키스는 지난 16일 오후 6시25분 방송된 MBC '무한도전'의 '토토가2 젝스키스' 편을 통해 16년 만에 다함께 출연한 모습으로 관심을 받았다.

이번 주 방송에서는 유재석이 해체 이후 방송계를 떠나 평범한 회사원 생활을 하고 있는 젝스키스 멤버 고지용을 만나 그동안의 근황을 물어볼 예정이다. 특히 16년 만에 처음 만난 고지용과 은지원, 이재진은 어색함도 잠시

, 활동 당시 순간들을 떠올리며 추억 토크를 이어갔다는 후문이다.

한편 '무한도전' 멤버들도 복고의상과 PCS폰, 삐삐 등으로 1997년 당시 모습을 재현한 채, 고속도로 휴게소, 용인 민속촌을 찾아 플랜B인 즉흥공연 '하나하나 행사'를 진행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멤버들의 열정적인 춤에 시민들은 박수갈채를 보냈다고 한다.

'토토가2 젝스키스' 그 두 번째 이야기는 오는 23일 오후 6시20분 방송된다.

aluem_chang@news1.kr

'비밀보장' 박나래 · 안영미, 돌직구+19금 토크 '화끈한 웃음'

(서울=뉴스1스타) 이경남 기자 = 박나래와 안영미가 '송은이·김숙의 비밀보장' 지원 사격에 나섰다.

박나래와 안영미는 최근 진행된 '송은이·김숙의 비밀보장' 53회 녹화에서 '가슴이 벌렁벌렁, 연애 사연 특집편'에 후두염 진단 후 휴식을 취하고 있는 김숙을 대신해 일일 DJ로 나섰다.

이날 박나래와 안영미는 짝사랑하는 약국 오빠에게 고백하는 방법, 헤어지진 연인과 다시 잘해보고 싶다는 사연 등에 솔직한 돌직구 연애 상담으로 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19금 개그'의 대표 아이콘인 박나래와 안영미는 방송과 비방송의 경계

를 넘나드는 아슬아슬한 토크를 이어 나가 제작진들이 편집에 진땀을 흘렸다.

한편 박나래와 안영미가 일일 DJ로 나선 '송은이·김숙의 비밀보장' 53회는 20일 오후 1시 비트 앱을 통해서 만날 수 있다.

lee1220@news1.kr



New name for &TV

TBO PLAY RATINGS

티보 시청률

TBO Play는 한국 방송 및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정식 라이선스를 받아 북미지역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판따라' 헤리, 두 번째 인생작 기대 할게요

(서울=뉴스1스타) 김유진 기자 = 헤리가 '판따라'로 제2의 인생작을 노린다.

헤리는 첫 방송되는 SBS 새 수목드라마 '판따라'(극본 유영아/연출 홍성창 이광영)에서 그린 역으로 등장해 열연을 펼칠 예정이다.

헤리에게 '판따라'는 중요한 도전작이다. 지상파에서의 첫 메인 주연으로서 극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과 더불어 '응답하라 1988'(이하 응팔)을 통해 큰 사랑을 받은 이후의 첫 작품인 만큼 시청자들의 기대도 남다르다.

이번에 맡은 그린 역은 홀로 동생을 키우기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긍정 캐릭터다. 지성(신석호 역)의 눈에 띈 동생 강민혁(하늘 역)이 밴드 보컬을 맡게 된 후에는 매니저로 활약한다.

함께 호흡을 맞춘 지성의 칭찬도 이어졌다. 그는 "헤리의 연기를 보면서 '나도 저 나이에 저렇게 했었나'하는 생각을 했다"며 "헤리가 눈물 연기를 하는데 내 눈에서도 눈물이 쏟아지더라. 좋은 캐릭터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연기력을 극찬했다.



헤리의 첫 번째 인생작인 '응팔'은 케이블 드라마 역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다. 단란한 가족애와 이웃간의 따뜻한 정이 가득한 작품에 탄탄한 스토리를 완성했고 꾸준히 인기를 끌었다.

'판따라' 역시 매력적인 내용으로 제2의 인생작 탄생을 기대해볼만 하다. 가장으로 나

선 헤리의 든든한 모습과 꿈을 이루는 이야기, 귀에 감기는 좋은 노래들이 버무려졌고 여기에 헤리와 지성의 케미가 더해져 완벽을 이뤘다. '응팔'을 통해 연기력을 증명했다면 이번 다양한 가능성을 증명해 '믿고 보는 배우' 헤리로 거듭날 차례다.

oodinee@news1.kr

티보플레이 4월 2째주 시청률 BEST10

- | | | |
|----|-----|----------------|
| 1 | KBS | 우리집 꿀단지 |
| 2 | KBS | TV소설(내 마음의 꽃비) |
| 3 | SBS | 내 사위의 여자 |
| 4 | KBS | 아이가 다섯 |
| 5 | MBC | 가화만사성 |
| 6 | MBC | 결혼계약 |
| 7 | MBC | 그래그런거야 |
| 8 | MBC | 내일도 승리 |
| 9 | MBC | 아름다운 당신 |
| 10 | SBS | 천상의 약속 |

티보플레이 4월 2째주 신규 방송

- | | | |
|---|-----|---------|
| 1 | SBS | 판타스틱 듀오 |
|---|-----|---------|

티보플레이 4월 2째주 최신 영화

- | | | |
|---|----|---------|
| 1 | 귀향 | 강하나, 손숙 |
|---|----|---------|

'판타스틱 듀오' 김영욱 PD "엑소X남진 무대 꿈꾼다"

(서울=뉴스1스타) 김유진 기자 = '판타스틱 듀오' 김영욱 PD가 프로그램 기획 의도를 밝혔다.

SBS 김영욱 PD는 11일 오후 1시30분 서울 양천구 목동 모처에서 열린 SBS '판타스틱 듀오' 기자간담회에서 프로그램에 대해 "대중음악의 소비 구조를 보면 세대별 소통이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가요무대'를 보는 연령층은 '인기가요'를 보지 않는다. 하지만 히트곡을 바탕으로 가수를 섭외하면 넓은 연령대의 시청자들이 함께 시청할 수 있지 않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이번주 녹화에 남진이 출연하기로 했다. 우리가 희망하는 것은 남진과 엑소가 한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라며 "조카와 부모님이 함께 프로그램을 보면서 조카들은 남진을, 부모님은 엑소를 알게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다"고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한편 '판타스틱 듀오'는 휴대폰을 통해 가수와 듀엣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가수와 듀오로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쌍방향 소통의 음악 예능 프로그램이다.

oodinee@news1.kr



TBO PLAY

보스톤권 지역 MA, RI, NH 지역 공식 딜러

내가 보고 싶은 한국방송 · 영화를 원하는 시간에 고화질로 즐기세요

무제한 시청 월: **\$39.99**

이동 고객 특별 할인

타 방송사에서 티보 플레이로 갈아 타시는 분에 한해 월 \$30도 특별 우대해 드립니다

KBS, MBC, SBS, SBS Plus, tvN, XTV, Mnet, O'live, OCN

The Best Underworld, TBO

이정선 부동산

kw BOSTON-METRO KELLERWILLIAMS.

CHUNG S. LEE

Mobile: 781.883.5984
Office: 617.535.7851
Fax: 617.542.0016
chunglee7@gmail.com
chunglee.kwrealty.com

607 Boylston Street, Suit 500
Boston, MA 02116



Premier Realty Group



나원태 Realtor
Direct: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제이슨 전 Realtor
Direct: 617.642.5670
jason@bostonpremierrealty.com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LISTINGS

- 1. Full Plant 플랜트 : 백싱턴에 위치, 부동산 포함 \$1,399M **SOLD**
- 2. Full Plant 세막소 : Marlborough 좋은 위치, Asking \$65,000
- 3. Full Plant 세막소 : 보스턴 북부 인근, Asking \$150,000
- 중매** 4. Full Plant 세막소 : Tewksbury 큰 Mall 안에 위치, 넓은 주차공간, Asking \$30,000
- 6. 드림오피 스토어 : Sharon에 위치, \$40,000
- 8. 드림오피 스토어 : Norwell에 위치, \$20,000
- 7. 보스턴 인근 아파트 : Asking \$225,000 **SALE PENDING**
- 6. 오피스 : 701 Hammond St, Unit 2, Brookline \$6,498 **RENTED**
- 9. Single family : 22 Wilson park, Wellesley **SOLD**
- 10. Condo : 20 Hoerner st, Unit 1, Watertown **SOLD**
- 11. Multi family : 23-25 Baker St., Belmont **SOLD**
- 12. 미발 식물 : Allston **SOLD**
- 13. Single Family : 4 Bed, 2 Full Bath, 2,130 SF, 64 Oak St, Newton **SALE PENDING**

NEW LISTINGS



콘도
47 Homer Ave, Unit F-3
Cambridge, 2Bed 1Bath 1bedding
좋은 위치, 하버드 스쿨에서 페스로 10분,
Asking **\$429,000**



델리&컨비니언스
좋은위치 성업중
Asking **\$120,000**



일식당
Beer and wine 포함
Lawrence 지역,
좋은위치
Asking **\$230,000**



컨비니언스 스토어
Cambridge에 위치
Asking **\$140,000**



비즈니스 콘도
Brookline
현대 세탁소영업중,
좋은 렌트수입
Asking **\$519,000**

나원태: 617.642.3156
제이슨전: 617.642.5670

신영의 **세상 스케치**

543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러너 패스포트(Runner Passport)!!

120회를 맞은 2016 보스톤 마라톤 대회가 4월 18일에 열렸다. 무엇보다도 이번 대회를 돋보이게 한 것은 2013년 보스톤 마라톤 테러로 부상을 당했던 31명이 참가했다는 것이다. 참으로 가슴 뭉클한 일이 아닌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좌절이나 낙담으로 나오자가 되지 않고 자신을 더욱이 훈련하고 노력해 그 상처를 딛고 당당한 모습으로 우뚝 선 것이다. 참으로 감동적인 일이다. 아니, 어쩌면 지금의 현실로 힘들다고 버겁다고 나 자신을 탓하기보다 주변의 것들을 들춰 닦았던 모습에 부끄럽기까지 한 것이다. 이렇듯 삶의 겸손한 마음과 태도를 또 일깨워주는 시간이었다.

몇 년 전부터 보스톤 마라톤의 이모저모 사진을 담으러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3년 보스톤 마라톤 테러 현장에 사진을 담으러 갔다가 그 자리에 있었던 내게 남편과 가족은 적잖은 충격을 가했었다. 그 후 지난해와 올해는 가지 않았으면 하고 눈치를 주는 것이다. 하지만 어찌 그렇다고 하고 싶은 일을 멈출 수 있겠는가. 며칠 전부터 텔레비전 뉴스와 라디오 뉴스에서 계속 테러방지 강화와 함께 많은 경찰병력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더욱이 이번 대회에서는 테러 방지용 센서를 단 폭탄 디텍팅 헬리콥터(Bomb detecting helicopter)를 띄운다는 것이다.

사실 이번 2016 보스톤 마라톤에는 망설임이 없지 않아 있었다. 남편에게는 애길 안 했었지만, 은근히 마음에 부담된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지난 가을부터 준비했던 터키(이스탄불 등) 여행을 지난 3월에 취소하고 말았다. 아무래도 여행하기에 터키 내에서의 내전과 시끄러움이 발목을 잡고 말았기 때문이다. 아쉬움이 있긴 했지만, 남편과 세 아이가 터키 여행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나은 것이라는 가족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다. 그래서 미국인들과 함께 떠나려 했던 터키 여행은 그 나라의 사정으로 미국 여행사에서 예약했던 금액의 크리딧을 돌려받을 수가 있었다.

미국마저도 이제는 자유로운 나라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라가 되어가는 것이다. 한국을 방문해 돌아오는 길이나 다른 나라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세관을 통과할 때에 예전과는 너무도 다른 검열과 검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911 테러 이후 더욱 강화되었고 또한 그 이후 보스톤 마라톤 테

러 이후에는 더욱이 강화되었음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다. 그 테러로 부상을 당한 당사자와 가족을 잃은 아픔과 상처로 있을 유가족의 마음에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이 드는 것이다. 이 모든 검사가 당연한 것임을 알면서도 점점 자유로운 공간의 상실이 마음 아픈 것이다.

그 어디에도 이제는 안전한 곳이 없다는 사실과 평화의 공간이 사라져 간다는 상실에 가슴이 아픈 것이다. 무엇인가 검열을 위한 통과와 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벽의 두께는 두꺼워지는 것이고 그 담의 높이는 높아만 진다는 것이다. 어쩌면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 낸 두꺼운 벽과 높은 담일 것이다. 그것은 바로 그 담에 나 자신이 갇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일이다.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다. 그 해결의 방법은 무엇이며, 또한 그 해결을 위한 답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평평 터지는 테러 앞에서 움츠러들 수만 없지 않겠는가.

이제는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다. 이번 120회를 맞은 2016 보스톤 마라톤 대회에서도 마라톤 참가자들에게 러너 패스포트(Runner Passport)가 전달된 것이다. 이것은 그동안

에는 없었던 새로운 일이다. 보스톤 육상 협회(Boston Athletic Association)에서 테러 이후에 참가자들에게까지 검문검색이 강화된 이유로 시작된 새로운 것이다. 지금은 그 어떤 강화의 요소들이나 제재들에 대해 불편함으로 인해 불평이나 불만이 있을 수 없다. 다만 자유주의 국가에서의 평화와 자유의 상실이 참으로 가슴 아플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 개개인은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진정 우리는 이 어려운 세계 각처에서 일어나는 테러로부터의 위협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그저 어디에서 어떤 테러가 일어났으니 그곳을 피하는 것만이 능사인가. 그저 내 집과 내 직장만 오고 가면 제일 안전한가. 그렇다면 내 가족은 또 내 조국은 정말 생각과 생각의 이어진 꼬리를 따라가 보면 참으로 막막하다. 하지만 이번 2016 보스톤 마라톤 대회에서 느낀 것이 있다면 바로 자신의 자리에서 하던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 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3년 보스톤 마라톤 테러로 부상을 당했던 31명이 이번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는 것으로 이유와 답은 충분하다.



한담객설閑談客說: 봄이 부서지다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벌써 4월하고도 중순을 지나고 있다. 올봄은 유난히 반갑다. 4월의 눈 속에서도 봄이 되살아났기 때문일게다. 모두 봄을 즐기시는지, 독자제위의 안부를 묻는다.

김포공항으로 출몰하던 시절이다. 공항에 내리면 찌르는 매연냄새가 났다. 코가 아플 지경이었다. 보스톤 로간공항에 내리면 같은 냄새가 난다. 그 시절, 서울로 출장가면서 시내호텔에 묵었다. 일은 오후에 있었다. 동행한 동료가 꼬였는데, 등산을 가잔다. 택시운전사에게 부탁했다. 관악산 입구까지 데려다 달라했다. 등산복장은 가관이였다. 구두에 셔츠차림이었고, 양복 윗도리는 걸치지 않는었다. 서울대 입구가 등정의 출발선이였다. 완전 정복은 불가능한바, 포장된 길을 따라 산보하듯 올라가리

라 했다. 막걸리집이 있다면 쉬어서 가기로 했던 거다. 꽤 높이 올라갔다. 그런데, 뭔가 달랐다. 숨쉬기에 가슴이 뚫린 듯 했으니 말이다. 그제야 이른 아침 내집 근처 공원 공기냄새가 났던 거다. 아, 신선한 공기내음이라니.

이젠 서울의 공기도 깨끗해 졌다. 하지만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가 봄이면 걱정이란 다. 중국에선 별걸 다 날려 보내는데, 여전히 맑은 공기를 마시기는 쉽지 않은 거다. 그래도 서울은 북경에 비하면 살기에 천국이라한다. 먹거리도, 볼거리도, 교통도 모든것이 서울이 우세하다는 거다. 특히 공기가 청정하기는 북경은 애초에 비교할 수 없단다. 그런 서울에서도 뒷골목엔 여전히 퀴퀴한 냄새가 난다. 보스톤 다운타운에서도 같은 냄새가 난다.

때아닌 눈이 덮쳤더랬다. 얼었던 눈이 녹았다. 먹구름이 밀려 갔고, 푸른 하늘이 멀리 펼쳐졌다. 봄날 오후 햇살이 젖은 공기 방울을 끌어 올렸다. 툭하고 부러질듯, 햇빛에서 마르는 냄새가 난다. 젖었던 목련의 향내가 또 풍겨 올 거다. 하지만 어떻게 어렵게 온 봄이 부서질까 두렵다 했다. 조근조근 속삭이는데, 언제 다시 부서질지 은근히 걱정인게다. 이번엔 때 이른 여름때문에 부서질 것인가?

봄이 부서질까봐
조심조심 속삭였다
아무도 모르게 작은 소리로
(최하림, 봄, 2016년 봄, 광화문 글판)

우리동네는 촌이다. 시티도 아닌, 타운이다.

시市도 아닌것이 아직도 우리 읍邑인 게다. 그런 우리 읍내 거리엔 바람도 없어, 햇빛만 내리 쏘인다. 아까워라. 청정한 봄 햇빛과 공기냄새. 햇빛냄새가 바스라 지고, 햇빛이 튕겨져 올라 부서진다. 부서지는 햇빛은 오랜 시간 기다렸으니 맑은 공기속에 더욱 반갑다. 겨우내 공기도 햇빛도 얼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야 녹아 내린듯 싶다.

기회가 닿는다면 미니트맨 트레일을 한번 걸어 보시라. 그리고 깊이 심호흡 하시라. 봄내음 가득한 시골을 즐기시라. 이 트레일은 사시사철 즐길만 하다. 보스톤의 봄은 무지 짧은 데니, 봄도 곧 부서질 게다.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윤기 8:16)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 안내

“경쟁과 속도로부터 해방되거나 아니면 세상 안에 있는 새처럼 갇혀있지 말고 자유로운 생각으로 날개를 펴보십시오. 어둡거나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계기의 창을 열고 나설 때, 자기가 찾는 이상의 세계가 보일 것입니다.”
- 문수사 회주 도범 스님, “구도자의 말자취” 중에서



불기 2560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봉축법회: 불기 2560년 (2016년) **5월 14일 토요일***

(*올해 봉축법요식은 토요일에 열립니다.)

제1부 오전 11시: 봉축 법회

제2부: 관불의식

특별행사: 오후 2시 이후, 장수촬영(영정사진촬영).

장소: 문수사 큰법당, 231 Salem Street, Wakefield, MA 01880

문의: (781) 224-0670, (781) 439-8383

* 연등접수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주지 스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781) 439-8383 입니다.

* 행사 당일 라이드가 필요하시면 문수사로 연락바랍니다.

*찾아오시는 길: I-95 North Exit 42로 나오신 후, 바로 Salem St으로 우회전, 약 150 미터 전방에서 Gst station의 왼쪽길로 직진후 약 200미터를 더 오시면 갈라지는 길에서 오른쪽에 문수사 표지를 보실수 있습니다. I-95 South Exit 42로 나오실때는 Exit 직후 좌회전하신뒤 Salem St에서 우회전하시면 됩니다.

문수사는 모든분께 열려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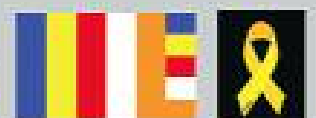
정기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00시, 요가: 화/목요일 저녁 7:30-9:00시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불자님과 함께하시길...

회주 도범스님
주지 혜각스님

MUNSUSA TEMPLE
사건스리유기이원단도당





독자기고
김철

북미대륙 인디언의 역사 14. 제로니모와 나바호의 천리 길 (2)

망가스의 죽음

미군들이 전보다 더 극성스레 아파치족들을 찾아내어서 죽이는 일이 많아짐에 따라 노 추장 망가스는 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군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맺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밀물처럼 몰려오는 백인의 숫자와 가공할 힘을 자랑하는 대포에 맞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돌아가고 있는 시대의 흐름을 노 추장은 읽은 것이다. 그러던 참에 미군들이 평화회담을 갖자고 전갈을 보내왔다. 전에도 여러 번 미군들에게 속은 적이 있기 때문에 부하들은 망가스가 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1863년 1월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적진으로 혼자서 말을 타고 들어갔다.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대로 미군들은 망가스를 포로로 바로 잡아서는 맥린 요새(Fort McLean)로 이송해 버렸다. 그 요새에 있던 웨스트(Joseph West) 장군은 보조병들에게 망가스를 처치해 버릴 것을 간접적으로 지시하였고 보조병들은 밤새 못된 고문을 하다가 총살시켜버렸다.

망가스 시체에 대해서는 엽기적인 만행을 저질렀다. 머리를 잘라내어 물에 끓여 해골만 추려내었다고 한다. 일설에는 그 해골을 워싱턴에 있는 스미소니언박물관으로 보냈다고 하는데 확인된 바는 없다. 이제 배신을 식은 죽 먹듯 해대는 백인에 대한 아파치의 적개심은 극에 달하였다. 아파치 전사들은 닥치는 대로 백인들을 공격하여 약탈하고 살해하였다. 남서부 지역의 백인들은 아파치 공포에 휩싸였

다.

1차 아도베 월 전투(First Battle of Adobe Walls)

아파치와 백인 간의 상호 불신은 점점 짙어지고 증오심과 복수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과정에서 산타페 트레일을 지나는 포장마차 행렬을 인디언들이 자주 습격하였다. 남북전쟁이 발발하면서 정규 군인들은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주로 동부로 차출돼 가는 바람에 서부에서는 인디언과의 전쟁에 자원병부대가 많이 동원되었다. 이러한 백인 측의 전력 약화를 인디언들은 백인에 대한 공격의 호기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에 칼턴은 미군의 전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실력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인디언마을을 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작전 책임자로 킷 카슨 대령(Christopher Carson)을 선택했다. 공격 대상은 텍사스 서북부 캐나다인 강 북쪽 연안의 남부 평원에 있는 아도베 월로 정했다. 아도베 월에는 카이오와(Kiowa), 코만치(Comanche) 그리고 평원 아파치(Plains Apache)족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드디어 1864년 11월 10일 기병 260명, 보병 75명 그리고 유티족(Ute)과 히카릴라 아파치(Jicarilla Apache) 출신 용병 72명을 이끌고 카슨은 텍사스 주 바로 너머 뉴멕시코에 있던 베스컴 요새(Fort Bascom)를 출발했다. 두 문의 대형 대포, 27대의 짐마차, 한 대의 구급마차 그리고

15일분의 식량을 함께 가져갔다. 그들은 캐나다인 강 남쪽 길을 따라 동쪽으로 진군해갔다. 때 이른 폭설로 진군 속도가 늦어져 11월 24일 에야 아도베 월 서쪽 약 50km 지점에 도착했다. 이 날 오후 미군의 정찰병들이 대규모 인디언 거주지 흔적을 발견하였다고 보고해왔다. 보급품을 실은 마차를 보호하도록 보병을 거기에 남겨두고 기병대와 대포를 이끌고 밤중에 아도베 월로 접근해갔다.

다음날 아침 기병대 1개 중대는 강을 건너 북쪽으로 배치했다. 11월 25일 동튼 지 두어 시간쯤 지난 뒤 176개의 천막(teepee)으로 구성된 코만치 인디언마을에 공격을 개시하였다. 인근에 살던 카이오와 인디언과 평원 아파치족 전사들도 백인들의 공격 소식을 듣고는 코만치 마을로 급히 달려왔다. 카슨은 당초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디언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미군 측의 믿음만 한 보고서에 의하면 1200에서 1400명 가량의 전사가 있었던 반면 미군측은 인디언 용병을 합하여도 330명에 불과했다. 전투는 대 혼전에 빠졌는데, 흰곰(White Bear)이라고 불리는 사탄타(Satanta) 카이오와 전투추장은 미군이 이용하는 전투 지휘용 나팔을 일부러 헛갈리게 불어서 혼란을 야기했다고 한다. 약 일곱 시간 만에 걸친 전투를 치른 뒤 카슨은 미군의 대포용 포탄과 소총실탄이 거의 소진되어 더 이상 전투 수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후퇴하기로 결정했다. 인디언들은 이들의 퇴로를 차

단하기 위하여 마른 풀밭에 불을 질렀다. 그러나 미군측이 맞불을 놓아서 인디언의 추격을 따돌리고 병참부대가 대기하고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이 전투에서 미군측은 일곱 명이 사망하고 약 3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인디언 측에서는 약 6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미군과 인디언은 서로 자기네가 이 전투에서 승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카슨이 적절한 타이밍에 퇴각하기로 결정한 일은 칭찬받을 만한 일로 평가되고 있다. 무턱대고 공격을 계속했다면 미군보다 몇 배나 많은 인디언들한테 크게 패하여 뒷날 리틀 빅혼강 전투에서 전멸을 당한 카스터와 같은 운명에 빠질 뻔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랜트 요새 대학살

약탈과 응징과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온건한 아파치족들은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고 미군의 정책에 순응하며 평화롭게 살기를 원했다. 그랜트 요새(Fort Grant)에 근무하고 있는 휘트먼(Royal Emerson Whitman)중위가 인디언들에게 잘 해준다는 소문이 퍼져 하나둘씩 평화롭게 살기를 희망하는 피날(Pinal)과 아라바이파(Aravaipa) 아파치족 등이 모여들기 시작하여 요새 인근의 아라바이파 강가에 500명이 거주하는 큰 마을을 이루었다.

(다음 호에 계속)



화랑도(花郎徒)와 성(性) 그리고 태권도(跆拳道) 127 화랑세기花郎世紀, 2세 풍월주風月主 미진부공未珍夫公(5)

박선우 (박선우태권도장 관장)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미인이며 또한 가장 색사色事(음사陰事)를 잘 했던 여인 중의 한 명으로 전해지는 미실美室, 그는 세 명의 왕과 태자 그리고 왕족들에게 색공色供을 하였다. 미실은 제24대 진흥왕과 그의 맏아들 동륜태자, 진흥왕의 둘째 아들 동륜의 동생인 제25대 진지왕(김금륜), 동륜태자의 아들인 제26대 진평왕(김백정) 등 할아버지, 아들, 손자에 이르는 3대에 걸쳐 색공을 한 우리나라 역사상 유일무이한 여인이다. 신국 신라의 색공은 단순한 성관계나 에로티시즘(Eroticism)이 아니라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여자를 바치는 일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고도의 정치행위였다. 여기서는 그가 일생을 통해 바친 색공을 간단히 살펴보고, 구체적인 내용은 그가 정치적으로 실권을 잡았던 당시, 관계한 인물들과의 연결고리를 풀면서 당대 최고의 미인은 어떻게 음사를 하였으며 무엇을 얻었는가를 따라가 본다.

미실의 아버지는 2세 풍월주 미진부공이고, 어머니는 묘도부인이다. 미실의 생존연대는 정확하지 않다. 다만 주위 사람들의 기록 등을 종합 해보면 546년에서 550년 사이에 태어

나서 619년에서 622년 사이에 죽었다. 화랑세기에서 묘사한 미실의 외모는 “용모가 절묘하여 풍후함은 옥진玉珍(외할머니, 묘도의 어머니)을 닮았고, 환하게 밝음은 벽화(할머니 삼엽공주의 어머니)를 닮았고, 빼어나게 아름다움은 오도(외할머니 옥진의 어머니)를 닮아서 백화百花의 신묘함을 뭉쳤고, 세 가지 아름다움의 정수를 모았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옥진은 박영실의 부인이었는데 너무나 아름다워서 법흥왕이 후궁으로 삼았다. 그리고 자신의 딸 지소를 박영실과 혼인시켰다. 그리고 할머니의 어머니 벽화부인은 오지奧地 날이 군捺已郡(현 경북 영주)에 살던 파로의 딸이었는데 비처왕(소지왕, 제21대왕)이 그녀의 미모에 반해 정사를 제쳐두고 평민의 복장으로 몇 번을 찾아가곤 하다가 궁으로 데려와서 후궁으로 삼았다. 그리고 제22대 지증왕이 왕위에 오르면서 법흥의 후궁이 되었다. 그리고 오도는 외할머니 옥진의 어머니인데 그녀 또한 당대 최고의 미인 중의 한 명이었다. 그녀도 법흥의 후궁이었다가 위화랑에게로 가서 옥진을 낳았고, 다시 아사공, 즉 미실의 할아버지의 후처가 되었다. 이렇듯 미실은 당시 신라 최고 미인들의 ‘피’ 를 양쪽 부모로부터 받고 태어났으니 아름답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래서 외할머니 옥진은 미실이 어릴 때부터 “이 아이는 우리의 도道を 일으킬 만하다” 라고 말하며 옆에서 떠나지 못하게 하면서 미도媚道(교태를 부리는 방법)와 가무를 가르쳤다. 이는 물론 색공을 위한 교육이었다. 이렇게 색공교육을 받은 미실은 평생 수많은 남자들과 관계를 하였다. 그렇지만 신국神國 신라의 도道인 일부일처의 원칙에 따라 미실도 남편은 있었다. 지소태후의 아들인 세종世宗과 혼인하였다. 미실은 남편 세종과 처음 성 관계를 하였고, 평생 그를 남편으로 삼았다. 세종의 어머니 지소태후(제23대 법흥왕과 보도왕후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삼촌인 임종갈 문왕과 결혼하여 진흥왕을 낳았다)는 진골정통이기에 대원신통인 미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종이 미실을 너무나 사랑하였기에 임궁시켰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상통하였다. 이 무렵 지소태후는 진흥왕의 왕비인 사도왕후(대원신통)를 폐하고 자신의 딸이자 세종의 누이인 숙명을 왕비로 삼으려고 했다. 이러한 사정을 미실이 이모인 사도왕후에게 고했고, 지소태후는 노하여 미실을 출궁시켰다.

출궁한 미실은 사다함과 서로 사랑을 나누었다. 세속오계를 실천하는 화랑의 표상으로

역사속에 빛나는 사다함의 용맹성은 561년 반란을 일으킨 가야를 진압할 때도 나타났다. 미실은 그들의 사랑을 다짐하고 그의 출정을 위로하기 위해 ‘풍랑가風浪歌’ 를 들려주었다. 이 노래가 화랑세기에 전하는 신라의 향가 두 수 중의 하나이다. 한편 미실을 잃어버린 세종의 나날은 괴로움의 연속이었다. 그래서 지소태후가 아들 세종의 ‘상사병’ 을 염려하여 미실을 다시 임궁시켜 세종의 부인으로 삼았다. 임금을 위하여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양장용졸’ 의 정신으로 반란군을 진압하고 월성으로 돌아온 사다함, 사랑하는 미실은 이미 다른 사람의 부인이 되어 있었다. 그는 ‘청조가靑鳥歌’ 를 지어 부르면서 슬픈 심경을 달랬다. 이 노래가 화랑세기에 전하는 또 다른 한 수의 향가이다. 미실의 색공 이야기는 계속된다.

참고문헌: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사절요, 화랑세기 - 신라인 그들의 이야기(김대문 저), 이종욱 역주해, 소나무), 화랑세기 - 또 하나의 신라(김태식, 김영사), 신라속의 사랑 사랑속의 신라(김덕원과 신라사학회, 경인문화사)



쌀쌀한 가을을 보내기 위한 필수품!

가족들에게
앤티비를 선물하세요!

하루 \$1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아직도 불법 다운로드 하세요?

아직도 비디오를 빌리세요?

합법적인 앤티비를 적극 추천합니다!

지금바로 전화주세요! 617.955.9112 / 617.254.4654



양미아의 심리치료 현장에서

양 미아 Licensed Psychotherapist

Private Practice: 1330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37 Fruit St. Worcester, MA 01609,
508-728-0832
yeungmiaj@gmail.com

'남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내 떡, 자랑하면 안 되는 걸까?' (4)
-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VII -

지난 칼럼을 통해, 나르시시즘의 두 형태인 'Grandiose Narcissism(과장된 나르시시즘)' 과 'Vulnerable narcissism(민감한 나르시시즘)'을 소개하였다. 힐러리의 걸음으로 드러난 자신감, 카리스마, 감동을 주는 언변 등의 모습은 그녀가 '과장된 나르시시즘'에 가깝다는 결론을 쉽게 내리게 하지만, 안에 갖고 있는 힐러리의 나르시시즘에 대한 필자의 견해가 다소 주관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점에 양해를 구한다.

힐러리의 나르시시즘의 형성은 그녀의 어머니, 도로시의 '오독이' 성품(Character)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성품이란 '긍정적인 삶을 향한 자기암시의 열쇠'이다. 즉, '성품이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결론을 감히 필자는 주장한다. 사람의 성품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언제 고착이 되는가에 대해 다소 다른 견해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성품이 환경에 의해 변화한다고 생각하지만, 성격(Personality)과 성품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 성격은 환경에 의해 변화한다. 예로, 학교 다닐 때 조용한 성격의 동창생이 이십년 후 졸업동창회 모임에 나왔을 때 호탕하고 자신만만한 성격으로 변화하였음을 보는 경험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라는 말처럼 성품은 변화하기가 힘들다. 성품은 타고난 사람의 기질, 천성(Nature)을 바탕으로, 태어나서 6-8세까지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 '사회성, 질서, 권위, 양심, 도덕성, 윤리성, 규범, 사랑, 자애' 등의 인격형성을 통해 자신의 성품을 형성하는 것이다.

힐러리 어머니 도로시는 태어나서부터 부모의 끊임없는 가정폭력을 경험했고, 부모의 가난한 경제력으로 수 없이 학교를 옮겨야 했다. 결국 도로시의 부모는 8세에 이혼을 했고, 서로 양육포기를 하면서, 조부모 손에 키워지게 되었다. 8세부터 14세까지 조부모의 끊임 없는 정신적 학대를 견디지 못하여, 14세에 가

정부 직업을 구해 조부모 품을 떠나 자립하였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을 딛고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자동차 판매 사무실에 경리로 일하게 되었다. 18세에 8년 연상인 힐러리 아버지인 휴 로담(Hugh Ellsworth Rodham)을 만났다. 힐러리의 어머니 도로시는 5년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결정했고, 결혼하고 5년 뒤 첫 아이인 힐러리를 낳았다. 도로시가 어떻게 오독이 성품을 형성하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지만 도로시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힘은 그녀의 어린시절 이미 형성된 '오독이 성품'이 있었기 때문이라 추측한다. 또한 그 시대의 여성화를 생각해볼 때, 도로시는 혼자 사는 일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결혼을 하지 않은 결단력을 보여주었고, 아버지 휴 로담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었을 때 첫 아이인 힐러리를 낳은 점 등, 도로시는 이미 힐러리의 탄생의 과정부터 자신과 아주 다른 환경을 주려했던 것 같다. 힐러리 자신도 자신의 어머니인 도로시가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오독이처럼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여, 온정적이며 분별있는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힘에 삶의 영감을 얻었다고 말한다.

힐러리의 오독이 캐릭터는 그녀가 결심한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했다. 힐러리의 남편인 빌 클린턴의 수 없이 많았던 불륜관계에서조차 그녀는 곳곳이 자신을 지켰을 뿐 만이 아니라 빌을 위기에서 구해주곤 했다. 도로시는 힐러리가 빌의 섹스 스캔들로 위기에 빠졌을 때, "내 딸은 감정이 섬세하지만 감정에 지배당하지는 않는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고 말했던 것처럼 힐러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자신의 오독이 성품을 통해 감정이 아닌 책임감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갔다.

나르시시즘이 병리적 형태를 갖느냐, 성숙한 형태를 갖느냐의 중요한 열쇠도 성품 형성

과 깊은 관계가 있다. 프로이드(Freud)와 코헷(Kohut)의 나르시시즘의 견해를 통해 설명한다. 생애 초기의 유아는 모든 것이 자기로 향한 사랑의 마술 같은 환상적 전능감을 경험하게 되는데 프로이드는 이것을 일차적 나르시시즘(primary narcissism)이라 불렀다. 이후 발달을 거치면서 일차적 나르시시즘의 상태에 있던 유아는 외부대상과의 접촉을 통해서 대상사랑(Object-Love)을 할 수 있도록 성숙해진다. 만약 대상사랑이 결핍되면 그 대상 대신 다시 자아로 철수하며 다시 자아에 투여함으로써 다른 외부대상을 사랑하거나 외부대상에게 관심을 두지 못하고 모든 에너지를 다시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시키거나 모든 관심을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시키는 상태가 된다. 이것을 프로이드는 이차적 나르시시즘(secondary narcissism)이라 명했다. 따라서 프로이드에게 있어서 이차적 나르시시즘은 일차적인 나르시시즘을 긍정적으로 충분히 잘 구조화되지 못해서 오는 자기의 결핍(deficit)의 문제이고 자기의 장애라고 본 것이다.

정신분석가 코헷은 프로이드와 다른 나르시시즘의 견해를 가졌다. 코헷은 인간의 자기 사랑(Narcism)과 대상사랑(Object-Love)은 둘 다 각각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일생동안 발달적 측면에서 상호적으로 함께 작용한다고 보고 있다. 코헷은 이차적 나르시시즘은 대상사랑으로부터 다시 자기사랑으로 퇴행되는 의미에서의 병리적 나르시시즘만이 아닌, 일차적 나르시시즘(유아적 자기에)으로부터 보다 성숙한 형태로 변형되는 나르시시즘(건강한 자기존중, 자기사랑)의 고유한 발달을 할 수 있는 건강한 나르시시즘으로 보았다. 코헷에게 있어서 나르시시즘은 프로이트의 주장에서처럼 대상에서 결핍된 사랑을 자기 자신에 대한 몰두로 대체하는 것이 아닌, 자기의 일부로 경험하는 대상(자기대상)과

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 프로이드의 나르시시즘은 자기관심, 자기집중 혹은 자기몰두와 관련하지만, 코헷의 나르시시즘은 자기와 대상간의 관계들의 속성에 그 초점이 있다. 프로이드의 병리적 나르시시즘은 '자기자랑'이 많은 나르시시즘, 코헷의 성숙한 나르시시즘은 진정한 '자기사랑'을 표현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두 개의 학설을 살펴볼 때, 힐러리의 나르시시즘은 그녀부모의 풍족한 대상사랑을 통해 튼튼한 '자기사랑'을 구축했던 것 같다.

'자기자랑'이 많은 나르시시즘은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남들에게 자신의 강점만 보여주려고 지나치게 남들을 의식하고, 타인에게 의지하여 행복을 추구하려 한다. 사실 남들을 의식하면 할수록 자신감있고 당당하게 살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기에 점점 더 진정한 자기 사랑보다 자기 자랑이 많아진다. 반면, '진정한 자기사랑'은 자신의 단점을 쿨하게 인정하고,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고, 실수를 거듭해도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행복한 삶은 진정한 자기사랑에서 비롯된다.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삶을 통제해 주기를 바라지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려 부단히 애를 쓴다. (이정곤-'성품의 힘')

모녀관계는 무의식중에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 엄마가 되어 자신이 낳은 딸을 키우며 자신의 엄마로부터 자신이 인격체로 수용되지 않았던 상처, 자신의 감정을 적절하게 수용하지 못했던 엄마와의 관계 안에서 결코 독립하지 못했던 자신의 일부를 보게 된다. 그러면 힐러리의 이 삼대의 걸친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남자의 선택'이었다. 힐러리의 삼대에 걸친 '남자의 선택'의 '공생관계의 환각(symbiotic illusion)'을 다음 칼럼을 통해 이야기 해보도록 한다.



EMF(Electro Magnetic Field Certificate) 인증
34년 기술력

꾸준히 잘자리에서 날게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 상쾌해집니다.
바쁜 하루도 거뜬합니다. 그래서, 잠이 보약이라고들 말합니다.
이것은 온수매트와 함께 포근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검색하세요! www.heraldemart.com

아랫목 溫水 매트

달게 주무셨습니까?



싱글사이즈
퀵사이즈

(100cm x 200cm)
\$375

(145cm x 200cm)
\$435

01 공중기압 원동으로 전자파 걱정 특!

02 보타가 없으니 소음 걱정 특!

03 7중 안전 제어 시스템으로 안전 걱정 특!

04 스마트 가전 방식으로 전기세 걱정 특!

경제 전문지가 운영하는 믿음 주는 홈쇼핑

헤럴드 이마트 **Herald eMart**

주문 전화 **213.487.0125**
3325 Wilshire Blvd. #628 LA, CA 90010

Free delivery

무료배송 (하와이, 알라스카는 \$90추가)



튼튼한 안보에 기반한
한반도 평화통일과
청년의 비전

Show!
One Korea!

2016 세계 장병·청년
통일안보 비전 발표대회

참가 대상 지역 초·중고, 대학(원)생, 사회인, 국내·외/탈북, 현지인, 참전용사후손, 군인 등 2명 이상 5명 이내의 팀

발표 방법 팀별 2-5명으로 편성, 10분 이내로 자유형식 발표
※ PT·토론·뮤지컬·콩트·연극·개그·연주·마술·댄스 등 모든 퍼포먼스 허용

대회 신청 4월 30일까지
신청서와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 참고
<https://sites.google.com/site/bostonnuacorg>

대회 진행 예선대회: 6월4일(토) Harvard 대학
※ 각 예선대회 최우수팀 본선대회 진출
본선대회: 7월18일~22일(잠실롯데월드몰 및 캠프그리브스)
※ 방송중계 및 다양한 통일·안보 체험행사 진행

문의연락처
유미자 mjayun@hotmail.com / 조진영 contact.bostonnuac@gmail.com

총 2억원 상당의 상금 및 다양한 특전

예선 시상	최우수상	1팀	본선참가특전
	우수상	2팀	50만원
	장려상	3팀	30만원

- 최우수팀은 본선출전권 부여
- 해외 최우수팀(현역)에게는 상금으로 본선참가를 위한 항공권(경비) 지급
- 본선안은 대회기간 갈수록 전역지침 ※국외 지역예선대회팀 시상

본선 시상	대상	1팀	1천만원
	최우수상	1팀	5백만원
	우수상	5팀	3백만원
	장려상	13팀	1백만원

- 전원 '통일·안보리더, 인종서 수여
- 국내·외 통일안보 행사에 초청
- 연세 통일안보리더 워크숍 초청
- 연례대회 진행프로그램 참여
- ※ 시상 종류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www.showonekorea.kr



대한민국 국방부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328)

하락한 주식시장의 진실

2016년 기대에 찬 새해가 밝았는데 주식 시장이 단 3주 만에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50만 불 투자 돈에서 5만 불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투자자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질 때 3회에 걸쳐서 발표한 재정칼럼을 요약해 봅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한 이유가 중국경제와 오일가격 때문이라고 전문가가 말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경제에 의존도가 매우 낮기에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오일가격 하락도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투자하기 좋은 기회라고 언급했습니다.〉

염려했던 주식시장이 3개월 만에 10%를 가볍게 회복하고 계속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필자가 주식시장이 하락할 때 오히려 투자하기 좋은 기회라고 말한 것은 시장을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재능(?)이 있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주식시장의 본래 성격을 조금 이해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주식에 투자하며 주식시장이 항상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는 투자자는 거의 없습니다. 하락하는 주식시장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

다. 다만 하락하는 시장을 맞이하게 되면 마음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몸에 어떤 이상이 있기 바로 전까지는 누구나 건강에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첫사랑(?) 기억을 시작으로 오만가지 상념에 빠지며 심지어 극단적이 생각마저 합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 마음입니다.

역사(history)는 우리에게 커다란 윤곽(outline)을 설정해 줍니다. 그러나 미래에 어느 시점에 무엇이 얼마만 한 크기로 일어나는지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이 그러합니다.

2016년 말에 주식시장 수익률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주식시장이 10% 하락한 경험을 했습니다. 주식시장 1950년부터 2014년까지 매해 주식시장이 10% 이상 하락을 경험한 해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은 50%가 넘습니다. 다시 말해 일 년 동안 10% 이상 하락을 경험한 해수가 64년 중 32년이라는 말입니다.

〈참고: 과거 64년 동안 주식시장이 5%보다 적게 하락한 경험은 6.2%, 5%~10% 하락

경험은 41.5%, 10%~15% 하락은 20%, 15%~20% 하락은 15.4%, 일 년 중 시장이 20% 이상 하락했던 경우는 16.9%입니다.〉

과거 주식시장 64년 중에서 32년은 시장이 10% 이상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2년 중 1년은 10% 이상 하락하는 시장을 경험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식시장 10% 이상 하락을 경험한 32년 중에서 실제로 20년은 수익률이 포지티브(positive)로 마감했습니다. 64년 중에서 어떤 3년은 25.9% 폭락, 27.6% 폭락, 33.5% 폭락하는 경험을 했지만 결국 연말에는 수익률이 포지티브한 것으로 마감했습니다.

지난 64년 주식시장을 돌이켜 볼 때 일 년 사이에 주식시장이 10% 이상 하락했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보통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하면 잘못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주식시장에선 나의 소중한 자산이 손실로 이어집니다.

참고로 주식시장 64년 중에서 10% 이상 하락한 적이 없는 31년은 주식시장이 포지티브로 마감했습니다. 다시 말해 31년은 수

익이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주식시장은 지난 7년 동안 호황기입니다. 장기간 상승하는 주식시장에서 소위 투자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가 되었다고 예측합니다. 그런데 주식 폭락을 기대했던 전문가는 기다리다 지쳐서 투자하기로 결정합니다. 아마도 이런 투자전문가가 투자하면 주식시장이 바로 폭락하려는지 모릅니다.

주식 가치분석, 기본분석(fundamentals), 기술분석(technical), 등 여러 자료를 이용해서 주식시장 움직임을 예상해 보지만 투자자가 공황(panic) 상태가 시작하면 이 모든 자료는 무용지물입니다. 주식시장을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주식시장 1950년부터 2014년까지 오르고 내림을 반복했지만, 연평균 11%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100,000 투자가 약 \$79,000,000으로 불어나는 놀라운 수익률입니다. 주식시장이 두려워서 투자하지 못하거나 하락한 시장에서 팔고 나오면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보스톤코리아 칼럼리스트 소피아 us.herstory@gmail.com

소피아 선생님의 지난 칼럼은 mywiseprep.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AP US History 준비, 키워드를 분석하면 길이 보인다 (8)

DBQ 준비를 위한 황금률 2. 출제자의 의도

AP US History에서 DBQ 문제가 궁극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인과 관계를 파악하는 능력, 논증의 능력, 주어진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제대로 분석하고, 이를 근거(evidence)와 예(example)로 삼아 논증을 구체화할 수 있는 능력, 전체적인 맥락을 잡아내는 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 좋은 DBQ 에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어쨌거나 이른바 “역사적 사유 능력” 이라고 불리는, 위와 같은 요소들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칼리지 보드”의 잣대를 기억해 두는 것이 DBQ 에세이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방법이다. 즉,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좋은 점수를 받는다.

DBQ 에세이의 최고 점수는 7점으로, DBQ 에세이의 평가 항목(Grading Rubric)에 따르면 Thesis, Argument Development, Use of the Document, Sourcing the Document, Contextualization, Outside Evidence, Synthesis에 각 1점씩이 할애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다음은 각 평가 항목 각각이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들이다.

〈논제와 논증의 전개: 총 2점〉

• Thesis: Present a thesis that makes a historically defensible claim and responds

to all parts of the question. The thesis must consist of one or more sentences located in one place, either in the introduction or the conclusion.

• Argument Analysis: Develop and support a cohesive argument that recognizes and accounts for historical complexity by explicitly illustrating relationships among historical evidence such as contradiction, corroboration, and/or qualification.

〈문헌 분석: 총 2점〉

• Use of the Document: Utilize the content of at least six of the documents to support the stated thesis or a relevant argument

• Sourcing the Document: Explain the significance of the author's point of view, author's purpose, historical context, and/or audience for at least four documents.

〈배경지식의 활용: 총 2점〉

• Contextualization: Situate the argument by explaining the broader historical events, developments, or processes immediately relevant to the question

• Evidence Beyond the Document: Provides an example or additional piece of specific evidence beyond those found in the documents to support or qualify the argu-

ment

〈종합: 1점〉

• Synthesis: Extend the argument by explaining the connections between the argument and one of the following:

a. A development in a different historical period, situation, era, or geographical area

b. A course theme and/or approach to history that is not the focus of the essay (such as political, economic, social, cultural, or intellectual history)

논증의 논제와 전개라는 구성요소는 무엇보다도 훌륭한 서론을 통해서 좋은 점수를 획득하는 전략이 좋다. 예를 들어 “Explain the reasons why a new conservatism rose to prominence in the United States between 1960 and 1989” 라는 질문에 답하는 DBQ 에세이의 서론에서

“Many claim that the new conservatism rose to prominence in the U.S. between 1960 and 1989 because of the instability of the economy. However, three more important causes were the left activist influence on politics, the break-up of the traditional family life, and the effects of the counter-culture within society. Therefore, the rise of the new conservatism resulted from the de-

sire for a return to structure and order.” 라고 쓴다면 좋은 점수를 받았을 것이다.

이 서론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논제는 “The rise of the new conservatism resulted from the desire for a return to structure and order” 이다. “신보수주의가 1960년에서 1989년까지의 경제적 불안에서 유래했다는 주장들이 많다. 하지만” 이라는 도입을 통해서 기존의 입장과는 다른 논증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 전체 에세이의 논제를 빛나게 하는 한가지 요인이다. 또한 이 에세이의 서론은 논제의 근거를 (주로 주어진 문헌을 활용하여) “좌파가 정치에 끼친 영향과, 전통적인 가족의 해체, 그리고 반문화의 영향” 등이 (신보수주의의 대두에) 더욱 중요한 요인이었다.” 고 간략히 언급하고 있다. 이로써 서론 마지막에 위치한 논제는 충분히 “옹호가능한” 형태가 되었다. 또한 (각 본론이 정합적으로 구성될 경우,) 충분히 논리적인 논증 전개와 자료의 적절한 활용을 기대할 만한 서론으로 보여진다.

일러두기: 소피아 선생님의 오늘, 다시 읽는 미국사 칼럼은 3월, 4월 두 달간 AP US History 문제 분석 특강으로 9회 연재됩니다. AP US History 시험 준비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와이즈프렙 (617-600-47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CENA 후라이팬 4종

공중팬 2개+후라이팬 1개+뚜껑

다이하운드 코팅보다 한 차를 앞 선 반반사출 코팅기술로 슬프고 오래 유지되며
유발물질과 유해물질이 산성인 세라믹 코팅이 적용되었습니다.

<p>라세나 언더싱크 30cm 후라이팬 세트</p> <p>24cm 후라이팬</p>	<p>라세나 언더싱크 30cm 후라이팬 세트</p> <p>28cm 후라이팬</p>	<p>라세나 언더싱크 30cm 후라이팬 세트</p> <p>24cm 후라이팬</p>	<p>라세나 언더싱크 30cm 후라이팬 세트</p> <p>28cm 후라이팬</p>
---	---	---	---

\$169
\$109

mom's COOK

맘스쿡 건강식 마스터

25분 요리완성

1. 다이어트
 2. 건강관리
 3. 바쁜 생활
 4. 아이들 건강관리
 5. 노인 건강관리

\$179
\$129

에코솔라 손주물 4종세트

1. 친환경 세라믹 코팅
 2. 내열성 세라믹 코팅
 3. 내열성 세라믹 코팅
 4. 내열성 세라믹 코팅

\$219

냉새장은 쿠팰

HEALTH COOKER
 전골 코펠
 사각 그릴코펠

해방 되십시오!
 \$90
\$75

90% OFF



성기주 변호사 칼럼

이민 소식 (2016년 4월 넷째주)

● 미군입대와 가족영주권 신청

며칠전 한국 유학생들의 미군입대에 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아시아 중에서는 한국인이 제일 많이 미군에 입대했다고 합니다. 대부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 입대의 주요 사유였다고도 합니다. 이민 신분을 위해 군에 입대한다는 것이 씁쓸하기는 하지만 이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알려진 것과 같이 외국인 신분에서 미군에 입대하게 되면 영주권 취득과정이 없이 바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민의 목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특혜입니다. 또한 시민권 신청의 전반적인 절차를 군에서 도와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후의 이민에 관한 서비스는 거의 전무합니다. 예를 들면 미군에 입대해 시민권을 취득한 후 결혼으로 배우자의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부모님을 영주권자로 초청하는 등의 작업에 대해서는 군에서 거의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안도와준다가 보다는 이러한 업무를 해주는 인력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것이 맞겠네요. 그러다 보니 경우에 따라선 많은 불편과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배우자 또는 부모님들의 영주권 작업 때문에 많은 돈을 지불하고 해외근무지에

서 미국본토로 와서 작업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 신청서(I-130)는 근무하는 국가에 상주하는 미대사관 내 이민국에 제출하면 됩니다. 한국인이 입대해서 주로 가는 해외 근무지인 한국, 독일, 필리핀 등에서는 아무 문제없이 이들 나라에 상주하고 있는 미대사관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들 나라에 있는 미대사관에는 이민국 직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근무지에 있는 미대사관에 이민국 직원이 상주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는 미대사관이 있지만 이민국 직원은 상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면 일본의 미대사관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었습니다.

이민국은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해 미대사관의 국무부 직원들에게 이민신청서를 접수하고 승인할 권리를 줬습니다. 따라서, 근무국가에 이민국 직원이 상주하지 않더라도 근무국가에 상주하는 미대사관에 이민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Entry Permit (재입국허가서)

이민국은 4월18일 해외에서의 지문채취를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재입국허가서 신청자들의 불편이 덜어질 것이라는 예상들이 많습니다. 재입국신청서는 신청할 때 반드시 신청인이 미국영토에 머물고 있어야 하며 적어도 지문채취를 받아야 출국이 가능했습니다. 아니면 신청 직후 출국한 뒤 지문채취를 위해 다시 입국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신청후 바로 출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재입국허가서 신청자들이 큰 혜택을 볼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하지만 꼭 그렇다고 보기엔 아직 이릅니다. 우선, 모든 재입국허가서 신청인들이 해외에서 지문을 채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지문채취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즉, 미국에서 지문 채취를 기다릴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일자리 제의 때문에 급히 일을 시작해야 했거나, 건강상의 문제, 가족의 건강상의 문제로 빨리 출국을 해야 했거나 등의 정당한 사유를 증거와 함께 밝혀야 합니다. 또한 재입국신청서 신청시 이미 미국내에서 지문채취를 급행으로 처리해 달라는 요구를 한 증거도

있어야 하고요.

위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면 미대사관의 이민국에 지문채취 신청 (domestic ASC appointment) 를 하시면 됩니다.

외국의 이민국 사무실은 대부분 제한적인 업무만 수행하고 있으며 지문채취에만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민 업무들과 같이 이제라도 앞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수정 보완 될 것입니다. 그 때까지는 현행대로 미국에서 지문 채취를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해외 이민국 사무실은 아래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https://www.uscis.gov/about-us/find-uscis-office/international-immigration-offices>

성기주 변호사 (Kiju Joseph Sung)

<http://www.lookjs.com>

Copyright © Law Office of Kiju Joseph Su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ong Law Firm의 법률칼럼 법정에서 강하고, 고객에게 편안한 "Song Law Firm"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송동호 종합로펌 법률 칼럼 - [이민법] O비자가 가능한 특이한 직업들

Song Law Firm (www.songlawfirm.com)은 뉴저지에 본사, 뉴욕에 사무소를 두고 현재 한국지사설립을 준비중에 있는 종합 로펌입니다. 각 분야에서 인정받은 유태인, 한인변호사들이 이민법, 지적재산법, 사고상해, 기업법, 가정법, 민형사 소송 등의 분야에서 최고의 법률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한인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미국에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미래를 개척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소속변호사 : 송동호 대표 변호사, NJ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출신의 Howard Z. Myerowitz 외 10여명
www.songlawfirm.com, 보스턴 사무실 전화: 617-489-1327

안녕하세요. 송동호 종합로펌입니다. O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혹은 운동 분야나 방송 관련 분야에서 뛰어난 실력(extraordinary ability)을 보여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흔히 예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비자이기 때문에 "예술가 비자" 라는 별칭으로 불립니다. 이러한 별칭 때문에 예술가들만 O비자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예술가 외의 다양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O비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저희 로펌에서 진행했던 케이스들만 살펴봐도 다양한 직업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는 건축 관련 종사자들 케이스입니다.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는 수년의 경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건축학 학사를 받은 분들의 대부분은 건축가의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건축가로서는 비자를 받기가 매우 힘듭니다. 건축 보조사(Architectural draft)로 H-1B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지만 H-1B는 최근 몇 년간 추첨을 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고 4월 1일에 접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취업이 된 경우 지원의 기회조차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O비자는 분명 기회입니다. 미국에서

건축학 학사나 석사를 받고 미국에서 활동하고자 한다면 "건축디자이너(Design Architect)" 로 O비자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건축 디자이너는 건축의 "예술" 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때문에 분명 비자에 적합한 직업이며 실제로 저희가 진행한 많은 케이스들에서 건축학 학사, 석사를 가진 분들이 "건축디자이너" 로 성공적으로 O비자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예는 요리 관련 종사자들 케이스입니다. 최근 요리사라는 직업이 초등학교생 대 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1위를 할 정도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훌륭한 요리학교들이 많이 있고 요리 산업의 규모도 매우 큼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활동을 해 보고자 하는 요리사들도 많이 있고 미국에 있는 요리 학교를 방문해보면 한국 학생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리사라는 직업은 "맛의 예술가" 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저희는 미국에서 활동하고자 하시는 요리사들의 O비자 케이스를 진행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 케이스들에서 저희는 요리사들의 요리에 대한 예술적 접근, 음식에 대한 프

리젠테이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요리법 개발에 있어 예술적인 측면들을 강조하였습니다.

O비자는 운동 선수들도 많이 혜택을 받습니다. 운동선수의 O비자 케이스를 진행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바디빌딩과 같은 특이 운동 종목도 O비자의 대상이 되는지, 가능성은 있는지 문의를 하곤 합니다. 올림픽 종목이 아니고 비인기 종목이라 하더라도 바디빌딩, 싱크로나이즈 수영, 수구, 그리고 피겨 스케이팅과 같은 특이 운동 종목들도 O비자의 혜택이 가능합니다. 바디빌딩의 경우, 스포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술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바디빌더가 미국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 O비자는 매우 적합한 비자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 운동 선수였다가 현재는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O비자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를 하곤 합니다. 저희가 최근에 진행했던 케이스에서 전직 싱크로나이즈 선수로 현재 코치로 활동하는 고객이 있습니다. 코치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싱크로나이즈 안무를 짜는 것이기 때문에 안무의 예술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성공적으로 O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민변호사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는 창의력입니다. 흔하지 않은 케이스라 할지라도 이민법에 대해 잘 알고 케이스를 창의적으로 접근하다보면 이민국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케이스 진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O비자나 여타 다른 비자에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칼럼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독자분들께서 알고 싶으신 법률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mail@songlawfirm.com으로 문의해주세요. 다음에 쓸 칼럼에 반영하겠습니다.

** 독자분들에게 유용한 법률정보를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더욱 편안하게 확인하여 보세요. 이번에 신규 런칭한 Song Law Firm의 Mobile Website로 기존의 칼럼 및 뉴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songlawfirm.com
Facebook으로 친근해진 송로펌
www.facebook.com/songlawfirmllc
생활속의 법률 매거진, 송로펌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onglawfirm1>
대륙으로 진출하는 송로펌
www.weibo.com/p/1005055593845027



INADA 뉴욕전시장 오픈기념 대세일

플러싱 코리아빌리지 1층 기간: 2월 6일 ~ 3월 31일



이나다 Dream Wave 구매하시는 분에게
Body Slimmer(\$1,200) 상당 또는 삼성 김치냉장고 무료 증정

마사지체어는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종합 의료기입니다



FDA
APPROVED

Dream Wave

~~\$12,500~~

\$8,550

선착순 10명

Body Slimmer (\$1,200) 상당
또는 삼성 김치냉장고
무료 증정



마동부 전지역 무료 배송
5년 무상 워런티

 **INADA**
The World's Best Massage Chair®

마동부 공식 대리점

베델전자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뉴욕지점 코리아빌리지 1층 201-417-5350

베델전자 1475 Bergen Blvd. Fort Lee, NJ 07024
한남체인점 1888-809-1167

하이트론스 1 Remsen PL. Ridgefield NJ 07857
H TRONS 201-417-5350 / 201-941-0024

사업의 시작은

Lee Associates

이경해 부동산

1.800.867.9000



Broker & Realtor(1985년부터 보유) 사업 및 부동산 무료 상담

비즈니스 용자 일선: 20% 현금다운, 프로젝트 700+
상가건물, 콘도, 아파트건물 투자하실 분 환영
1031 Exchange(상가건물세금혜택)서비스
미 전역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E2비자 사업에 전문, 비즈니스 무료상담
크고작은 세바스틀, 런드로맷(Laundromat) 상물
주유소, 식당, 편의점, 주류판매점 등 다양한 사업체
항상 리스팅 80-100 보유

Cell.....508.962.2689
Tel.....781.297.5679
www.leebrokers.biz
Email..kayleebrokers@aol.com

보스톤 서쪽 세탁소 셔츠 유닛만, 고급물 안, 연매상 \$148,000

보스톤 서쪽 런드로맷 연매상 \$236,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보스톤 남쪽 동양식당 연매상 \$310,000 주 6일 오픈, 풀 리커 면허증

동양식당 로드아일랜드 프로비던스 대학가 근처, 연매상 \$350,000

네일살롱 여러장소 연매상 \$160,000 - \$800,000

보스톤 서쪽 드롭스토어 2곳, 연매상 \$300,000 과 \$250,000 소유자 부재중 경영

런드로맷 연매상 \$190,000 + 100% 주인부재 중 운영 좋은 위치

뉴햄프셔 세탁소+런드로맷 연매상 \$110,000 18년만에 은퇴, 매매가격 \$35,000

드롭 보스톤 북쪽 연매상 \$100,000 매매가격 \$35,000

드롭 스토어 보스톤 서쪽, 연매상 \$260,000 부유한 동네

메인 포틀랜드 컨비니언스, 연매상 \$700,000 좋은 위치, 변화한 플라자

보스톤 북쪽 건물; 2층 아파트, 1층 상가, 매매가격 \$980,000

뉴햄프셔 남쪽 고급동네들, 풀 플랜트, 연매상 \$550,000
드랍스토어(연매상 \$345,000 / \$180,000) 각각 매매가능, 좋은위치

뉴햄프셔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225,000 변화한 플라자 안

보스톤 풀 플랜트+드랍, 연매상 \$750,000 35년 경영, 소유자 은퇴

보스톤 서쪽(RT.2) 드롭가게 연매상 \$200,000

버몬트 남쪽 동양식당 연매상 \$390,000 Beer&Wind 면허증, 34년간 지속 영업
매매자 소유 건물 - 좋은 리스

보스톤 북쪽 드롭가게 연매상 \$208,000 고급동네

동양그로서리 연매상 \$700,000 - \$900,000 여러장소

보스톤 남쪽 Meat+컨비니언스+로터리, 연매상 \$910,000+

보스톤 북쪽 런드로맷+부동산+임대수입 유닛, 매매가격 \$529,000

보스톤 서쪽(I-495) 세탁소 풀 플랜트+셔츠유닛, 연매상 \$500,000 고급동네

네일살롱 캠브리지 연매상 \$190,000 매매가격 59,000

보스톤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50,000+ 새 기계들, 부유한 동네

보스톤 서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180,000 이상 소유자 은퇴

보스톤 북쪽 세탁소, Full Plant+셔츠유닛, 연매상 \$250,000 소유자 은퇴



보스톤 교육원

명문 중.고.대학 진학상담 및 수속
전문적인 맞춤형 진학상담
최고 에세이 편집자
최고 전.험직 입학 담당자 상담

셈머/윈터 프로그램
전문적인 관리 및 실질적인 프로그램
MIT/Harvard 특별 프로그램
다양한 주말 프로그램

가디언 업무
수시 교사 면담 및 성적관리
아카데믹 로드맵 작성 및 실행
다양한 경시 대회 준비, 셈머 및 교외 활동

아카데미 프로그램

SAT I(old, new)
SAT Subjects/AP 수업
최고 전문강사들의 수업
실전문제 중심수업
주말수업(상시참여 가능)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가능

전과목 개인과의 가능
오프시간에 걸쳐 학생과 학부모님들로부터
인정받은 최고의 강사들이 수업 합니다.
개인 및 스카이프 수업 가능
각종 경시대회 준비
AMC, National Spanish/French/
Latin Exam

4월 Spring Break 프로그램

1. 공립학교 학생들을 위한 New SAT I class
새로운 문제유형을 완전 분석하여 그에 맞는
최적의 수업을 제공합니다.
(수업일정)
10:00-1:00 강의
(Evidence-Based Reading, Writing, Math
without a calculator, Math with a calculator)
1:00-2:00 점심식사
2:00-5:00 문제풀이 연습
2. SAT II Subject test classes
Math II C, Biology, Chemistry, Physics
3. 5월 AP 대비 전과목 수업가능
4. 초, 중학생을 위한 writing class
5-8학년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소규모 class로 운영됩니다.
(Goals)
• Improve writing skills
(Six traits: Ideas and Content, Organization,
Word Choice, Conventions,
Sentence Fluency, and Voice).
• Improve critical thinking skills.
• Prepare for school writing assignments
기간: 4.16(토)~23(토) 8일간
시간: 1:00-3:00

Narrative Writing, Expository Writing,
Technical Writing/Vocabulary,
Persuasive Writing